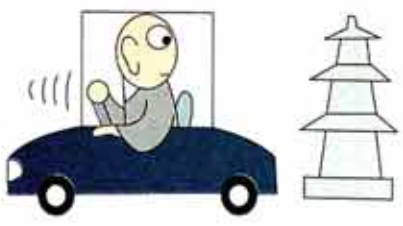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5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사찰 내 차량출입

불자 김영찬씨(52)는 14일 가족과 함께 도선사를 참배했다. 봄이 오는 산길을 걸으며 산사를 찾는 묘미는 대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웅전에 참배하기까지 여러 번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일주문 밑에 주차장이 있지만 법당 앞까지 차량을 몰고가는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성스러운 수행도량이지 관광지가 아니다. 스님들이 묵언하며 수행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신행공간이다.

수행공간인 사찰의 차량출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호젓한 마음으로 조용한 산사를 기대하고 찾아가지만 쉴새없이 오르내리는 차량으로 시끄러울 뿐 아니라 경내가 주차장화 돼있기 일쑤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넘치는 것도 아니다. 비어있다.

주차장에 차 놓고 법당까지 걸어서

통도사 일주문 아래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서 있다. 옛날에는 말을 타는 귀인들도 이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올라 갔다고 한다.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하마비는 현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 내에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사찰측에도 문제가 있다. 스님들은 신도들이 경내까지 차를 몰고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는 인식을 버리게 할 책임이 있다. 이제부터는 스님들과 신도 입원들부터 모범을 보여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동차는 소음도 문제지만 배출가스로 인해 소중한 성보문화재의 훼손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개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은 바람을 앗아가버린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차로 생생 달리는 몰염치, 이젠 퇴출해야 할 행위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하셔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출가절 특집 6면

로마교황청 고산스님 초청

10월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천주교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만난다. 두 종교지도자의 역사적인 회동은 오는 10월 24~27일 교황청이 주최해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지도자회의에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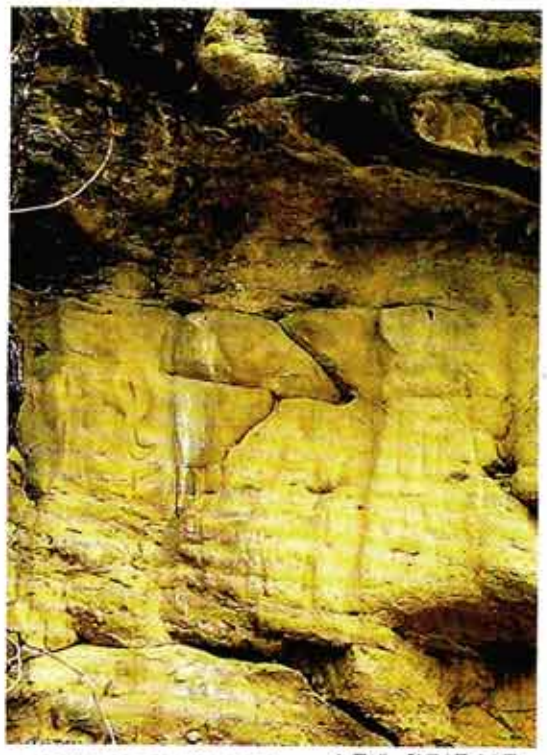
로마교황청이 주최해 '세계평화와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최창규 성균관장이 초청을 받았다. 조계종총무원은 고산스님의 세계종교지도자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4일 주한 로마교황청 대사가 총무원을 방문, 고산스님을 만나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종교지도자의 만남 자체만도 세계적인 관심사일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두 종교의 지혜를 나누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인류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세기말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진다.

천주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불교계 대표와 만난 적은 없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내 最古 마애불 발견 ◇국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마애삼존불이 경북 군위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로 세로 10m 크기의 이 마애불은 한국조각사와 불교전파 경로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2면〉

"금강산 사찰복원 일방진행 유감"

조계종, 현대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5일 금강산 사찰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현대측에 전달했다.

고산스님은 공문을 통해 "귀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 사찰 복원사업이 본 종단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불교도의 공동 합의 및 본 종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의 심상진부장은 "신계사 복원사업은 아직 구상단계일 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며 불교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봄꽃은 피는데…

영축산 통도시 경내에 봄이 피었다. 매화와 산수유가 흐드러진 경내는 부처님의 손길 같은 포근함이 감돈다. 통도사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산사에서 봄을 맞으려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초발심 회복운동' 전개

조계종 참회·발심·효행·용맹주간 선정

25일 선포식…스티커 배포 출가-열반절 참회자정주간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7일 "승가본분을 확립하고 수행풍토를 조성하며, 계율의식이 존중되는 종단 본연의 모습을 일궈나간다"는 취지로 출가재일부터 올해 내내 '초발심 회복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출가재일부터 열반절까지-참회와 자정 주간 △초파일 전 일주일-발심정진 주간 △우란분절 전 일주일-효행천도 주간 △성도재일 전 일주일-용맹정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결치기로 했다.

조계종은 25일 출가재일을 기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종회의원 등 종단의 중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발심 회복운동' 선포식을 갖고 '초발심으로!'라고 쓰인 스티커를 배포하며 범종단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스티커는 1차로 10만장을 제작해 배포한다. 열반재일인 4월 1일까지 8일 동안 각 사찰별로 '참회와 자정, 초발심'을 주제로 기도정진하거나 법회를 봉행한다.

춘천 대전 등 올해 새로 지정하는 5곳의 진법도량 지정 기념 법회도 '초발심 회복' 법회로 봉행하며, 본말사주지 연수의 입재식을 포살법회로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도 개최해 '조계종단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조계종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수행풍토 실종과 계율의식의 해이, 승가내 물질주의의 팽배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이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지난 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올해의 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가 되기 위한 2단계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 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절마다 도서실(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불·기도·법회를 마치고 도서실에 들어가 불서를 읽거나 궁금했던 교리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서를 대여받아 집에 가서 가족이 함께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드는 불사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주춧돌 놓기입니다. 〈관련기사 14면〉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일타 큰스님께서 모으신 화엄경 명언집!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신간!
일타큰스님 편역
화엄경을 독송하다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에 감격하여 한 대목씩 초출해 놓은 것이 이 책이 되었다.
아무튼 읽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다 보면 보살의 해탈, 보리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타큰스님 서문 중에서—

이별에 애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근심이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괴로움이란 나무는 여럿게 하여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성스러운 진리이다.
—명언 중에서—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국판 210쪽 / 값 5,5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안내
기쁘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

사 설

초발심이 열반이다

3월 25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의 한 가운데를 읽고 그 너머를 꿈꾸시며 왕국의 부와 권세를 흘흘히 떨치고 사문이 된 날이다. 출가란 버릴 줄을 안다는 말이다.

길거리에서 이사짐 차를 볼 때면 누구나 쓸쓸해 질 것이다. 직접 이삿짐을 꾸릴 때는 더하다. 어디선가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그 잡동사니에 놀랍고 처량하며 화가 치민다. 복잡한 세상에 목숨 하나 붙이고 사는데 이토록 많은 물건이 따라다녀야 하는가고 말이다. 그런 짐부터 줄이고 간소화해가는 훈련을 해 보자. 부처님은 구도의 열정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렸다. 출가절에 주변의 짐부터 정리하는 작은 출가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한다. 가장 잘 하는 인테리어는 아무 장식도 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

현란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사다 재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이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얽혀 속박되기 쉽다. 자아의 확대를 위한 분투, 그리고 그 좌절로 인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편견들이 이를 통해 강화되고 굴절된다. 출가절을 맞아, 이런 사람 사이의 짐들도 벗었으면 한다.

기억할 것이다. IMF가 왜 왔으며 저 기억하기도 싫은 조계종 점거는 왜 일어났는지. 눈먼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의 뿌리는 한가지이다. 현대 불란서의 한 철학자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한 나의 욕구는 타자의 눈을 통해 오지 않는다. 스스로에서 발원하는 것은 개성적이고 아름다우며 삶의 운기와 향기를 갖고 있다. 부처님은 그 욕구를 성취하신 분이다. 현세의 오탁을 몰고 오는 것은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는 욕망이기에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도 성취될 수도 없으며, 결국 너와 나를 함께 패망시키는 죽음의 행진일 뿐이다. 부처님은 오랜 고행 끝에 이 진실을 아셨다.

출가절이다. 우리 모두 처음의 그 애틋하고 붉은 발원 그대로 돌아가 나를 비우고, 그곳에 그분이 살게 하자.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범종단적으로 초발심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각 사찰에서 참회정진과 발심수행을 위한 순회공연과 특집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니 이번 기회에 부처님제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중 모두가 함께 몇시간이고 하룻밤이고 묵언수행을 함께 진행하는 행사를 벌이면 어떨까. 침묵만큼 큰 설법이 없다.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구의(身口意)로 지은 업과 탐진치(貪嗔痴)의 해독을 정화시키고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45년간 긴 혀를 늘이시어 설법을 하셨다고는 하나 구구절절 지침을 주고 행동을 권유하시지는 않았다. 그 사는 모습 그대로가 교과서요, 분발의 채찍이라 따로 달리 말이 필요없으셨을 것이다. 도량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

진정 참회해야 한다. 불교가 우리의 정신을 리드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한 종교'로 격하된 현실을 아프게 인정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전망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불교는 미래의 자산이다. 그것을 믿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해법은 언제나 근본정신에 있다.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며, 경건하게 계율과 의식(儀式)을 가다듬는 가장 '기초적'인 일에 매진하도록 하자. 초발심, 그게 다름아닌 열반이다. 그래서 출가절과 열반절이 같이 있는 것이다. 4월 1일은 열반절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회망과 평화의 만남

조계종 中信會 운영 '공백'

13일 회장선출 무산…선거 3개월 연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회장없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것으로 보여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계속된 업무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3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당초 계획한 신임회장 선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결정하기로 한 회장 및 임원진의 선출은 하루 전 총무원과의 합의로 정관에 의거해 3개월안에 선거관리위원회(9인)를 구성, 선거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신회는 회장 임기만료로 15일부터 사무국 선임자인 교화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장 선출이 연기된데 대해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김한곤 직무대행의 소명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이 총무원측을 비난해 총무원과 중앙신도회가 다시금 갈등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한곤 직무대행은 "고산스님이 쌍계사 신도인 대도건설 백창기회장을 회장후보로 천거한 것이 대의원총회 며칠 전이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설득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회장단일화를 시도해 중앙신도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택스님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회장 천거가 늦어진 것은 종단사태로 인해 겨를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총무원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회장을 뽑도록 강요하지 않는등 과거보다는 다소 신도회를 존중하고 있으며 3개월후 재선거도 이같은 인식의 반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총무원측 역시 신도회의 자립성 확보차원에서 진일보한 총회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운영회의를 통해 선거 체제로 들어갈 신도회 신임회장으로는 김한곤 前회장직무대행이나 고산스님이 추천한 백창기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前대행은 총무원과의 갈등이 노출된 점, 백창기씨는 신도회 활동이 전무한데다 지명도가 낮은 점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물색될 것이란 추측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고종은 대종사 및 종사 법계 품서식을 12일 봉행했다.

태고종 원로 13명 대종사 추대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사상 처음으로 대종사 및 종사 법계 품서(稟敍)식을 12일 서울 성북구 태고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번 품서식은 지난 1월 치러진 제7차 법계고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법계고시위원회는 9일 대종사 13명, 종사 34명, 종덕 71명, 대덕 58명, 중덕 48명, 대선 27명 등 모두 25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덕암 태고종 종정이 증명법사로 참석한 이번 품서식에는 장벽응스님 등 태고종 원로 13명이 대종사 법계를, 김대운스님 등 34명이 종사 법계를 받았다.

대종사로 추대된 원로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벽응(91, 인간문화재) 박송암(85, 인간문화재) 차몽월(81, 극락정사) 박금봉(80, 백련사 조실) 김춘명(79, 원각사) 임용호(83, 대성사) 이만봉(90, 인간문화재) 신벽산(78, 다천사) 이운제(78, 전 총무원장) 유해운(86, 용운사) 김벽암(77, 도봉사) 김혜경(81, 봉원사) 변월명(78, 극락사)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징계대상자 옹호 묵과 않겠다"

조계종 해종행위특위

조계종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장 범종스님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일부 소임자들이 개별적 친소관계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징계대상자를 원칙없이 옹호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종특위는 1월 27일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종단사태와 관련해 초심호계원에 60명의 징계대상자를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초심호계원에서 11명이 멸빈, 14명이 제적, 35명이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해종특위는 이후로도 40여명을 징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종행위 조사대상자가 애초 예상했던 3백여명보다 적은 1백명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원로의원 연령 80세로 제한

조계종 종헌종법 특위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열리는 139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할 원로회의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 주지회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 법의 개정안은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심의해 통과된다.

원로회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로의원 연령을 65 이상 80세 이하로 제한(현행은 65세 이상)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따르면 현 원로의원 중 운경, 비룡, 응답, 도천, 석주스님이 원로의원 자격을 상실케 된다. 정성운 기자

국내 最古 추정 마애삼존불 발견

군위~선산간 국도변 6세기 조성…한국조각사 연구 획기적 자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삼존불은 조류사진작가 김종호(46)씨가 군위군 소보면 군위-선산간 국도변 바위에서 발견했다. 18일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불교미술학)교수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6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삼존불로 밝혀졌다.

삼존불은 10m 높이의 암벽 윗부분의 바위가 2m 정도 튀어나와 지붕을 형성, 천연의 감실 또는 석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 본존불은 높이 2m, 두 협시불은 높이 1.7m로 연꽃무늬의 대좌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은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고, 두 협시불의 경우 왼손은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얼굴 부분은 양각을 했고 몸체는 깊게 새긴 선각으로 삼존불 모두 머리부분에 원형의 두광(頭光)이 표현돼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국보 199호), 태안 마애불(보물 432호)등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던 마애불보다 조성시기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충식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마애삼존불의 조각양식은 한국불교조각사와 불교전파 경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며 "암질이 좋지 않아 조성시기를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6세기를 전후해 조성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계종, 미갱신 포교사 복권

4월부터 2천여명 대상 전문화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단은 95년 이후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포교사 자격 미갱신 및 갱신탈락자에 대한 복권을 실시한다. 작년 말까지 포교원에 등록된 포교사 수는 모두 2천3백여명이며, 이와 비슷한 숫자인 2천여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복권될 경우 포교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사단은 4월부터 4개분야로 나눠 포교 전문화 교육을 실시, 교육에 참가하고 활동분야별 팀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포교사 자격 복권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갱신상의 문제 이외의 사항으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미갱신 포교사에 대한 자격 복권은 형식적 자격관리를 탈피, 활동내역 중심의 포교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중인 포교사 제도개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연등축제 TV방영 요청

조계종, 방송 3사와 실무협의 진행키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7일 한국방송공사를 방문, 박권상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등축제를 녹화해 부처님 오신날에 방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15일에는 MBC 노성대사장, 18일에는 SBS 윤세영 회장을 잇따라 만나 연등축제 녹화방영을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연등축제를 녹화 방영한다면 연등축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박사장과 MBC 노사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양측 실무자들이 논의토록 하자"고 응답해 실무협의에 따라 방영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중국 아미타 성지순례단 모집

아미타불 성지로 유명한 중국의 정토종 발원지 여산 동림사, 소주 영암사 등을 순례, 이땅에 정토세계를 실현하는 원력을 세우고자 기묘년 새해 중국 아미타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 순 례 : 서울-상해-여산 동림사(정토종 발상지), 대림사(4조 도신)-구강 서산사, 동산사(5조 홍인)-황매현-남창 개원사(마조)-상해-소주 영암산사(정토종, 3대)-상해-서울
- 출발일정 : 99년 5월 2일 ~ 5월 7일(5박6일)
- 동 참 금 : 103만원(미리 접수바람)

아미타불을 부르면 밝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란?

⊙ 제 1 차 : 신라 758년(경덕왕 17년)에 발징화상이 건봉사에서 최초로 염불만일회 개최
⊙ 제 2 차 : 1802년(순조2년)에 건봉사 전통이어 결성
⊙ 제 3 차 : 1851년에 벽오유총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4 차 : 1881년에 만화관준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5 차 : 1906년에 금암의훈 스님을 회주로 결성

제 6 차 전국 염불 만일회 이렇게 추진합니다.

1. 염불만일회 대발심 성지대회
   - ▶ 일 시 : 99년 8월 2일~4일(2박3일)
   - ▶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 ▶ 대 상 : 사찰, 단체, 개인별 신청가능
2. 염불 만일회 신년간담회
   - ▶ 일 시 : 1999년 3월 30일 오후 3시
   - ▶ 장 소 : 송현클럽(한국일보 13층)
3. 정토학회 학술세미나
   - ▶ 일 시 : 1999년 10월 (장소 부산광역시)
   - ▶ 내 용 : 정토학자 초청 학술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 회원회비 : 가입비 1만원(매년회비 1만원)
-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아마타 무용단 모집

부처님께 춤을 공양 올릴 신심있는 단원을 모집합니다.
- ▶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동산법당)
- ▶ 지 도 : 한순옥 선생(목련훈장 수상)
- ▶ 대 상 : 초보자 환영

全國念佛萬日會

공동대표 : 김해장 스님 (건봉사 주지)
한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
김재일 법사 (동산반야회장)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 (02)732-1215, 1216, 1217 FAX :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청정교단-재가상 정립 '길찾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28일 창립

40여단체 참여…재가불자 결집 '과제'

환경 윤리회복 지역공동체 운동 전개

조계종사태로 연대했던 단체들이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재가연대)를 공식 창립하고 '청정교단만들기'에 나선다.

23일 오전1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재가연대(창립준비위원장 서돈각)는 27일 오후6시부터는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 〈본지 214호 23면 기사 참조〉

현재 재가연대에는 우리는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마음선원신도회 등 40여 단체와 김종서(前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민병천(서경대총장) 정천구(영산대총장) 이근후(이화여대의대) 강건기(전북불교대학장)교수 등 60여명의 창립준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계에서는 모처럼 재가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재가연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가연대가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길찾기'를 담보해내는 것만이 재가불자의 역량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창립의 단초는 조계종 사태로 인해 아프게 출발했지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지한 성찰과 모색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거취에 따라 재가연대의 성과와 입지는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단과의 긴밀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방침을 밀고 나아가는 추진성을 얼마만큼 견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가연대의 창립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청정교단 만들기. '사찰재정 및 운영의 투명화' '중앙종무기관 운용공개'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구성'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원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급승용차 안타기' '도박·은처승 퇴출운동' '신도법 개정' 등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바람직한 재가상 만들기. 지계실천 캠페인, 자자포살, 발우공양 등 생활문화캠페인, 수행결사 프로그램 만들기, 권리찾기 책임다하기 등의 재가불자 신행혁신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것이다. 재가자들이 단체를 민주적이고 투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여 '청정교단'의 내적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번째는 폭력반대운동. 조계종 사태에서 보여줬듯 힘에 의한 갈등의 해결방식을 반대하고 앞으로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가연대는 폭력을 지계차원에서 대중적 참회운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가연대는 참여정신에 입각한 대중공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정과 자립의 역량을 갖춘 '청정교단'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이다.

또 불교적 가르침과 신념에 일치하는 시민사회의 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선도하는 재가불자상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인 환경운동, 평화운동, 윤리회복운동,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참여회향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KCRP 29일 '세기말 종교현상' 세미나

세기말 편승 '종말론' 확산

종교계 공동 대처방안 모색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한 불안증후군, 환경 및 생태계 오염, Y2K문제(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 등 불길한 징조들이 종말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92년 우리사회를 불안케 했던 '휴거'에 이어 당시 휴거론을 더욱 정교화한 '급박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등 교포사회에까지 조직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종교학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가 29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기말적 종교 현상-어떻게 볼 것이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사회적 병리현상인 종말론을 비롯 반사회적 종교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 치유책을 찾는다는 취지이다. 이같은 주제에 대해 각 종교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는 '종교적 광신과 시민사회 윤리'(길희성 서강대교수·종교학) '폐쇄적 신앙집단의 사회적 분석'(김종서 서울대교수·종교학) '시한부 종말론의 사회심리학적 조명'(이훈구 연세대교수·심리학) '시한부 종말론의 신학적 조명'(김명용 장신대교수·신학)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종서교수는 미리 배포한 요약문을 통해 "92년 휴거를 주장했던 시한부종말론자들이 당시에는 신앙부족으로 휴거가 불발됐으며 이제 '진짜 종말과 휴거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급박종말론'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 폐쇄적 사교(邪敎)집단은 정교화된 전도방식으로 소수정예화한 '틈새종교'의 현상을 띤다"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종말론은 특정종교의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만연된 현상이며,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현상"이라며 종교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훈구교수는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는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 종말론지도자들은 자기 사업목적으로 종말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들 종말론지도자는 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자들을 도박판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어 집단자살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입시지옥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많고 지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올해 종말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며 학교·직장·사회단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길희성교수는 "세기말적인 종교현상을 치유키 위해서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타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시민사회윤리의 정립, 효(孝) 인(仁) 예(禮) 등 전통가치관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관계자와 종교학자들은 건전한 종교환경 조성을 위한 참된 종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CRP는 토론내용을 토대로 종교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천태종 운덕스님 종단협 이사회 참석

고산스님 덕담건네자 웃음으로 화답

봉축행사-불교도 금강산 순례 등 논의

종단협 4년만에 화합 기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고산스님 체제를 맞으며 지난 4년여 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씻어내고 화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열린 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이사회에 운덕스님(종단협부회장, 천태종총무원장)이 참석해 고산스님과 자리를 나란히 했다. 오랜 갈등이 풀리는 날이었다. 운덕스님의 종단협 공식석상 참석은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 해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참석 이후 처음이다.

고산스님은 회장 인사말에서 "봄에 새싹이 돋듯이 종단협도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지만 그 이상의 뜻을 담은 인사였다. 그동안 종단협이 겪어온 갈등을 씻어내자는 당부였으며, 바로 왼쪽에 앉은 운덕스님을 반기는 인사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산스님은 운덕스님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고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태종이 조계종보다 장엄물을 더 잘 만든다"며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담금 부분에서도 "관문사에 가보니 대단하더라. 원장스님에게 맡기겠다"며 책정된 분담금 5백만원 이상의 부담을 자연스럽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운덕스님은 웃음으로만 화답했으나 결코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에 앞서 고산스님은 13일 운덕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를 방문했다. 두 원장의 만남은 그동안 종단협 운영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중의 만남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고산스님의 방문은 관문사 견학이 목적이었지만, 종단협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고산스님이 "서로 화합해서 종단협의회를 잘 이끌자"고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해 운덕스님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종단협은 94년 월주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정관을 개정해 조계종총무원 부장스님들을 이사로 편입시키자, 몇 종단이 '조계종 독주'라는 불만을 나타내며 화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20여개 종단이 '종단진흥회'라는 별도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97년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진에는 10여개 종단이 불참하는 등 갈등양상을 빚었다.

고산스님은 종단협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즉각 수습에 나섰다. 1월 12일 열린 종단협 신년교례회에서 고산스님은 "소문에 조계종에 불만이 있어 종단협에서 나간 종단이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직접어법으로 불협화음을 해소하자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1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금강산 순례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을 논의했다. 종단협의회는 6월 2일에서 5일까지 불교계 각 종단 지도급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에서 선상 프로그램으로 음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조선불교도연맹과 현대측과 협의해 신계사터에서 약식법회를 봉행하는 것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는 예년처럼 종단협 주최, 조계종 주관으로 연등축제, 봉축법요식, 시청 앞 점등식 등을 주요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제등행진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등과 각종 장엄물을 다양화해 볼거리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보생명과의 불교인단체보장보험 계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7월 예술의전당 KBS 등과 함께 '간다라 불교미술대전'을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이날 사무총장 남정스님(총화종 총무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단협 이사회에 나란히 자리한 고산스님(오른쪽)과 운덕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맨 왼쪽은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 드립니다.

경

학교법인승가학원 제4대 이사장 취임 및
중앙승가대학교 제2대 총장 취임법회

축

이사장 오 고 산 큰스님
총 장 박 현 성 스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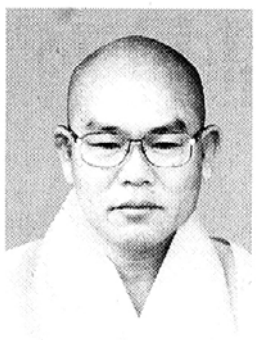
일 시 : 불기 2543('99)년 3월 24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취임준비위원회

연락처 : ☎(02)926-4377, 925-5508~9 FAX (02)921-9721, 928-4302

"지계정신 살아야 청정승가 구현"

'사분계본' 강의 영산율원장 철우스님



"계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지난해 종단분규는 승가의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과계사 영산율원에서 비구스님들을 대상으로 〈사분계본〉을 강의하는 철우스님(조계종 영산율원장)은 승가의 수행은 지계의 바탕위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사분율의〉는 경·율·논장 가운데 승려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기록한 60권 1질의 율전으로 비구 2백50계와 비구니 3백48계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그중 〈사분계본〉은 수계를 받을 때 익히게 되는 비구 2백50계의 명칭과 의미를 간추린 것.

94년 곡성 태안사에서 해인율원장 종진스님에 의해 첫 강의가 이뤄진 후 5년만인 이번에 〈사분계본〉 강의가 재개된 것은 종단에서 계율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했기 때문.

수강을 신청한 스님은 20여명. 지계정신이 살아있어야 청정승가가 이룩된다고 강조하는 철우스님은 "내년부터는 교육원의 협조를 구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율장의 진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군포교 전불자 관심가져야"

22년 군종법사 회향 강남석 前 군승단장



"군종교구본산제의 확립과 군법당 건립지원, 전역 군종법사들의 계속활동 보장 등 군포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는 28일 충남 논산 계룡대에서 전역식을 갖는 강남석 前 군승단장(49·대령·해군 군종감)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군포교에 대한 종단 및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애정을 간곡히 당부했다.

교회에서 푸짐한 위문품을 줄 때 초코파이 조차 선물하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는 강법사는 15만명에 달하는 장병 불자들이 전역한 후에도 일요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7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이후 77년 함대 항공단 군종과장을 시작으로 22년간 군승법사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 온 강법사는 95~97년 제20·21대 군승단장을 역임하고 97년부터 해군 군종감을 끝으로 외롭지만 보람찼던 군포교 사업을 회향했다. 현재 원광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중인 강법사는 수료후 포교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에 전념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은 99년 포교사 정기연수(서울·경기지역)를 1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연수회에는 포교원장 정련, 포교국장 법경 스님과 포교사 4백여명이 참석했으며 포교사단의 회고와 전망 및 대안(백남석·하영태)에 대한 제의와 포교사제도 개선방침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설명(임동현 포교사단사무국장) 등이 있었다.



정토회 깨달음강좌 '100일 법문' 입재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14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을 시작했다. 이번 강좌에서 '부처님 정법이 이 땅으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첫 법문에 나선 도문스님(대성사 주지)은 "붉제자들은 수행에 정진해 혼탁해진 세계를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종 총무원장 학봉스님 진산식

조동종 제5대 총무원장 학봉스님(원효사 주지) 취임법회가 12일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과 종정, 지명 승정원장, 송봉 중앙감찰원장 등 조동종 간부스님과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및 신도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빛은행 부산불자회 창립법회

상업은행불자회와 한일은행불자회가 합병해 창립된 한빛은행부산불자회는 14일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양정청소년회관 관장 범산스님을 비롯 1백여명이 함께 했다. 정관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력과 정진을 통해 마음의 무량한 빛인 무량광 '한빛'을 성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 차 로

역경사업비 4천만원 전달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에게 한글대장경 역경사업 지원비 4천만원을 전달했다.

진부포교원 유치원 개원



현해 월정사 주지는 진부포교원 및 부설 연꽃유치원·연꽃어린이집 개원법회를 28일 유치원 대강당에서 거행한다.

나라와 국민위한 기원법회

동광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도선사 주지) 스님은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경찰청 1층 기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및 청장취임축하 기념법회'를 거행한다.

보현도량 제3대 회장에



법성 前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은 지난 9일 보현도량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中 선종사찰 한달간 답사

자명스님(시인)은 최근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26일부터 4월26일까지 홍인·혜능스님 수행처와 선종사찰을 답사한다.

뉴욕 전등사서 합동 천도재



일운 영산재 준보유자 스님은 19~22일 뉴욕 전등사에서 합동천도재를 집전했다.

한국설법연수원 개원



김철회 前 태고종 신도회장은 실기훈련을 위주로 하는 '한국 설법연수원'을 서울 교남동에 개원하고 4월1일부터 2개월과정의 강좌를 연다.

대만 광덕사 학술회의 참석



홍윤식 동국대 교수(역사교육)는 15일부터 17일까지 대만 고웅현 광덕사에서 정각불교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문화예술인법회 회장유임



김흥우 한국문화예술인법회 회장은 최근 열린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유임됐다. 김회장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필동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동국대 국문과 겸임 교수에



이상문〈사진 위〉·이원규 소설가는 15일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위촉됐다. 이상문씨는 장편소설 〈황색인〉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이원규씨는 〈황해〉 등으로 분단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정책대안 개발 재정자립 역점"



전불련의장 배영진씨

"경계와 감시부분을 철저히 하여 불교이미지 실추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17일 전국불교운동연합총회에서 신임의장에 선출된 배영진씨(前 대한불교청년회장)는 재가신도로는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청년활동을 해오며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배의장은 "창립후 전불련이 견지해 왔던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관 단체와 연대사업도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불교계가 사회적인 관심과 해결에 있어서 미진한 면이 많았다며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 불교세를 확장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배의장은 그동안 재야불교단체들의 취약점인 재정자립을 이루고 활동의 자주성도 임기중에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대 인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5일 부속기관장 및 연구원장급에 대한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불교문화연구원장 목정배 교수〈사진〉 △자연과학연구원장 김혜중 교수 △산업기술연구원장 백수현 교수 △한국문학연구소장 임기중 교수 △교육연구원장 유시규 교수 △과학관장 노완섭 교수 △보건소장 김경호 교수 △실험농장장 김경제 교수 △비구니수행원 사감 혜원스님 △컴퓨터교육원장 조암 교수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 정진환 교수

불자가수 김안수

새앨범 '길림성 편지' 내



불자가수 김안수씨가 새 앨범 '길림성 편지'를 내고 본격적인 가수활동에 나섰다. 할머니 가수로 널리 알려진 김안수씨의 이번 앨범에는 남국인씨가 작곡한 노래 10곡이 들어있다. 양로원 등 불우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위문공연 봉사를 하고 있는 김씨는 사찰이나 노인시설에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고 밝힌다. (02)476-3233

이경숙 기자



본사, 용성후원회에 감사패 전달

본사 김광삼사장은 18일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대각사 초하루 정기법회에서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장 한명옥씨(불명·수승행)에게 최정희 편집국장을 통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감사패는 본지가 지난 '98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지리산에서 금강산까지 백두대간의 줄기를 현장취재하며 그속에 깃든 불교문화를 조명한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연중기획을 적극 후원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pia.com)

"생명 소중함 일깨웠으면…"

묘목 보시 정승연 다례원장



"나무묘목나누기는 온국토를 푸르게 장엄하는 생명방생운동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무료로 나무묘목 나눠주기운동을 펼치는 다례원 정승연원장은 "나무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자는 공동체적 서원을 담고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생명사상을 전파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정 원장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생명의 싹인 묘목나눠주기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제 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밀교종단으로서 불교관련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신설하여 논문을 공모코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주제 : ①불교 일반 (불교 교학, 불교사, 불교관련 응용분야)
②밀교 일반(밀교 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 종학 등)
▷응모자격 : 제한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전형일정 : ① 접수마감 : 4월 24일(우편접수 만)
② 1차 합격자 발표 : 5월 1일
③ 논문계획서 발표회 : 5월 10일
④ 최종 논문 작성자 6명 선정 : 5월 중순
▷당선작 및 상금 : ① 불교·밀교 분야 각 우수작 1편, 가작 2편
② 우수작 - 상금 200만원, 가작 - 상금 100만원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purusa(천리안) / purusa@chollian.net
전화 : 02)913-0133~4 / 팩스 :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국민에 질높은 봉사" 다짐

현장탐방 정부 과천청사 '정불회' 철야법회

30여명 염불·참선정진 오계 받고 신심 재무장

13일 저녁 8시 봉선사.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경내의 경건함을 더한다. 두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대신 법요집을 들고 예불문을 열심히 읽어내려 가는 불자들.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불회(회장 강평수 수산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회원 30여명이 봉선사에서 1박2일동안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철야정진은 회원들 스스로 지난해 IMF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정불회 활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정비, 각자의 신심을 증진하자는데 의기투합해 이뤄졌다. ○ 자리에는 정년퇴임과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계속 정불회 활동을 하겠다는 몇몇 회원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중생의 속성인 법뇌를 평정해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도법사 김정호 평생불자회 회장도 회원들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재차 수행의 본질을 강조했다.



◇월운스님에게 수계법문을 들은후 5계를 받고 있는 정불회 불자들.

철야정진에 앞서 회원들은 김정호 지도법사로부터 불교기초교리와 참선법, 염불법, 독경법, 사찰내 예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며 '초자불자 딱지'를 떼 나갔다. 바로 이어 정불회 회원들은 날이 밝아 올 때까지 각자 나름대로 염불, 독경, 참선을 하거나 절을 하면서 용맹정진했다.

다음날 정불회 회원들은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으로부터 5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번뇌는 한량없는 업(業)을 만들어 세세생생 윤회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부처님 계품을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불회 총무 장재군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은 "정성을 들여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불심으로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투철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심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세무사·국세청불자회 합동법회



◇세무사불자들의 모임 세무사·국세청 불자회가 17일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갖고 인연을 나눴다.

세무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은선)와 국세청보리회(회장 김정부)는 17일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같은 직종에 일하는 불자들이 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교류를 증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분에 걸친 독경,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신임회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참석한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며 "업무수행을 할때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항상 마음 속 '부처자리'를 염두해 지혜롭게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불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보리회는 앞으로 두달에 한번 합동법회를 갖고 상·하반기 한차례씩 성지순례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모임에선

금강메아리 월악산 시산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21일 월악산 정상에서 시산제(始山祭)를 올리고 월례산행을 실시 했다. 이날 산행에 참여한 40여명의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음식들을 차려 시산제를 올리고 올 한해 '무사 등반'을 기원했다.

교사불자련 전경에 치료비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3일 지난해 조계종 사태 당시 부상당한 전경 전병주 경장이 입원해 있는 경찰병원을 찾아 치료비 2백28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서울대병원에서 팔목과 대퇴부 뼈가 으스러져 10여개의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은 전경장이 정경장 아버지마저 팔목 골절상을 입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수술비 7백여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1월부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국립의료원 법우회 무료급식

국립의료원법우회(회장 황영희)는 28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무의탁노인 및 실직자들에게 무료 급식한다. 5~7명의 법우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급식에서는 3백여명의 무의탁노인 및 실직자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법우회는 매월 1일과 15일 법회를 봉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세번 이상 경책은 군더더기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1)

〈지난 호에 이어〉

큰 대자로 누우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만사휴의다.

고행의 극한 상황들을 연상해본다.

'설산에서 6년간' 눈이 떠지고 허리가 펴진다. 얼마가 지나면 또 눈이 감겨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골고다의 십자가' 눈이 떠지고 허리가 펴진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면 다시 눈이 감겨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뒷방에서 잠자는 스님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번쩍 뜨인다. 수마도 고통도 물러갔다. 화두가 앞장 서며 빨리 가잔다. 길은 멀고 험하지만 쉬지 않고 가면 된다면서.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다.

"분명히 열반은 있고 또 열반에 가는 길도 있고 또 그것을 교설하는 나도 있건만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열반에 이르는 이도 있고 못 이르는 이도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如來)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불교의 인간적임을 그리고 인간의 자업자득을 교시하신 극치다.

중생이 고뇌에서 해방되는 것은 엉뚱한 기연 때문이다. 잡다하고 평범해서 무심히 대하던 제 현상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기연이 되어 한 인간을 해탈 시켜준다. 불타는 효성(曉星)에 기연하여 대각에 이르렀고 원효대사는 촉루에 서산대사는 계명(鷄鳴)에 기연하여 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을 해탈시키는 그 기연이 기적처럼 오는 것은 아니다.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끝내 좌절하지 않고 고뇌할 때 비로소 기연을 체득하여 해탈하는 것이다. 극악한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은 틀림없는 평안이다. 왜냐하면 극악한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은 두번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죽음은 결코 두번 오지 않는다.

나는 뒷방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로 인해 수마를 쫓을 수가 있었다. 평소에는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잠이 왔었는데.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다섯 스님이 또 탈락했다. 사흘을 넘긴 스님들은 끌까지 잘 버티고 견디었다.

납월(臘月: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 성도일이다. 우리도 새벽에 용맹정진을 마쳤다.

아침공양은 찰밥이다. 전대중이 배불리 먹고 산행길에 나섰다. 몸을 풀기 위해서다. 중대에 올라 보궁에 참배하고 북대를 거쳐 돌아왔다. 눈길이라 힘이 들었지만 무척이나 재미 있었다.

■ 12월 10일 심리작용

섣달이 깊어 가면서 폭설이 자주왔다. 산하는 온통 백설 일색이다.

용맹정진에서 탈락했던 스님들은 자꾸만 나태해져 갔다. 탈락했다는 심리작용의 탓인지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입승 스님으로부터 몇차례 경책도 받고 시간을 지켜달라는 주의도 받았건만 잘 지키질 못한다. 그때마다 몸이 아프다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보이면 그것으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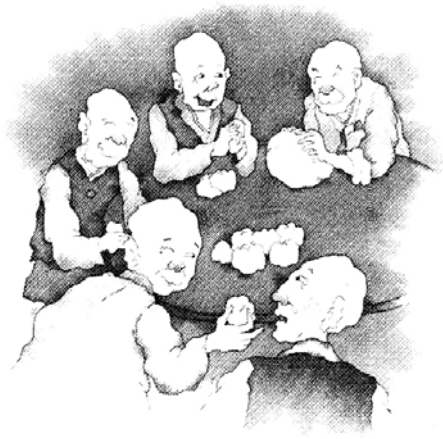
경책은 세번까지 주어지는데 그래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만이다. 세번 이상의 경책은 군더더기요, 중노릇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를 기다리다가 기회만 오면 갖은 방법으로 장난기를 발휘한다.

만두를 여자의 그것을 흉내내어 오목하게 빚는가 하면 남자의 그것을 흉내내어 기다랗게 빚기도 한다. 극히 희화적이다. 성본능이 억제된 상황하에서의 잠재의식의 발로라고나 할까. 그래서 종교적인 미술일수록 남녀의 뚜렷한 선을 투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만두속에 아무도 모르게 고추가루를 넣어 빚는가 하면 깨소금을 넣어 빚기도 하고 무우쪽을 넣어서 빚기도 했다. 드디어 만두국 공양이 시작되었다. 별식이어서 발우 가득히 받아 간사한 식성을 달래가면서 식욕이 허락하는대로 맛있게 먹는다.

드디어 장난기의 제물이 된 스님들의 입에



그림·이준석

용맹정진 탈락 세 스님 바랑지고… 극악한 절망에서 좌절 않을때 해탈

용맹정진을 무사히 넘긴 스님들은 힘을 얻어 더욱 분발하여 공부에 박차를 가했다.

뒷방에 죽치고 앉았던 스님 세 분이 바랑을 지고 떠나갔다. 결제기간이니 갈 곳은 뻔하다. 지면이 있는 어느 독살이 절로 갈 수 밖에. 선방은 영영 하직하는 스님들이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든 스님들이다.

■ 12월 15일 별식의 막간

만두국을 먹는 날이다. 원주스님의 총지휘로 만두 울력이 시작되었다.

숙주나물 표고버섯 김치 김을 잘게 썰어서 혼합한 만두 속이 만들어지자 몇몇 스님들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엷게 밀어주면 밥그릇 뚜껑으로 오려내어 대중 스님들이 빙 둘러 앉아 속을 넣어 만두를 빚어낸다. 여러 스님들의 솜씨라 어떤 것은 예쁘고 어떤 것은 투박하고 또 어떤 것은 속을 너무 많이 넣어 곧 터질듯 하여 불안한 것도 있다.

장난기가 많은 스님들은 언제나 기회가 오서 비명과 탄성이 폭발한다.

"아이고 매워." 고추가루를 씹은 스님의 탄성이다. "아이고 짜." 소금만두를 씹은 스님의 비명이다.

한쪽에서는 비명과 탄성인데 한쪽에서는 키득거리며 우스워 죽겠단다. 그러다가 웃는 쪽에도 예의 장난 만두가 씹혔는지 상이 금방 우거지상으로 변한다.

하필이면 선방의 호랑이 격인 입승스님의 그릇에 고추가루 만두가 들어갔는지 후후거리면서 국물을 훌훌 마시고 입맛을 쩍쩍 다신다. 그러나 비명은 없다. 역시 선방의 백전노장답다.

스님들의 공양태도는 극히 조용하다. 그래서 엄숙하기까지 하다. 입안에 식물(食物)이 들어가면 그 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씹는다. 훌훌거리거나 쩝쩝거리지 않고 우물우물 씹어서 삼킨다. 그렇다고 잘 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씹되 조용히 씹고 숟가락 젓가락 소리가 없어야 하고 발우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 〈계속〉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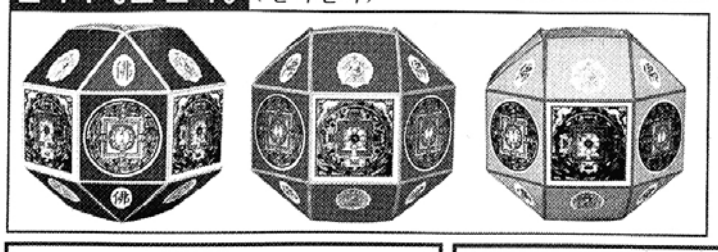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봉축 장엄 팔각등 (원색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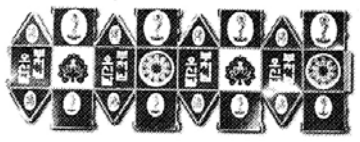


만다라 장엄 팔각등 (원색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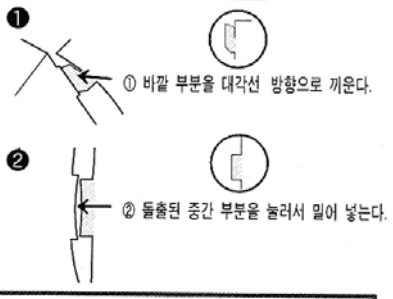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 제098634호



연등 납품 및 보관시



연등 조립방법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테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납품 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 판매가 : 2,300원 ■ 촛대, 등걸이 포함
※ 2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판매가의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당2070원)
※ 5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판매가의 20%를 할인해 드리며, 사찰명을 연등 자체에 넣어드립니다. (등당1840원)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이다.

1. 평상시 사찰 장엄용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2.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3.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종이가 아닌 PP(특수 광고물 소재)로 제작되어 물리적인 힘에도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4.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청 문양을 첨가한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있습니다.

6.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간단히 조립사용할수있게 제작되었으며 사용후 펼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별도의 보관 창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깨끗한 환경으로 축복합시다! 집안과 내집 앞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합시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재세시에 흙탕길을 긴 머리카락으로 깔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붓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출가절에 듣는 큰스님 경책

25일은 부처님 출가일이다. 2천5백여년전 석가족의 왕자였던 싯달타 태자는 명예와 권세와 인연을 모두 떨쳐버리고 진리를 향한, 험난한 출가의 길로 향했다. 오늘날 출가 수행자 되기를 서원한 이들은 어떠한 다짐과 각오로 삭발염의와 마주하는가. 용수보살은 〈지도론〉에서 몸과 마음이 출가한 사람, 마음은 출가하고 몸은 출가 못한 사람, 몸과 마음이 출가하지 못한 사람, 몸은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못한 사람 등 네가지의 출가자가 있다고 했다. 어수선했던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 맞는 부처님 출가일, 깨달음을 향한 청정수행의 가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큰스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책을 듣는다. 〈편집자 주〉

"아집 버리고 화합 정진"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청정한 승가의 기능은 오로지 출가의 행(行)에 근원을 두는 것이다. 출가란 한마디로 '버리고 떠남'이다. 비리와 모순과 갈등을 버리고 본질적인 세계로 지향하는 행위이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이해와 사랑으로써 화합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출가행(出家行)이다. 출가행은 또한 대승보살정신으로 이어진다. 나 개인 보다는 나와 관계된 수많은 이웃과 공동체와 상관관계를 맺는 것이다.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세속적인 명리(名利)를 위해서인가. 재물을 탐해서인가. 출가의 목적이 명리도, 재물도, 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구해서가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출가한 근본 뜻은 오로지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이어받아 내 자신을 구제하고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출가자들은 크게 버려야 한다. 크게 얻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베풀어야 한다.

"종교적 인격 · 덕성 갖춰라"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불교에서 '복전(福田)'이란 출가한 스님을 지칭한다. 출가자가 중생의 참다운 복전이 되려면 출가자다운 덕성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종교인이 남의 존경과 보시를 받는 것은 결코 그 신분 때문이 아니다. 무술이나 병법에 능하지 않으면 장군이 아니듯이, 종교적 인격과 덕성을 닦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가 열반절에 즈음해 과연 내가 이런 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모든 종교인은 존경을 받는 만큼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자격없이 받는 존경은 나중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돼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정진하며 내 마음과 몸부터 조복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방편 끄달리면 허송세월"

덕암스님〈태고종 종정〉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스님이 되고자 갓 행자로 입문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았다고 회고하는 이들이 많다. 초발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출가의 뜻을 늘 간직한다면 한시도 방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불교가 시끄럽고 제 모습을 잃어간다는 얘기가 많은 것도 스님들이 공부를 안해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이 흐려진 탓이다. 성불하고자 출가한 스님들이 부처님 닮고자 하는 공부말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경전을 다 안다하더라도 수행력이 없으면 중생구제를 못한다. 방편에 끄달려 살다보면 허송세월만 하게된다.

"왜 출가했는지 되새겨야"

성수스님〈조계종 원로회의의원〉



사람으로 태어나 출가의 인연을 맺기란 힘든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귀한 절차가 바로 출가다. 스님이 되려는 이들은 부처님 출가일에 출가를 했으면 한다. 아무날에나 출가를 하니까 중도 못되고, 부처도 못되는 것이다. 출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뜻을 가지고 하는 출가, 포부가 있는 출가, 중이 되는 목적이 분명한 출가를 해야한다. 3가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출가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출가를 하기위해 나라일 간돌본 역적죄, 부모말 안들은 불효죄, 부인에 대한 배신죄, 자식을 버린죄 등 네가지 죄를 지었다. 이런 큰 죄를 짓고도 3천년간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제대로 알고나서 중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도 해야 한다. 왜 출가를 했는지 근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일이야말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수행자의 첫 조건은 지계"

법홍스님〈원효종 종정〉



출가자는 득도할 때 부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계를 받는다. 마땅히 이 계를 받으며 어김없이 행하겠노라고 부처님께 굳게 맹세한다. 다음은 처음 마음을 배우고(초발심), 마음을 보고자 닦는 글을 익히고(자경문), 자기를 찾는 글을 배우며(발심수행장) 스님이 되어가는 수행에 정진한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일이다. 수행자가 계를 지키지 못하고 해이해지면 평생을 닦는다 해도 도를 구할 수 없다. 애써 뜻을 세우고 출가한 본의가 아무런 가치 발휘를 하지 못한 채 오욕의 고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부처님 뒤를 따르겠다고 서원한 불자라면 옛 조사들의 유훈을 받들어 깊이 반성해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닦아 무명악도의 고해를 벗어나도록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중생제도 출가자의 의무"

광우스님〈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발심공덕은 참으로 수승한 것이다.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룬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출가자가 대단한 입지발원으로 입산을 한다. 모든 인연을 끊고 발심출가했는데 그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입지발원이 흐려지고 게으르게 된다. 나 자신도 방일하지 않기 위해 늘 뒤돌아보면서 입지발원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한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출가자의 도리가 아니다.

출가의 목적은 자기완성과 함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있다. 이것은 바로 출가자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은 열심히 수행함으로써만이 행할 수 있는 부처님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촌음을 아껴 수행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오직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또 정진해야만 한다. 출가자의 본분이, 의무가 이럴진대 어찌 한 눈을 팔 수 있겠는가.

조계종 年 4백명 입산
천태종 행자과정 3년

각종단 교육강화…고학력 추세

부처님이 출가하신후 2천5백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싯달타 태자의 뒤를 이어 부처님이 되고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명리를 뒤로 하고 산문에 들어선다.

조계종의 경우, 90년 행자교육이 개설된 해에는 4백71명, 91년 489명 등 년평균 출가자 수는 4백여명이다. 90년 이후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에 들어선 사미·사미니는 모두 3천9백57명이다. 이들은 출가 사찰에서 최소 6개월의 행자교육을 받고, 다시 조계종 교육원이 개설한 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동안 합동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사미·사미니가 된다. 이후 4년 동안의 엄격한 기본교육과정 거쳐야 비로소 정식 승려인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강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초선원이 개설돼 있다. 산문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최소한 4년7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가 되는 것이다.

최근 행자교육 입방자를 분석한 결과 출가자의 고학력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자교육원 1기(87년)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25%였다. 이에 비해 98년 가을에 입방한 15기의 경우는 30명, 이번 24일부터 직지사에서 시작하는 16기는 39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출가와 학력의 상관관계는 크지않다. 세속을 떠나는 마당에 학력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러나 회향의 마당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속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속 학력은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은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야 입산을 받아들인다.

고학력 추세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것이며, 발심출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세속의 알음알이라는 필터로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깨뜨리는 일은 기존의 스님과 교육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스님 수는 모두 1만1천9백90명(99년 3월 현재), 사미 2천1백71명, 사미니 1천8백11명, 비구 4천79명, 비구니 3천9백29명이다.

태고종은 매년 120명 정도가 출가한다. 개인적으로 종단이 인정한 행자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행자수업을 받은후 선암사에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서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 계를 준다. 현재 태고종 스님 수는 6천여명으로 이중 비구니스님은 7백명 정도다.

천태종은 매년 10여명 정도가 출가한다. 이들중 비구니의 수는 60%를 점하는데 3년의 행자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승려가 된다. 천태종은 3년이라는 행자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스님이 된 후 환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천태종의 승려수는 비구 비구니를 합쳐 4백50명 정도이다.

태고종과 천태종 모두 고졸 이상이어야 출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 전체 승려 수는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경숙 ·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서산스님은 〈선가구감〉에서 출가의 위대함과 출가자의 본분을 밝혀놓았다.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출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갓 입산한 때의 마음가짐이, 불교에 입문할 때 가졌던 초발심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 출가

"마음비워 오직 법대로 살길 힘써라"

▨출가란 마음을 놀려 길이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여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 오직 법대로 살기만을 힘씁니다. 〈오분율〉

▨삭발하는 형식만으로 출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정진(大精進)을 일으켜 중생의 모든 번뇌를 제거하려 할때 출가라 한다. 〈비화경〉

▨구족계를 받는 것만으로 출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악행을 끊게 하고, 선을 닦게 하는 것을 출가라 한다. 〈대승수행보살행문제경요집〉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과 늙음과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 번뇌와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다. 〈중아함경〉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출가하여 부처님 밑에서 수행한다. 〈잡아함경〉

▨수행자가 일곱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번뇌를 없애려 하면 곧 없앨 수 있게 되느니라. 그것은 법을 알고 이치를 알며 때를 알고 자기를 알며 만족할 줄 알고 대중 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증일아함경〉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매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장경〉

▨출가해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야로 정진해 머리에 붙은 불을 구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미륵성불경〉

▨수행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일곱가지 법을 말하리니 명심하라. 비구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화순하고 위아래가 서로 받들며 선행을 쌓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로 화합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되 게으르지 않아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영화에 힘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잠을 많이 자지 말고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느리라. 세상의 음양술수를 배우지 말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느리라. 〈증일아함경〉

▨출가수행자는 여인을 마주보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말라. 만약 함께 이야기할 때는 똑바른 마음으로 '나는 출가 사문이다. 흐린 세상에 태어났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손위가 되는 이는 누님으로, 나이 적은 이는 누이동생으로, 어린 이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십이장경〉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韋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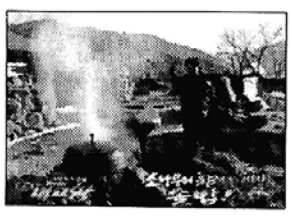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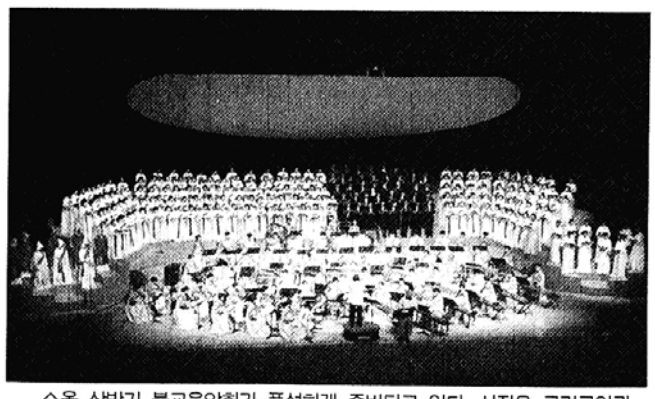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불교음악 봄무대 다채롭다

대구BBS - 신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 '부모은중송'
여불련 · 오느름 - 자선음악회, 동화사 - 봉축산사음악회



◇올 상반기 불교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4월30일 공연할 '부모은중송'의 초연(96년 5월) 장면.

진각종 '혜초' 지방공연도

각별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불교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준비되고 있는 음악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 혹은 특별한 기념의 성격을 담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불교방송이 마련하는 신춘음악회가 4월 5일 오후2시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테너 김진원 바리톤 이영구 소프라노 정동희씨등 정상급 성악가 10여명과 대구불교방송, 동화사, 제주부루나 합창단의 하모니로 새봄의 불심을 돋우는 무대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시간 분량의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을 제15회 정기연주회 악곡으로 정했다.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리는 이 음악회는 가사를 쓴 광덕스님(2월27일 입적)을 추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합창단 4백명과 남성합창단 1백여명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장엄한 하모니를 연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합창단과 관현악단은 이미 19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 공연에서는 안숙선씨의 10명이 남도민요, 김영임씨외 10명이 경기민요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도신스님과 김성녀씨도 솔로로 출연해 국악가요를 선사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도 의미 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 떨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를 주제로 하는 자선음악회다. 정신대할머니들의 고통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이 음악회는 6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한 14개 합창단의 700여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반주는 중앙관현악단이 맡게된다.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영가천도무도 공연된다.

불교국악관현단 오느름(대표 김회경)은 도신스님과 손을 잡고 결식아동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6월 중순 울산 KBS홀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전에서 두 번째 무대를 가질 계획. 이 공연에서는 도신스님의 대표곡인 '무상' '엄마' 등 불교 가곡과 국악가요를 들을 수 있으며 도신스님의 신곡도 서너곡 발표할 계획이다. 국악인 김성녀씨와 재즈피아니스트 임동창씨의 즉흥무대도 기획되고 있으며 젊은 국악인 최진숙씨가 찬조출연 한다. 아직 일정과 악곡들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분히 준비되는 연주회도 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는 5월에 봉축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월27일 올 불교음악회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교성곡 '혜초'도 두 차례쯤 더 공연된다. 진각종은 '혜초'의 지방공연을 5월과 9월쯤에 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찬불가 보급운동으로 일생 수행을 대신해 온 운문스님의 고희를 기념하는 대형무대도 올 중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강남 봉은사도 올 봄 중에 대형 음악회를 연다는 방침아래 합창단과 사찰 측이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어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불교가곡 음반낸 김경녀씨

"음성포교 좋아서 해요"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최근 불교가곡 음반 '부르고 싶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내는 등 음악을 통한 포교원력을 다부지게 실천하는 김경녀(42)씨.

그는 "불교음악은 아직 재정립하고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은 장르"라며 "천수경을 현대음악이나 전통음악을 통해 새롭게 악곡화 하고 싶다"는 또 다른 원력을 밝혔다.

김씨는 82년 청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불교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86년에는 성악가 수법스님을 도와 불교성악동호인회를 창립하는등 음악을 통한 포교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왔다. 계명대 성악과에 다니던 중 불교학생회 '중도반'에 가입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김씨는 현재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 이사와 청도 염화미소합창단 지휘자, 대구 서봉사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다. 지난 1월 성도절 법요식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불교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 온 김씨에게 공로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향훈스님 시화전 '빈마음의 노래' 31일까지 광주 카페갤러리



한 걸음 쉬어가고 두 걸음 쉬어가네
앙상한 빈가지 소리내어 울고
맑은 바람 맑은 물은
태초의 소식 전하는데
빈 몸 끌어안고 다시 길을 걷는다.

허허당 향훈스님이 '빈 마음의 노래'를 주제로 시화전을 연다. 20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카페갤러리에서 열리는 시화전은 85년에 이어 두 번째. 스님의 전시회 이력으로는 아홉 번째다.

올 1월 영천의 토굴에 화재가 발생해 작업해 둔 작품들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 버리는 '허허로운' 고통을 겪어 낸 스님의 시화는 "간결한 언어와 그림으로 전하는 화엄세계의 소식"이란 평을 듣고 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마치고 내년5월 스위스에서 열릴 초대전 준비를 위해 토굴에 칩거할 계획이다.

화제의 전시

육명심 사진전 '하늘아래 첫땅…' 26일까지 서울 덕원미술관



"신(神)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로 사진작가 육명심(66)씨는 지난 3년간 티벳 곳곳을 다니며 티벳인들이 풍겨내는 삶의 내음들을 알알이 렌즈에 담았다.

불교와 토속신앙,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을 통해 인간의 원형을 천착해 온 육씨는 "티벳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조차 생명력의 원형질은 다를 것이 없다"는 숭고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깨달음의 결정들을 가리고 가려서 전시회를 갖는다.

17일 서울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문을 연 육씨의 '하늘아래 첫 땅 티벳' 사진전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교수직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임연태 기자

간다라미술 진품 볼 기회

7월1일부터 예술의전당서 130여점 전시



◇간다라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7월과 9월에 열린다. 사진은 A.D 2~3세기에 제작된 '부처님 고행상'으로 현재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됐다. 이번 전시에 진품이 소개된다.

'부처님 고행상'을 비롯한 간다라미술의 진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미술전시 전문 기획사 파나코(대표 손학봉)는 파키스탄 정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조로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간다라불교미술대전을 연다. 지난해 4월 네오나르도 다빈치 전을 주관했던 파나코측은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불교미술품은 130여 점이며 모두 진본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의 불교미술품 진본이 우리 나라에서 대량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KBS가 공동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미술품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로 무상임대 받아 한국에 오게된다. 전시품은 모두 간다라불교미술의 진수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불상과 불전도(佛傳圖), 불두(佛頭)는 물론 공예품들도 다수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에서는 불교의 전통의식 영산재와 승무등 공연도 기획되고 있다.

종단협의회 관계자는 "간다라미술품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중한 기회"라며 "이 전시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이 증장되고 불교예술의 안목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단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3만매 이상의 관람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시립박물관에서도 전시된다.

간다라불교미술이란 서기 2세기에서 3세기를 거치며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에서 활발히 창출된 미술들을 말한다. 서양의 고전적인 전통에서 기술이나 예술적인 특성들을 받아들인 간다라 미술은 우리나라의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불교미술의 대표적 유파를 이뤘다.

임연태 기자

문화 단신

부처님 일대기 주제 전시회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올 정기회원전의 주제를 부처님 일대기로 정했다. 4월28일부터 5월4일가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전에는 30여 회원들이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각자 자신이 해석하는 부처님 일대기의 장면들을 작품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박서보씨 드로잉-페인팅展

대구에서 활동중인 서양화가 박서보씨가 '드로잉과 페인팅' 전을 18일부터 4월10일까지 대구 '시공'과 '신라' 두 미술관에서 동시에 열고 있다. 70년대부터 독자적인 묘법(描法)을 개척해 온 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 등 80여 점을 내 놓았다.

전북불교문인회 문집 발간

전북불교문인회는 13일 전북불교회관 4층 시민선방에서 문집 '다르마' 출판기념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두 번째로 묶은 문집 '다르마'에는 혜관스님(불교문학포교원장)의 초대시와 회원들의 시 수필 단편소설 등이 실렸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봉구 시인이 회장에 선출됐다.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불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선학원 대학생 은사로 득도, 1975~76 통도사/봉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장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성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화엄사 주지, 팽 합천 칠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선원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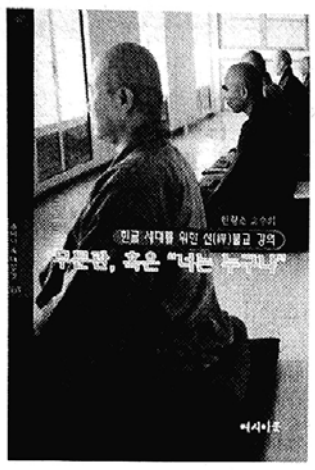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 6가지 괘 뽑는 법 : 쌀로 괘 뽑는 법 책페이지로 괘 뽑는 법 바둑돌로 괘 뽑는 법 동전으로 괘 뽑는 법 생활속의 숫자(아파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투자/주식 :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의약, 식품 주식이 좋다 시험/학문 다시 재정비하라 아음만 앞서기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기말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매매 타인, 중개인 말만 듣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업 새사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재벌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권 12,000원



禪의 세계로 성큼 다가선다

한형조교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머니속 시리즈' 선편 둘째권



'무문위법문(無門爲法門)'.

더 이상 경전의 가르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후 선사들은 경전을 등불 삼아 진리를 찾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 일러왔다. 그래서 '문은 없다(無門)'라는 한마디로 선(禪) 수행을 집약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이론적 한계와 위험을 자각한 선은 그 대안으로 공안(公案)의 체계를 수립했다.

조사들은 문자에 몰입하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선수행을 초답(初踏)하는 이들에게 언어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원효스님은 "진리는 언어를 떠나 있지만 또한 의존하고 있다"고 설파했고, 무문 혜개는 대중들을 위해 1228년 선가의 이야기 48칙을 선정, 평(評)을 달고 송(頌)을 붙어 〈무문관〉을 편찬했다.

〈무문관〉은 당시 구업(口業)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았지만 현대인들이 선에 접근하는 지침서로 각광받고 있다.

현대는 갈수록 선불교시대로 재정립되고 있다. '선 무차대회' '4박5일 단기출가' '주말선수련회' 등 각종 선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선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문관〉 해설서가 나왔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의 대장경 시리즈' 禪편의 두번째 권인 한글 세대를 위한 선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오랫동안 선가에만 전해 오는 조사들의 선문답 48칙을 현대인의 성향에 맞게 풀었다. 저자는 한형조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옛 조사들의 선문답을 원문풀이가 아닌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게끔 풀이한 것이 특징. 여기에 독자들의 신심증장 및 수행과 어루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조사스님들의 선문답을 직설적으로 풀이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의 심오함과 삶의 지혜를 함께 증장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 '수행 필독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35칙 '조주의 잣나무(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설명을 보면 이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난다. '뜰앞의 잣나무는 일정한 대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선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법으로 생각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대상 너머로 건너뛰지 말고 대상에 사무쳐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 볼 것을, 1분 정도를 그럴 수 있다면 선의 비밀에 성큼 다가간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못한다. 망상이 명상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선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고 한다. "너는 누구냐?" 무문관은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無門)을 향한 선의 전형적 접근이다. 문 아닌 문을 두드림으로써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책에는 선에 익숙치 않는 독자들을 위해 '불교에 있어 선이 출현하게 된 곡절'과 초조달마에서부터 대혜 종고에 이르기까지 선종법계도 등 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서술, 선의 역사와 사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형조 교수는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립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를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라면서 "두어 번 반복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선의 역사와 이념, 그리고 방법은 물론 그 한계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97년 4월2일(제121호)부터 98년 12월30일(제204호)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돼 선에 관심있는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을 펼쳐드는 독자들은 "문이 없는데 어디서 진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문이 없는 곳(無門關)에서 찾아보라".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조사들의 선문답 통해 불법의 심오함 배우고 삶의 지혜도 터득

선종법계 일목요연 정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한상진, 이하 정문연)이 상고시대 단군왕검부터 최근 작고한 최종현 前 선경회장까지 인생의 사표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인물 1만6천여명을 망라한 〈한국인물대사전〉(전2권)을 출간했다.

이 사전은 정문연이 지난 91년 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어 한국학 관련 전문사전 편찬사업의 첫 성과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 사전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스님을 비롯 교계 지도자 및 한국종교 사회에 이바지한 인물, 학자·교육자, 정치인·법조인, 사회사업가, 문화·예술인, 언론인, 독립운동가 등이 총망라돼 있다. '인물로 읽는 한국사'라는 부제로 출간된 이 사전은 스님들의 이력 정보만 수록한 인명사전과는 달리 관련 기록을 폭넓게 수록해 '독서용 사전'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어느 항목을 보든 그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맥락과 사상의 개략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인물을 통하여 불교역사는 물론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가나다 순으로 수록된 인물편과 왕실세계도, 자(字) 호(號) 시호(諡號) 일람 관직 용어 해설 등의 부록편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2천8백30쪽에 이른다. 지금까지 나온 인물사전 가운데서 가장 방대한 규모, 기존 30권 분량의 일반 백과사전에 수록된 국내인물수도 1만명 안팎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연은 이 사전에 대해 〈삼국사기〉 〈고려사〉의 열전(列傳)과 조선시대 〈국조인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맥을 이은 한국인물관계 연구서의 결정체로 대한제국 명망이후 90년만에 나온 사전다운 사전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값 19만원.

1만6천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정신문화硏 '한국인물대사전' 펴내

인물관련 역사적 사건·사상도 소개

새로나온 책



▲선과 자아=참선수행을 생활에 접목 선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둔 교양교재. 불교의 자아관, 불교의 수행, 선의 세계, 선문화 등 총 6장으로 구성. 초심자가 법회의식과 사찰예법을 익히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법회의식과 사찰예법에 대한 부록도 첨부돼 교리뿐만 아니라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동국대 출판부, 값 6천원〉



▲무아=불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화등을 들어 설명한 책. '나를 깨우치는 팔만대장경 108가지 이야기'를 부제로 한 이책은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독자들을 위해 엮었다. 저자 진현종씨는 재미난 이야기를 한편 한편 읽음으로써 법열을 느낄 수 있다면 보람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출판시대, 7천원〉



▲종교철학=종교일반의 개념, '숭고함의 종교' 등 종교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분석이 주요 내용.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종교에 관한 헤겔의 사유를 아무런 여과나 사족없이 접할 수 있다. 1821~1831년까지 10년간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행한 '종교철학' 강의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최신한 교수(한남대 철학과). 〈지식산업사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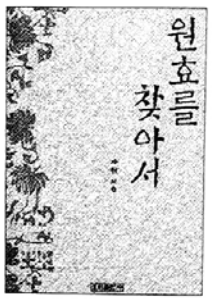
▲우리역사의 수수께끼=역사의 성과물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덕일씨와 이희근씨가 엮은 책. 운주사 천불천탑의 비밀, 전국 마을마다 미륵불이 있는 까닭은, 서동설화와 주인공 선화공주의 진실 등 34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과 헤쳐져 있다. 〈김영사 9천9백원〉



▲하리완쉬랄 뿐자=인도에서 가장 추앙받는 스승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가장 뛰어난 제자 하리완쉬랄 뿐자(1910~1997)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체험기. 어렸을 적의 신비한 체험에서부터 수행자를 찾아다닌 구도체험의 과정과, 34살 마하리쉬를 스승으로 삼으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하리완쉬랄 뿐자의 회고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대성스님(길상사) 〈자기탐구회 刊〉

원효를 찾아서 자원스님 지음

사찰 1천여곳 참배하고 쓴 수상집



문화는 정신이 동반될 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흔적인 골동품에 불과하다. 우리는 골짜기마다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민족이다. 때문에 사찰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다.

〈원효를 찾아서〉는 마산 금강정토사 주지 자원스님이 1천여곳의 사찰을 참배하고 쓴 수상집. 성지순례기라고도 할 수 있다.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처럼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폐사지, 지리산의 석주처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가난한 절 사성암을 비롯 자장·원효스님 등 옛선인들의 얼이 깃든 30여곳의 사찰을 골라 소개했다. 불교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스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배어난다. 〈우리출판사, 6천원〉

화제의 책

구도자의 나라 차차석·이거룡 지음

인도를 '종교의 대륙'이라 부른까닭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세속의 온갖 가치와 인습을 초월하여 탄생과 죽음의 무의미한 순환고리를 넛고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베다〉와 〈불경〉의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인도는 종교의 대륙이라고 불리우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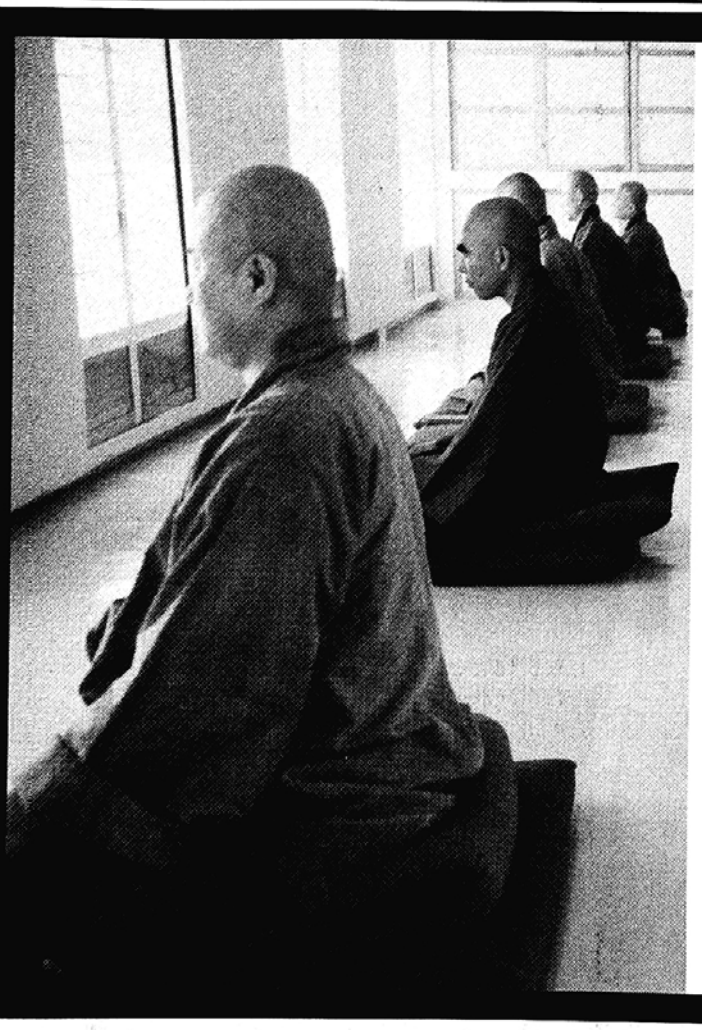
〈구도자의 나라〉 인도편은 힌두교의 성전인 '베다'와 불교의 '불경'이 웬만한 불자들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구성돼 있다. 또 불경과 베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까지 소개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군자의 나라-사서오경·도덕경〉, 〈예언자의 나라-성경·코란〉에 이어 '문명이 만든 6대 바이블' 시리즈 중 마지막 권. 세계의 주요 경전을 한데 모아 엮은 이 시리즈는 인류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진출판사,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입산	재 연	문학동네
4	원효(영원한 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5	한국불교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6	신심명증도가 강설	성 철	장 경 각
7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8	불자의 예절	일 타	효 림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성 우	민 족 사
10	카운슬링불교	후지타 기요시	시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틀다가 성에 안 차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틀고 발등을 찧으며, 몽둥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발한 거래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선의 문헌은 역설적이게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제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축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역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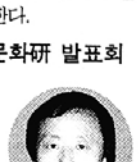
현장 국제 학술토론회



중국 현장학회와 불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현장국제학술토론회의가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협서성 동천시인민정부외사 관공실에서 열린다.

한중일의 유식학 관련 학자와 법상종 스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의에서 오형근 교수(동국대, 대승불교연구원장 · 사진)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현장법사의 불경역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현장법사의 역경과 한국유식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동아시아문화硏 발표회



동국대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회(회장 김상현 · 사진)가 제1회 발표회를 23일 동국대 명진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윤사순씨(고려대)가 '유교이념의 무용성과 가용성'을 류흔우씨(동국대)가 '초순(焦循)의 심성론'을 조남호씨(서울대)가 '라감순(羅欽順)의 철학과 그 철학에 대한 한국철학자들의 논전' 등을 발표한다.

고려대장경硏 자료집 발간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세미나 자료집을 이달말 발간한다.

자료집은 불교와 불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와 현대과학의 세분야로 나눠 공과 윤리, 연속과 불연속, 반야심경의 공, 중용과 중도, 불교와 의식의 과학, 진화의 4차원과 마음의 탐구 등 관련 논문을 묶고 있다.

동양철학회 학술발표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양승무)가 제93차 월례 학술발표회를 26일 오후5시 대우재단빌딩 3층 강연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윤사순씨(고려대)가 '유교이념의 무용성과 가용성'을 류흔우씨(동국대)가 '초순(焦循)의 심성론'을 조남호씨(서울대)가 '라감순(羅欽順)의 철학과 그 철학에 대한 한국철학자들의 논전' 등을 발표한다.

바른법 연구원

금강경 가르침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임



◇바른법연구원의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각자의 실천수행법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트레스해소법-무공해 제련술-심리치료
학자 · 예술가 등 30여명 분야별 연구

"금강경을 연구하면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활과학에 적용시켜 자연농법, 제련기술, 심성개발, 스트레스해소법, 과학적 인기도법, 식탐해탈과 잠해탈과정 등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 원당에 위치한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김원수 원장(홍익대 교수)을 중심으로 김만철(대한항공 기장), 정재영((주)동보 상무), 김기열(국방참모대학 교수), 최정윤(가톨릭의대 교수), 김득영(장안대학 교수), 안경희(서양화가), 김희종(성보고교사) 등 학계, 재계, 교육계 등 각계 30여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원장은 "요즘처럼 바른법과 그릇된 법의 구분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바른법의 전형을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찾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수행을 하는 것이 연구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른법연구원은 '탐심이라는 것도 본래 분별일 뿐 깨치고 보면 없는 것이요, 성내는 마음인 진심이나 잘난척하는 치심도 분별이어서 본래는 없다'는 근본실상의 〈금강경〉 가르침(實無衆生 得滅度者)에 근거해 현실에서 부딪치는 '불가능한 일'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바로 성내는 마음(진심:안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를 소멸하기 위해 수행의 측면에서는 진심(瞋心)을, 실생활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닦아 본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마음과 육체를 모두 윤택하게 하고, 살아 숨쉬는 불법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원당 수련원에 모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토요일 밤 10시에는 철야정진법회를, 매일 새벽 2시30분에는 자시가행 정진을 통해 잠해탈을 위한 수행도 한다.

바른법연구원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자연농법에도 적용해 한층 발전된 방향을 연구제시 할 계획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못쓰는 고철을 이용해 환경오염없이 손쉽고 간단하게 철을 구하는 제련기술도 현재 홍익대 공대대학원 연구팀과 함께 공동추진중이다. 또한 현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금강경〉 가르침에 의한 심리학적 치유방법을 카톨릭의대 정신과 연구팀과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인성교육방안, 인터넷상에서의 〈금강경〉강좌 연구, 〈금강경〉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유치원 교육의 모델제시, 식탐해결과 잠해탈 과정 연구, 과학적인 소원성취 기도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각종 문제의 해법을 과학적으로 접근 연구하는 바른법연구원의 활동은 새로운 세기 불교연구와 포교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학연구소

英브리스톨대-대만대학 사이트 개설
불교학자들 연구자료 네티즌에 공개

영국과 대만의 주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교연구소 가운데 영국의 브리스톨대학과 대만의 대만국립대학의 불학연구소는 인터넷을 즐겨 이용하는 불자네티즌들에게 불교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구다.

△Y.브리스톨대학에서 제공하는 '불학연구소(Center For Buddhist Studies)' 사이트는 인터넷 테크놀리지인 웹(Web)을 이용 지리적 여건을 초월해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불교연구를 꾀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교학술 관련 정보에는 △아비달마 · 대승불교 · 상좌부불교 △불교서적(버클리대 刊) △불교관련 회의 자료 △아시아 스님들의 수행관 등이 있다.

'아비달마 · 상좌부불교'에서는 국제인도학회에서 제공하는 원시경전 전산본과 CD 타이틀에 수록된 경전 정보를 각각 알려주고 있다. '불교서적'에서는 브리스톨대학에서 출간한 불교 관련 서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산본도 있다. 이들 서적 중에는 브리스톨 불학연구소장인 폴 윌리엄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 중국 · 일본불교에 관한 연구 성과를 수록해 놓은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제불전단체(EBTI) · 호주국립대 · 미국종교학회 등의 불교관련 사이트 총 28개와의 연결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불교학계에서 주목받는 불교학자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채식을 선호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냉국수를 비롯해 9가지 채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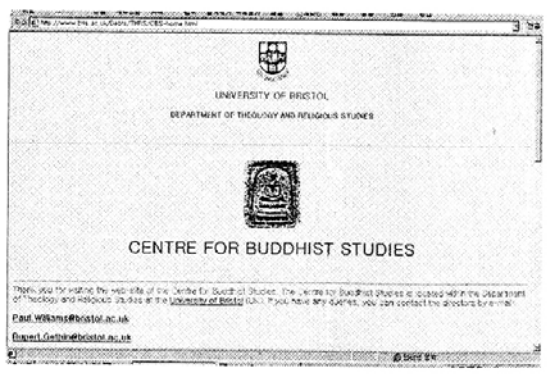
△대만국립대가 운영하는 '불학연구소' 사이트는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관련 연구와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멀티미디어 불교자료를 공개해 놓고 유럽, 일본 등지에 개설된 불학연구소와 통신망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꾀하고 있는 사이트.

최근에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불교학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도 일반 네티즌에게 공개해 주고 있어, 심도있는 불교학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정보는 △학술자료 △경전 △일반자료 등. '학술자료'에서는 참고문헌정보를 비롯해 학술잡지와 불교도서목록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경전'에는 불광대장경 외에도 산스크리트 · 팔리 · 티벳경전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일반자료'에서 제공한 고대어학습 프로그램은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스크리트어 · 팔리어 · 티벳어 등을 주기적인 과제학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만불교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브리스톨대학 불학연구소
http://www.bris.ac.uk/Depts/THRS/CBS-home.html
대만국립대학 불학연구소 http://ccbs.ntu.edu.tw/CBS-bin/



"깨침위해 학문-수행 병행해야"
김호성 교수 '인도철학 · 불교학의 방법론'

학문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일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펴낸 〈불교연구〉 16집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인도철학 · 불교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란 논문을 통해 학문과 수행의 병행방법, 비평 평가 방법,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학문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교수는 학문과 수행의 양립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깨침'에 대한 시각 전환, 분석적 독서법과 반조적 독서법 병행, 겸허한 비평 수용 등을 제시했다. 또 비평의 윤리는 법과 사람을 엄격히 구분한 뒤 법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비평해야 하는 것이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계승'과 '창조'를 함께 해야 진정한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가 주장하는 '동양적 전통적 공부방법론'의 특징은 인도철학 중의 우파니샤드와 선불교가 제시하는 공부방법론이 '학문과 수행'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해답 속에서 주로 설해졌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교육과 학문의 일치(敎學一致), 회통적 관점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불교학 방법론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불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박태섭씨는 불교학을 문헌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서양적 근대적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박씨의 주장은 우리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달리 고영섭씨는 〈불학의 보편성-원효의 삶과 생각, 불학하기의 한 모범〉 논문에서 불학은 교상판석(敎相判釋) 등과 같은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는 학문관 학문하는 자세 등의 공부방법론일뿐 구체적인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학계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암석 풍화특성 구체적 분석
'백제문화' 27집 석불보존책 실어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태안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 등을 중심으로 암석의 풍화특성을 조사해 석불보존책을 모색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충남지역 백제시대 석조문화재의 석질과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가 펴낸 〈백제문화〉 27집에 실렸다.

서산마애삼존불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석불의 풍화는 1차적으로 빗물 눈 안개 등에 의한 자연적인 풍화가 있고, 2차적으로 약해진 암석의 틈 사이로 물의 침투 증가, 풍화에 따른 암석의 강도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보전을 위해서는 물이 침투하는 틈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연구원 25돌
신행 · 학술활동 '성과'…27일 기념법회

1974년 故 이기영박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27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불교의 생활화 지성화를 목표로 활동을 벌여온 연구원은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에 구도회를 결성, 불교학 · 인문학 관련 연구 발표, 국제불교학술회의 등 학자들을 위한 사업과 일반인을 위한 불교사상강좌, 교양대학 원효학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목탁신서〉 〈불교연구〉 〈불연이기영전집〉 등 출판사업도 하고 있다.

27일 연구원 법당에서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가 함께 합니다."

가람 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장식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의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가람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 가람 동기와에서는 생산, 시공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수유리 본원정사


강화 백련사

가람동기와
☎ 02)720-5121 FAX.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B/D 202호

절을 향한 마음 우리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규격간판(도로 지주용 간판)에
허가 대행, 제작, 설치를 가람기획 이 담당하겠습니다.









가람 기획 간판의 장점
1.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임으로 수명이 길다.
2. 야광 스텐레스로 밤에 판넬 자체 발광으로 위치확인이 명확합니다.
3.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4. 가격이 저렴합니다.
5.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지지 않습니다.

가람 기획의 장점
1. 현재 까다로운 관공서의 규격 지주용 간판 허가를 대행합니다.(설치법규는 건설부 지침임)
2. 설치날짜의 기간을 준수합니다.

취급품목 사찰안내간판, 사찰연혁판, 전주용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등…

가람동기와 가람기획

해탈의 길 다양한 비유로 설명

경전 속의 禪 사상 11

청정도론 〈상〉

글쓴이



강 명 희
〈대림대 강사〉

숨쉬기에 집중 의식주 집착타파
'7가지 청정' 실천 단계는 선수행 체계

우리는 보통 인도에서 북방(중국쪽)으로 전수된 한역 경전에 의해서 많은 불전을 접하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은 인도에서 남방(세일론)으로 전수된 팔리어로 된 불전도 있다. 한역 대장경과 마찬가지로 팔리어 불전에도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과 그 주석서가 방대한 규모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서로 꼽히는 것이 붓다고사(Buddhaghosa 佛音)의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이다.

붓다고사는 원래는 남인도 출신이었다고 하나 5세기 중엽에 세일론으로 건너가 마하비하라에 거주하면서 대사(大士)의 전승에 의거하여 〈청정도론〉을 지었다고 한다. 청정도론(淸淨道論)은 남방상좌부의 교리를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좌부의 교학은 이 붓다고사의 해석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준이 되고 있다.

붓다고사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해탈도론(解脫道論 Vimutti-magga)〉를 저본(底本)으로 하고 당시에 싱하리즈어(세일론어)에 의해 쓰여진 경·율·론 삼장의 여러 의소(義疏)를 참조하여 〈청정도론〉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청정도론〉은 전체가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정·혜 삼학의 분류에 의거해 조직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총 23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과 2장에서는 계율과 두타행(頭陀行)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결국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청정한 지계의 정신과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린 심신의 수련을 선결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제2장부터 13장까지는 선정의 의미와 다양한 선정의 방법 그리고 선정수행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공덕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특히 선정이나 삼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정수행의 방법들은 현재에도 세일론과 미얀마에서 수행과정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14장부터 23장까지는 지혜의 정의, 지혜의 수행방법, 지혜의 수행공덕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청정도론〉은 구경의 청정인 열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일곱 가지 청정'을 실천의 단계로서 설하고 있다. '일곱 가지 청정'이란 계청정(戒淸淨), 심청정(心淸淨), 견청정(見淸淨), 도의청정(度疑淸淨), 도비도지견청정(道非道智見淸淨), 행도지견청정(行道智見淸淨), 지견청정(智見淸淨) 등이다. 이중 계청정은 계학, 심청정은 정학,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은 혜학에 해당된다. 일곱 가지 청정의 분류에서 청정도론을 보면 혜학이 다른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정의 체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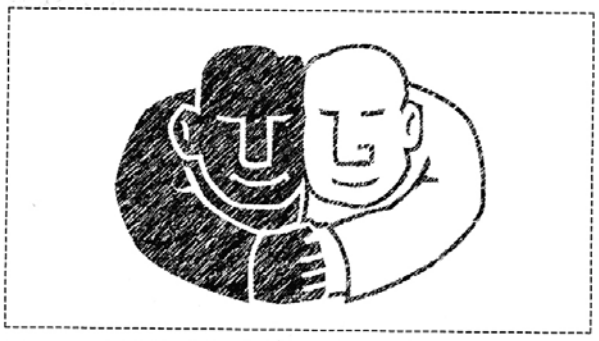
특히 정신집중을 의미하는 염(念) 또는 수념(隨念)이라 하는 수행도는 기본적으로 정수습(定修習)과 관수습(觀修習)을 기초로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定)이라 하는 일정의 마음의 유지와 관(觀)이라 하는 올바른 지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염(念)은 오근(五根)과 오력(五力; 信·精進·念·定·慧) 중에서 정과 혜의 진(眞) 가운데 위치하고 정과 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집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념(隨念)이라 하는데, 수념(樹念)의 수습 가운데 6수념과 적지수념(寂止隨念)에 의해서는 근행정(近行定) 밖에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머리, 손, 발등 여러 가지 색(色)으로 이루어진 몸에 정신을 집중하는 신지념(身至念)에 의해서는 초선(初禪)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숨의 출입에 정신집중하는 출입식념(出入息念)에 의해서는 4선(四禪)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청정도론〉에서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출입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초기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선정 상태라고 하는 4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는 수행도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4선(四禪)은 4염처의 수습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으며, 출입식염은 4염처를 완전 성취하는 것이며, 4염처는 7각지(七覺支)를 완전 성취하는 것이며, 7각지에 의해서 명(明)과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청정도론〉의 특징은 수행의 다양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비유와 인연담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산책

감정 표현

신체동작과 뇌의 통제 시차 있어
솔직한 감정 드러내지 않아도
무의식적 근육반응으로 알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남을 속이는 행위가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익숙지 않으므로 실패하기 쉽다.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신체의 변화를 남이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체 부위에 따라 이러한 지배가 쉬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체 중 어떤 부위가 가장 지배하기 쉬운 곳일까? 일반적으로 얼굴이라고 알려져 있다. 왜냐면 자신의 얼굴은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의도적인 표정 관리가 쉽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 젊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들에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이다. 실험에 앞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성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 간호사들은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무척 열심이었다.

간호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매우 역겨운 수술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즐거운 장면의 영화였다. 자신이 본 장면을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그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촬영하여 분석했다.

언뜻 보기에는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은 진실한 말을 할 때의 표정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얼굴 변화에 익숙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은 진실을 누설하는 미묘한 표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미묘한 표정은 표현을 억제하려는 뇌의 지시보다 감정의 표현이 너무나 빨리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신체적 표현과 이를 지켜보다가 통제하려하는 뇌의 지시와의 속도 차이로 미묘한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종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을 무척이나 알고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은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제 감정은 어찌 되었건 이를 표현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실험자들에 의해 속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방법은 작지만 뚜렷이 드러나는 얼굴 근육 운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환교수인 에릭 벤만(Eric Vanman)과 남가주대 동료들은 일단의 대학생들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분석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결정하고자 했다. 물론 실험 대상자들은 인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결과들은 1997년 11월 개성과 사회심리학지(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되었다.

벤만의 팀은 89명의 백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3개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이마와 뺨 사이에 두 가닥의 전기봉을 닿게하여 살짝 웃거나 눈살찌푸림과 같은 섬세한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런 다음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속의 흑인과 같이 일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다. 인터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벤만은 이 실험 그룹의 55퍼센트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무의식적인 근육 반응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인종에 대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감정 표현을 지켜보는 놈과 감정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놈은 누구인가? 통제할 필요없이 지켜보는 놈과 표현하는 놈이 본래 하나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자유롭고 여여하게 사는 도리는 없을까?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0

정진

"불건전한 수준에서는 탐욕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태에서는 신심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탐욕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찾는 것처럼 신심은 도덕의 미덕을 찾는다. 탐욕이 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신심은 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사회는 전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성적인 영리함만을 장려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심은 우둔한 머리와 지성적인 완전함이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고요함에 도달하기가 극히 어려울 정도로 현대사회는 감각적 세계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모순되는 관점들이 드러나, 과학이 특권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직관이 사라지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진이란 우리의 수련을 강화하고, 신심을 증진하는 행위다. 이것은 신념을 토론한다고 해서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정진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의심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성격의 문제다.

부처님이 가르친 업과 윤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여하튼 그것들은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물론 불교에서는 그 교리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감각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배후에는 선한 행위는 보상받고 악한 행위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 도덕적인 인과의 고리는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생으로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의 가정들이 그럴듯하든지 아니든지 그것들은 자기자신과 남들의 전생들을 기억하는 신통력을 얻은 사람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다. 신통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윤회가 사실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윤회를 믿는다면 대부분 신심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굳은 신심으로 수행하라
윤회 · 인과 등 교리에 대한 의심
논증 아닌 자기 순화로 풀어야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논증술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하고 용기있는 기꺼움에 의해서 유지된다.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은 그의 재산을 걸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군인은 지견의 생각을 걸어야 한다.

삶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대담함과 훌륭한 유머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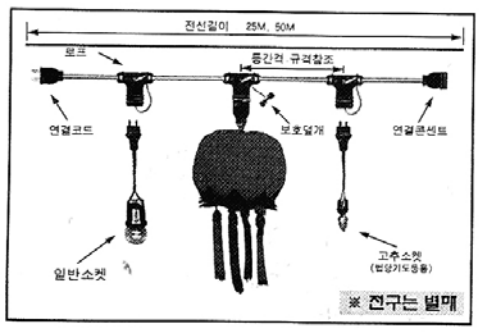
정진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인 의심들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된다. 가르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불완전과 진리와의 사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비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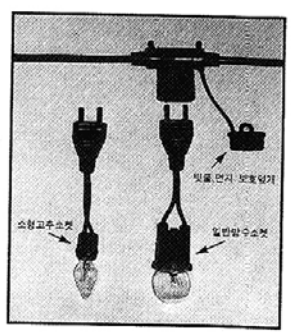
만일 단 한달전의 어느 하루의 매시간 생긴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의 전생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겠는가. 의심들은 논쟁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순화시킴으로써 의심이 풀리는 것이다.

균형을이룬 신심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덕이다. 지혜로 단련되지 않는 지나친 신심은 단순한 맹신으로 흘러가기 쉽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향한 정진 뿐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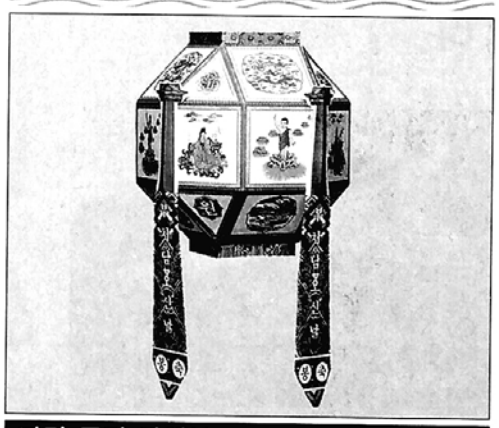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 원 기 업 代表 吳 大 權(光 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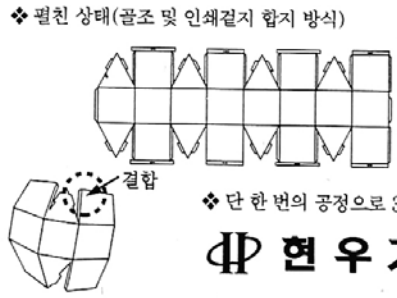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 우 기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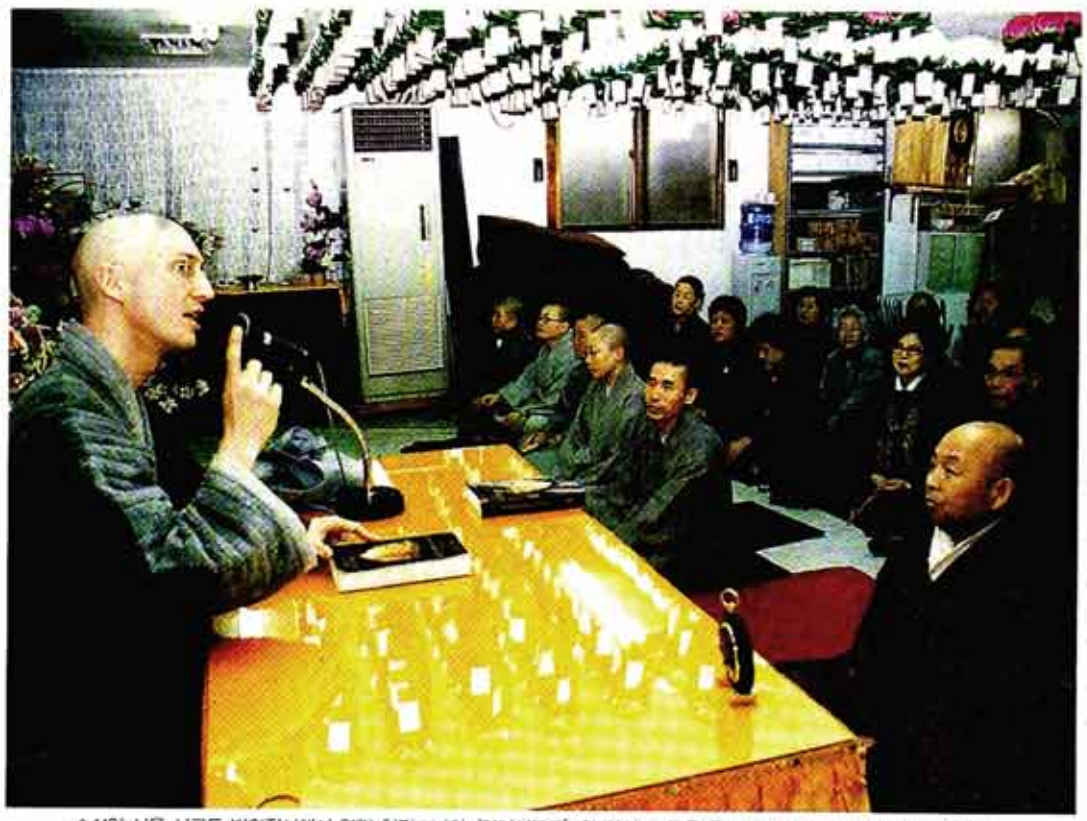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金寨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격 동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한국불교에 반한 외국인 전법수행자들

생김새 다르지만 불교사랑 한마음


◇14일 서울 서교동 법화정사에서 열린 현각스님의 '영어선불교' 첫 강의. 소문을 듣고 온 1백여명의 불자들로 가득했다.

'불교목적=The Purposes of Buddhism
상구보리=First Attain Enlightenment
하화중생=Then instruct All Creatures'

14일 오후 3시, 미국인 현각스님(화계사)의 '영어선불교' 첫강의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법화정사(주지 도림). 대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문을 듣고 온 1백여명의 불자들이 눈푸른 외국인 스님의 강의에 푹 빠졌다.

"불교(교)는 종교(교)가 아니라 삶의 지혜요, 길(길)입니다. 진짜 자유,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배우는 목적(적)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눌한 한국말씨가 오히려 불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눈을 맞추며 강의하는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속에 불자들은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외국스님들이 전법을 위해 한국불자들 앞에 나섰다. 한국불교를 배우겠다고 멀리 이역만리에서 찾아와 머리를 깎고, 잿빛 승복을 입고 수행정진하던 외국인 스님들이 포교의 일선에 적극 나선 것이다. 아직 그 수와 활동범위는 작지만 영어법회를 통한 산 영어교육과 외국의 풍습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님의 강의에 참석한 김유경학생(동국대 불교학과4)은 "깨달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생활속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쉬운 단어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재미있다"고 말한다.

현각스님외에도 활동중인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의 명행스님과 청안스님, 보성 대원사의 초펠스님, 연동국제회관의 무진스님 등이다. 얼굴모양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불교의 전통을 사랑하고, 그 전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백안의 전법수행자, 그들이 우리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현각스님

현각스님(35세)은 지난해 MBC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만행'으로 더 유명하다. 미국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 석사까지 받은 스님은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법화정사에서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을 교재로 영어선불교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92년부터 숭산스님의 법문들을 재정리편집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왔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당시 영어로 된 한국불교 서적이 거의 전무하단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에 온 이후 줄곧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길은 영문으로 된 불서를 많이 발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스님은 현재 〈경허선사어록〉을 영문번역중이다.

화계사와 지리산 상선암을 오가며, 수행과 포교를 함께하고 있는 스님은 이번 영어선불교강의 전에도 95년~96년 동국대 여름특별강좌를 통해 불교영어, 대학영어를 지도하기도 했다. 그때 스님의 강의를 들었던 독문과 이재균학생이 졸업을 하자마자, 화계사에서 해동스님으로 출가를 했다.

"당시 강의를 듣던 보통 학생이던 해동스님이 나를 찾아와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동생처럼 지내며 내가 처음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때를 들려주며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자신도 출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프로비던스선원에서 수행중입니다."

참선이 너무 좋다는 스님은 "결제기간 동안은 항상 화계사나 지리산 등지서 참선수행에 매진하고, 해제기간 등안에는 한국불자들과 만나며 앞으로도 영어불교강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행스님과 청안스님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영어법회를 여는 명행스님(30세). 5년전 미국에서 온 스님은 2년 넘게 일요영어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오전 8시~8시 50분까지는 영어회화와 불교단어를 공부하고, 9시~9시 30분에는 숭산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공부한다. 영어법회에는 고등학생, 주부, 회사원, 할머니 등 2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외국인불자들도 이 영어법회에 참가한다. 영어로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는 법회가 거의 없기 때문. 일요일 오후 1시~4시 30분에는 영어로 참선의 효과와 방법을 설명하고, 정진하는 참선법회도 진행되고 있다.

"숭산스님의 맑은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스님은 "내가 수행하는 목적이 중생을 위해서인 만큼 영어법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가리에서 6년전에 한국에 온 청안스님(33세)은 3년전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영어강좌를 진행했었다. 영어교사 출신인 스님은 지금은 명행스님을 곁에서 도와주고 있다. 스님은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수행이 최우선이요, 그 다음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영어강좌 활동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 조만간 영어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불자들과 다시 만날 계획이다.

■초펠스님

14세때 출가해 19년동안 한국부터 밀교에 이르기 까지 두루 섭렵한 초펠스님(34세)은 무엇보다 세계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스님은 지난 96년 한국에 들어와 보성 대원사에 머물면서 한국어와 한국불교 문화에 대해 공부했다. 어학실력이 뛰어난 스님은 1년도 채 안돼 컴퓨터를 배우고 천수경 등 웬만한 의식을 집전할 정도로 우리말에 익숙해져 이제는 강의와 설법까지 하는 등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불자들을 위해 티벳경전을 번역해 〈개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 刊)를 발간했다. 요즘은 대원사 주최로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리는 '티벳·몽골 밀교예술전' 전시장에 상주하면서 안내자로 나서 불자들에게 밀교를 통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전시장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실천불교' 강의도 하고 틈틈이 상담도 하고 있다.

스님은 "훌륭한 불교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불교가 티벳불교와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뛰어난 대승불교의 정신이 다시 꽃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진스님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주력하기 위해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원장 원명스님과 함께 12년여동안 포교 활동을 했던 영국인 무진스님. 외국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해봤을 정도로 알려진 웅골찬 백안의 비구니스님이다.

한국에서 스님의 주요 활동 영역은 주한 외국인 불자들과 국제포교사들의 교육과 포교. 이밖에도 스님은 정기법회와 영어강좌 등의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전념했다.

특히 스님은 지난 95년부터 국제포교사교육을 전담할 정도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96년 부처님오신날에는 한국불교의 특징과 역사를 영어로 소개한 팸플릿을 펴내는 한편 연등축제에 참석, 외국 관광객들에게 행사의 의미, 유래, 풍습 등을 소개할 정도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무진스님의 이같은 전법 원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12월부터 뉴질랜드와 스위스에서 또다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다.

글=이은지 · 김중근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현각스님


◇명행스님


◇청안스님


◇초펠스님


◇무진스님

현각·명행·청안스님-경전 영역과 영어법회
초펠스님-밀교전법 무진스님-포교사 교육

현대불교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개원사

■석조여래불 고려후기 법의양식
■약사여래불 삼도없고 법의통견


◇개원사 석조여래입상.


◇개원사 약사여래불.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경기도 남한산성내에 위치한 개원사는 임진왜란 이후 3백년간 승병장이 주석한 역대호국승장의 본찰이었다. 구한말 호국승장제도가 일제에 의해 폐지되면서 개원사(주지 선효)는 사세가 약화됐지만 최근 복원불사가 한창이다.

대각전에 모셔진 석조여래입상은 약간 파손된 소발의 육계와 삼도가 분명하며 근엄하고 원만한 상호를 가지고 있다. 눈 코 입은 정제된 미가 보이고 이마에는 백호가 큼직한 것이 특징이다. 법의는 통견으로 가슴에서 원호를 그리면서 밑으로 흘러 양쪽팔에 걸친 의문과 잘 어울리고 있다. 왼쪽어깨가 약간 마모됐으나 땅에 오랫동안 묻혀있어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오른쪽 손은 어깨에 들어 외장하고 왼쪽손은 밑에서 외장하여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의 표정이나 귀가 어깨까지 내려온점, 법의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조성됐다.

또 법당뒤 야산에 모셔진 석불은 광배와 좌상을 동일석으로 조성했다. 오른손에 약합을 받들었던 흔적이 있는 약사여래불이다.

광배는 두신광으로 표현하여 현재 원형두광의 흔적이 분명하다. 소발의 머리위에 낮은 육계로 표현되고 이마의 백호는 큼직하게 양각으로 표현했다. 얼굴과 눈, 코, 입등이 정제돼 있으며 원만한 상호에서 자비스러움이 느껴진다.

귀와 목이 짧고 삼도가 보이지 않으며 법의는 통견을 했다. 양쪽팔에 걸친 의문은 무릎에 이르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어깨에 들어 외장했고 왼쪽손은 무릎에 자연스럽게 놓아 설법인을 하고 있다. 연화좌의 불좌를 구비한 것은 전형적인 고려불상양식이며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전기에 조성된 석불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사의 전당
▶시방천 수관음상

부처님조성 천불 만불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돌부처는 그 시대 신심 반영"

'돌부처' 주제 간담회


◇좌로부터 이근후회장, 정영호박사, 선효스님.

본지가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돌부처찾기 운동에 답사와 고증을 해주고 있는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석불문화연구회 이근후(이화여대 의대교수)회장, 서현 석불회 부회장과 선효스님(개원사 주지)이 '돌부처'를 주제로 7일 개원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정영호관장은 "민속적이고 향토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 급속히 훼손되고 매몰되는 돌부처를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며 "돌부처에는 시기에 맞는 불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근후회장은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돌부처는 요즘처럼 돈가지고 조성한 것이 아니다"며 "예술성이 없는 것도 민속자료로라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현 석불회 부회장은 "미평리, 미륵리, 용화리등에 가면 돌부처가 있었거나 현재도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며 무속으로 치부돼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효스님은 "돌부처에는 무한한 불자들의 신심이 베여있는 만큼 후대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개원사에서는 불사중에 발굴된 석불을 모두 원형보존을 위해 전각에 모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⑫

六存心存境 謂做功夫時
육존심존경 위주공부시
心住心位 境住境位 有時心境
심주심위 경주경위 유시심경
相對則心不取境 境不臨心
상대칙심불취경 경불임심
各不相到 自然妄念
각불상도 자연망념
不生 於道無碍 故經云
불생 어도무애 고경운
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시법주법위 세간상상주
卽祖師 人境俱不奪法門也
즉조사 인경구불탈법문야
故有語云 一片月生海 幾
고유어운 일편월생해 기
家人上樓 又云 山花千萬朶
가인상루 우운 산화천만타
遊子不知歸 此是存境存心滅妄功夫也
유자부지귀 차시존경존심멸망공부야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마음은 마음 자리에 머물게 하고 경계는 경계의 대천사계 타성일편 갱어하처
得妄心來 所以肇法師
득망심래 소이조법사
云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
운천지여아동근 만물여아동체
次是內外全體滅妄 功夫也
차시내외전체멸망 공부야

일곱째는 안과 밖이 전체인 경지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산하와 대지, 일월과 별, 그리고 안의 몸과 바깥 세상의 사물과 일체의 법이 다같은 진심의 본체라서 고요히 비고 밝아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어서 대천 세계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부수어서 한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시 어느 곳에서 망심이 오겠는가. 이런 까닭에 승조(僧肇)법사는"천지와 나는 한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한 몸이다"하였으니, 이것이 곧 안과 밖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八內外全用 謂做功夫時
팔내외전용 위주공부시

마음은 마음자리에 머물게 하고
경계는 경계의 자리 머물게 하라

자리에 머물게 하여 때로 마음과 경계가 상대하게 되더라도 마음은 경계를 취하지 않고 경계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각각 서로가 부딪치지 않으면 자연히 망념이 생기지 않으니 도에 아무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 이 법(世間法)이 참된 법의 자리에 머무니 세간의 모습도 항상 머문다"하였으니, 이것이 조사의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한 조각 달이 바다에서 오르니 몇집의 사람이 누각에 오르는가(이 경우 달은 경계요 사람은 마음을 상징함)"하는 말도 있게 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산에 천만송이의 꽃이 피었으니 유람 나온 사람은 돌아갈 줄 모르네(이 경우 꽃은 경계요 사람은 마음을 상징함)"하였으니, 이것이 경계도 두고 마음도 두고서 망념을 없애는 공부이다.

將一切內外身心器界諸法
장일체내외신심기계제법
及一切動用施爲 悉觀作眞心妙用
급일체동용시위 실관작진심묘용
一切心念재生 便是妙用現前
일체심념재생 편시묘용현전
旣一切 皆是妙用 妄心向甚마處安着
기일체 개시묘용 망심향심마처안착
故永嘉云 無明實性 卽佛性
고영가운 무명실성 즉불성
幻化空身 卽法身
환화공신 즉법신

여덟째는 안과 밖이 모두 작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안팎의 몸과 마음, 이 세계의 모든 법과 행동하고, 쓰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다 진심의 신묘한 작용임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는 곧 신묘한 작용이 나타난 것이고, 이미 일체가 신묘한 작용이라면 망심이 어느 곳에 발붙이겠는가. 그러므로 영가스님은"무명(無明)에 가리운 참된 성품이 곧 불성(佛性)이요, 실체가 없는 빈몸이 바로 법신이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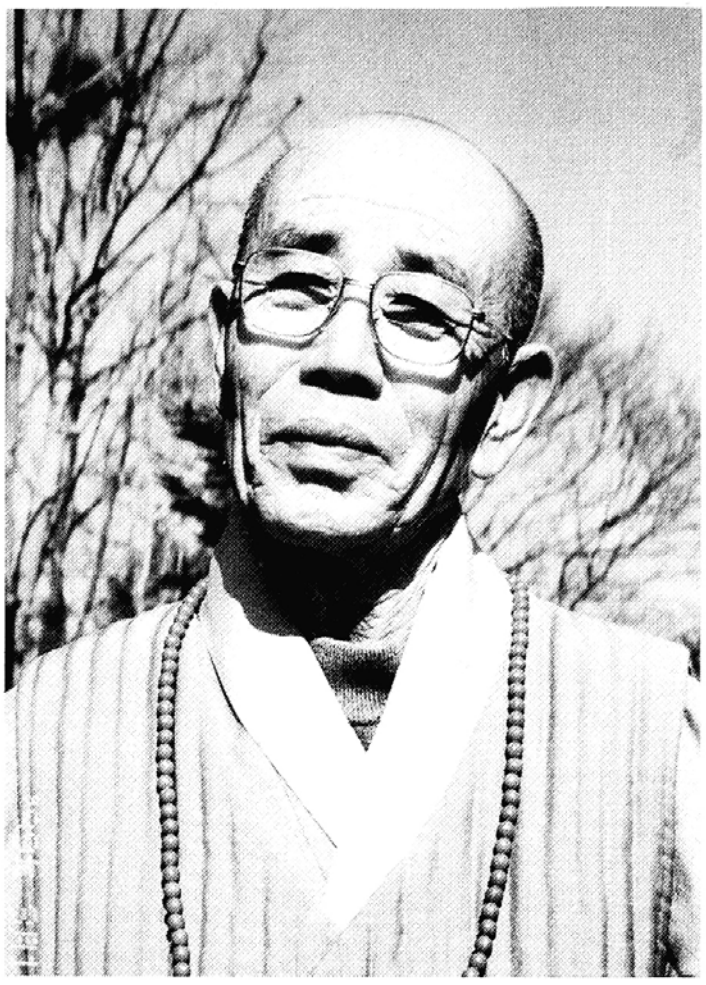
七內外全體 謂做功夫時 於山河大地
칠내외전체 위주공부시 어산하대지
日月星辰 內身外器 一切諸法
일월성신 내신외기 일체제법
同眞心體 湛然虛明 無一毫異
동진심체 담연허명 무일호리
大千沙界 打成一片 更於何處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나를 구해야 세상구하고

경조스님 〈불입종 종정〉



약력
- 1927년 3월 경북 상주 生
- 1948년 출가,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5년 백화사 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 1960년 화광사 창건
- 1965년 불입종 수교부장
- 1972년 불입종 총무원장
- 1979년~현재 불입종 종정

"돈과 명예 구하는 사람 많아도 '참 자기' 찾으려는 사람 적어요 지금바로 지혜와 용기 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서 한 번쯤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말입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다른 사람을 위해 회향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인연이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또한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스님이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내 어머니는 아주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탓도 있었지만 어머니 영향으로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렸을 적부터 불경을 읽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주로 〈금강경〉과 〈반야심경〉 〈천수경〉 읽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늘 따뜻한 얼굴로 지켜봐 주셨지요. 풍족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생활에 6대 종손이기도 해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었습니다.

불경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던 22살 되던 해, 우연히 〈법화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한 구절에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今此三界 皆是我有 其中衆生 悉是吾子 而今此處 多諸患難 唯我一人 能爲救護(금차삼계 개시아유 기중중생 실시오자 이금차처 다제환난 유아일인 능위구호)' 라는 글귀였습니다 '지금 이 세 세상이 모두 다 내 것이요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인데 지금 이 삼계 안에 모든 환난 충만해도 오직 나 한 사람이 능히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하러 산에 가면 나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무 각대기 하나를 넘어뜨려 그 나무가 쓰러지는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야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미신 같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큰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 가는대로 하면 잘못돼도 누굴 탓할 수 없을 것이고, 잘되면 성취감은 물론 거기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치지요.

더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더불어 나를 바로 볼 수 있다는데 무슨 망설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길로 인근 백화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태허스님에게 출가를 허락받았지요.

태허스님 시자 노릇을 하면서 경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끼만 먹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태허스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이라서 한 눈 팔 여지도 없었습니다. 한 치라도 공부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놈들이 무엇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공부하는데 게으를 수 있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몇 명이 같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남은 행자는 저 하나 밖에 없을 정도니까요.

은사스님 밑에서 그렇게 8년을 공부했습니다. 6·25전쟁이 터져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은사스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헤아릴 수 없는 불법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8년이란 기간에는 군대생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은사스님 밑에서 8년간 공부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비록 군대에 몸담고 있었지만 한시도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었고, 실제로 경전을 손에 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매일 새벽마다 장교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병들까지도 나중에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포교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당시 내가 있었던 부대에는 법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항상 일찍 일어나 연병장을 돌며 마음으로 새벽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생각할 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무엇을 말할 때는 항상 부처님 진리를 말하라. 무엇을 행할 때는 항상 부처님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함부로 눕지 말라. 눕는 것을 좋아하면 입으로는 법을 말할 뿐 결국 법 아닌 것을 말하게 된다."

그 뒤 백화사 강원에 들어가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경 속에 모든 진리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된 시기도 이 때였습니다. 그 중 〈열반경〉의 한 구절은 내가 불가에 입문한 이유를 더욱 확신에 차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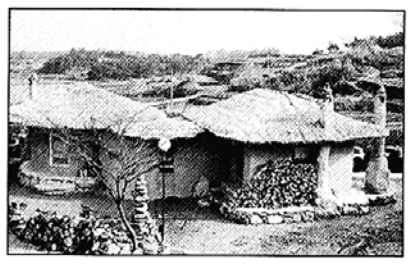
'依法不依人 依義不依語 依智不依識 依了義經 不依不了義經(의법불의인 의의불의어 의지불의식 의요의경 불의불요의경)'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의리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되 분별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대승경전에 의지하되 소승경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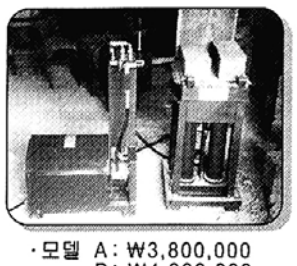
이 얼마나 심오한 철학이요 사상입니까. 이 말은 비단 스님이나 불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법질서가 무너지고 의리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얄팍한 수단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이같은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四依四不依(사의사불의)'의 가르침은 이 나라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성륜사 조실 청화 큰스님 초청

실직자 돕기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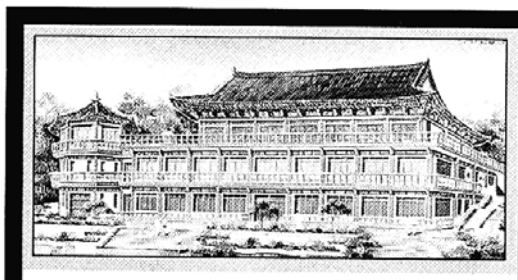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대명사에서는 큰스님을 모시고 조상천도 구병시식과 실직자 가정돕기를 위한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불연으로 많이 동참하시고 좋은인연 맺으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시길 바라옵니다.

· 장소 : 신림동(쑥고개) 대명사
· 일시 : 불기 2543년 4월 3일 (음력 2월 17일)
· 순서 : 10시부터 예불
11시부터 큰스님법어
12시부터 조상천도 및 구병시식

※ 조상천도 구병시식 – 한가족당 20만원
※ 연등1등 1만원 (실직자 돕기 연등법회)

대 명 사
전화 02)876-3337 / 팩스 02)874-6634
대명사 대중일동



1.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산 11번지

위치적 장점
1. 산세가 수려하고 푸른 숲과 맑은 공기
1. 약수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환경
1. 시내 중심지에 위치, 편리한 교통
1. 마을과 떨어져 있어 한적함
1. 종합병원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5분 거리내에 있음.

2. 대 지 : 6,940평
3. 중교시설 : 106평
〈대웅전은 조립만 하면 됨〉
4. 실버타운 : 829평
〈현재공사 진행 40%〉
5. 구광사 정득스님께서 보살도의 원력으로 불사에 동참하실 뜻있는 투자자를 모십니다.

☎ 051) 242-6993
016) 580-8125

2천만의 깨달음을
참으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큰스님 수행한담

정토 가꾸게 됩니다"



◇ 1967년 불입종 제28회 본말사주지포교사 수련대회 때의 모습. 앞줄 왼쪽 세번째가 경조스님, 가운데 앉아 있는 스님은 태허스님.

"한번만 살고마는 인생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의 과보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 行마다 正道돼요"
"이웃위해 최선 다하는것 선업 짓는일"

지 모두가 명심하고 따라야 할 부처님 법입니다. 이대로만 따른다면 불국토가 어디 다로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거기지요.

한때는 보덕굴에서 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절실하게 더욱 확고하게 깨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은사스님께서는 "경의 제목을 주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화두삼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생식에 소금물만 먹어가며 공부하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도 동굴에서 생식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스님들이 이 나라 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승을 펼치기 위해 자기를 버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슬퍼지기도 하고 은사스님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승가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님들은 고행을 하려들지 않지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공양을 마치면 잠자기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TV도 봐야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얻어야 하니 공부에만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부해야 더욱 뜻이 깊은 것입니다. 공부가 깊지 않으면 중생을 올바로 제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생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요즘 스님들에게는 신도를 교화하기보다는 신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실이 바늘을 따라 가야지 바늘이 실을 따라가서는 바느질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이치를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부가 깊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님이나 중생은 넓게 보면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세상을 물에 비유해 본다면 중생은 물에 빠진 사람이요, 스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다같이 물에 빠져 있지만 빠진 사람과 건지러 들어간 사람은 분명 다르지요. 중생은 생사에 지배를 받지만 보살은 생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스님과 중생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몸에 좋은 양약(良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면 그 양약은 극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약이라 하더라도 명의에게는 목숨을 구제하는 양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같은 근본은 다름아닌 공부의 깊고 얕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삿된 자는 정법을 말하더라도 사법(邪法)이 되고 정법자는 사법을 말하더라도 정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하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 요즈음엔 사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모두 중생들의 덕택인데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내가 소의하고 있는 〈법화경〉은 모든 중생들에게 숙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법화경〉을 보면서 느꼈던 법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범부로 태어나서 이처럼 큰 법을 만났다는 생각에 며칠동안을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50년 가까이 〈법화경〉을 읽고 또 읽어왔지만 참으로 큰 법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과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법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현명한 사람도 많고 미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명한 사람도, 미혹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예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법화사상이 필요합니다. 온 천하가 다 옳다고 해도 그른 것은 그런 것이고, 다 그르다고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왜 부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옳은 말은 빰을 맞아도 하고, 그른 말은 칭찬을 받아도 하지 않는 대승적인 용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지혜와 용기가 〈법화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화사상을 만나기가 눈먼 거북이 큰 바다에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법화사상을 만나기가 이처럼 어려운데, 이 법을 만났으니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의 과보를 만드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정토가 됩니다. 극락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극락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길이 곧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승한 것은 택하고 열등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 집착하면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버릴 줄 알아야만 수승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법화사상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구하지 않고서는 바른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해 보세요. 나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를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길이요, 세상을 구하는 것은 곧 정법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법화경〉 공부와 더불어 보시·지계·인욕을 행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 없이 좋을 것입니다. 참 삶의 가치는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발심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가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 금 석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대 교수들과 함께 매주 좌선모임
'한글대장경' '불교전서' 전산화 동참

8년전 병환중인 아버님의 요양을 위해 논산의 한 절에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으로 소문 난 그 절에는 우리 외에도 몇몇분이 함께 생활했다. 어릴적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주 절에 갔었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기껏해야 초파일에 연등 하나 다는 정도였던 내게 당시 절 생활은 그자체가 수행이었다.

주지스님의 가르침대로 아침 저녁 예불은 물론이고, 시간 나는대로 참선도 하고, 염불기도도 드리고, 참회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앞으로 다시는 업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며칠이 지난 어느날 기도중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오랫동안 피워 온 담배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자 금단증상 없이 일순간에 끊을 수 있었다. 이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연례행사로 치루던 기관지염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 일을 계기로 불교가 새롭게 내게 다가왔다.



학교에서 매년 2박3일간 가는 사찰 연수회도 보통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연수회에서 했던 참선을 계속하기위해 나는 공대 동료교수들과 함께 당시 정각원장이던 보광스님에게 매주 좌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기계 컴퓨터 전기 화학 등 공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이 정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삭막한 내용이 대부분인 탓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목말라 하던 때였다. 보광스님은 흔쾌히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스님의 지도아래 좌선회가 꾸려졌다. 20여명이 공대교수가 주회원인 좌선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8시 30분 까지 정각원에서 좌선을 한다. 전 회원이 정각원을 사랑방처럼 느끼며 좌선회에 참가하고 있다.

좌선회 활동을 시작한 후 좀 더 깊은 체험을 하고싶은 생각에 동료인 홍영식교수와 함께 송광사 4박 5일 출가수련회도 다녀왔다. 수십년 동안 굳은 내몸은 가부좌가 되지 않았고, 수련기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을 했지만 가부좌가 되지 않아 반가부좌만 하면서 수련을 했다. 지금도 나는 가부좌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더 많이 수련을 하고, 그 수련이 무르익을 쯤에나 가부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참선수행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잘 안되는 것이라 좌선회에서 도반들과 함께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의 좌선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길때면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도 참가하면서 나름대로 수행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려고 하지만 참선수행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었음을 항상 실감한다.

요즘 나는 좌선회 활동외에 전자불전연구소의 일도 돕고 있다. 불교학자, 국문학자, 공대교수 등 전자불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다. 지금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를 작업중이다. 94년도 해인사서 열린 EBTI(전자불전회의)에 홍영식교수와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것이 인연이 돼 참가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진월스님, 대장경연구소 종림스님, 랭카스터 교수 등을 만나면서 불전전산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 여하튼 앞으로도 좌선회 활동과 함께 내가 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불전전산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좌선회를 보다 많이 알려서 좋은 환경에서 다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최신 PCS폰 무료에 160분 무료 통화까지!

016 놓치지 맙시다! 대축제 3月 26日까지

놓치지 맙시다 I 최신 PCS폰 무료 제공

아래의 가입조건을 갖추어 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조건
  1) 요금서비스 : 에이스요금 또는 프리요금중 택일
- 행사대상모델

▶ 가입조건 모두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 변경, 요금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 가입비 별도(분납가능) 및 1년간 의무사용 조건
▶ 상기모델은 조기에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 지로를 통한 요금납부는 해당안됨



놓치지 맙시다 II 신규가입자 누구나 160분 무료통화 제공

행사기간중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께 160분 무료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 무료통화 증정방법
  · 가입 익월에 제공
  · 미사용분 이월 사용 불가
  · 무료통화는 국내 통화만 가능(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등 제외)

놓치지 맙시다 대축제 신청방법

- 서울 02)732-1522, 02)737-8881로 전화주시면
-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 앞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가람의 장면들 4



◇부석사는 지형에 맞추어 석축을 쌓은 외부공간이 당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가람 전체가 꽉찬 듯한 느낌을 준다. 사진은 무량수전에서 바라본 부석사 전경.

계단식 석단 가람의 주인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립 중앙박물관장을 지낸 고 최순우 선생은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명수필로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바 있다. 건축 전문가들에게도 가장 뛰어난 사찰건축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영주의 부석사를 추천한다. 부석사에는 고려시대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이 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로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오래된 국보급 문화재며, 빼어난 형태적 비례와 정교한 측조기술로도 대단한 가치를 갖는 건물이다. 그러나 건축가들의 찬사는 무량수전 때문 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무량수전 보다 더 거대한 건축이 있기 때문이다.

부석사는 수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건물로는 천왕문과 범종루, 안양루와 무량수전, 그리고 뒷산 숲속의 조사당과 응진전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최근 요사채들과 성보전들이 신축되었지만 규모도 작고 한쪽에 자리잡아 그다지 주목할 대상은 못된다. 소백산 지맥의 한면을 차지할 만큼 광활한 대지에 불과 4동의 건물만이 서있다면, 마치 큰 호수에 가람배 두세척이 떠 있는 것 같이, 보통의 솜씨로는 황하고 스산한 가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절에 올라가면 모든 외부공간들은 꽉차 있다고 느끼고 만다. 왜일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대사는 소백산 깊숙한 곳에 부석사의 기틀을 닦고 화엄학을 전교하기 시작했다. 삼국으로 정립되어 600여년을 지속해왔던 한반도의 나라들이 드디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 나라의 백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적대감으로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의상이 전교한 화엄학은 분열됐던 사회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석사

의상의 현실적 사상은 부석사의 가람 구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가람은 깊고 급한 경사지를 십여개의 거대한 계단식 석단들로 바꾸고 그 위에 건물들을 앉혔다. 전문가가 아니면 지나치기 쉽지만, 그 석단들의 적절한 높이와 웅장함이 부석사 가람의 주인 역할을 한다. 건축적 공간은 내부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사지를 깎아서 석축을 쌓으면 바닥의 수평면과 석축의 수직면이 생긴다. 수평면과 수직면이 오히려 더욱 삭막한 장소를 만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람의 건축가들은 석단의 위치와 높이를 철저하게 원래의 지형에 맞추어 쌓고 다듬었다. 십여개 석단의 높이들은 서로 다르고, 석단이 위치하는 간격도 다르다. 높은 단 하나를 오르면 다시 낮은 단들이 나타나고 다시 높아지는 등, 매우 리드미컬하게 걸음을 조절한다. 가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산술적 거리는 매우 길고 고저차도 심하지만, 부석사를 방문하는 그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율동적으로 배치되고 세워진 석단들 때문이다. 석단들은 바로 자연 지형의 생김새에 따라 세워진 땅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화엄의 통합사상 반영
소백산맥 능선마다
무량수전 경배하듯

십여개의 석단의 정점에는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놓여진다. 하나의 장엄한 소나타와 같이 율동적인 오름의 정점에 위치한 두 건물의 아름다움도 대단하지만, 일단 안양루에 오르던지 무량수전의 기둥에 기대서 지나온 행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 장면이 바로 의상이 무량수전을 바로 이 자리에 앉힌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는 눈 앞에는 구름 아래로 첩첩한 산들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곡선들을 겹쳐가며 대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이처럼 장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대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자연의 풍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그처럼 수많은 석단을 쌓아가며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대자연의 선물을 품에 안기 위함일 것이다.

소백산맥의 수많은 산줄기와 능선들이 무량수전을 향해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말했듯이 부석사는 가장 커다란 정원을 가진 가람이 됐다. 땅의 생김새에 충실하게 건축을 할 줄 알았고, 자연을 앞 뜰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의상스님과 그 후예 스님들께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일정한 비례로 조화를 이루면 일정한 공간적 느낌이 생기고, 이를 건축적으로는 외부공간이라 부른다.

특히 한국건축은 좁은 내부공간보다는 시원한 외부공간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흔히 우리가 마당이라고 부르는 뜰이 대표적인 외부공간이다. 마당은 건물들의 벽면 사이로 만들어지는 외부공간이지만, 부석사의 경우는 웅장한 석단들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외부공간들이다. 소수의 건물들 밖에는 없지만 가람 전체가 꽉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석단들이 만드는 외부공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부석사 건축의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석단들이다.

그러나 무작정 석단들을 쌓았다면 지금과 같은 공간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신개발지의 택지 개발 현장과 같이

바른신행 이끌고 인재 기르고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사찰도서관의 필요성

불교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불서읽기를 통해 불교 이해의 폭을 넓혀야만 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전법 또한 바르고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서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서읽기는 바로 불교의 미래를 읽는 것이기도 하다.

'책씨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다. 하지만 멍석이 깔려있지 않다. 경전 독송과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불서를 읽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겐 사찰도서관만큼 절실한 것도 없다.

미래는 더욱더 복합적인 신행패턴을 요구한다. 다양화된 사회와 신도들의 분출되는 지적 욕구는 더이상 법당에만 안주하길 거부한다. 그런 점에서 '불서 읽기'는 바른 신행의 으뜸 길잡이다. 다양한 불서와 인접학문을 다룬 책들은 스님의 법문과는 다른 또다른 세상을 열어준다. 자연스레 신심이 높아지고, 불자인재도 길러진다. 절마다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도서관을 보유한 사찰은 전국에 16곳 정도로 전체 사찰수에 비하면 극소수다. 심지어는 조계종 교구본사급 사찰 가운데에서도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지역 문화공간이자 화합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찰 도서관 현황

도서관	보유장서	연락처
해인사	2만권	(0599)931-1016
봉녕사	2만2천권	(0331)254-3371
사천왕사	2천권	(02)939-3900
조계사	1천권	(02)720-1390
삼선포교원	4천권	(02)923-0582
불광사	2천권	(02)413-6062
금강불교대	5천권	(02)3460-5300
삼천사 인덕원	1만권	(02)385-8205
강남포교원	1만권	(02)539-2631
부산 삼광사	5천권	(051)808-7111
부산불교교류원	3천권	(051)466-4080
대전 녹야원	3천권	(042)625-1080
일산 원각사	3천권	(0344)913-7744
여수 석천사	5천권	(0662)666-1770
단양 구인사	1천권	(0443)423-7100
순천 선암사	3천권	(0661)54-5247

도서관이 있는 사찰의 신도들은 신행생활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도서관을 큰법당처럼 여긴다. 그리고 법당 속의 법당으로서 명실상부한 불법승 삼보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자긍심도 높다. 불공사 등 모범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사찰들의 신도들은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불서를 읽힌다. 스님들도 이곳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포교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송파구 방이동에 사는 진여행보살(40)은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마자 서둘러 불광사 도서관으로 향한다. 불서 읽는 재미에 빠져든지 어느덧 한달째. 도서분류와 전산입력 등을 위해 1년여 동안 흘렸던 구슬땀으로 보란듯이 도서관 하나를 일궈냈다는 뿌듯함이 상패함마저 느끼게 한다.

"사찰은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한 권의 불서를 빌려갔다면 불자 한 사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은 사찰도서관 이야말로 이 시대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한다.

사찰도서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들인 도서관은 신도들에게 '쉼터'의 역할도 제공한다. 각종 불교정보를 이곳에 비치, 정보화시대에 발맞추면서 자유롭게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에 있는 스님들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스님이 달라지면 신도도 달라진다. 그러면 사찰의 모습이 달라지고 불교가 달라진다. 그 시작이 바로 '책 읽기'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도서관들이 도서관리 전산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에 애를 먹고 있다. 장서의 다양화는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도 토로한다.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사찰도서관을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스님과 신도들도 많다.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들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월1회 연재되는 기획기사를 통해 사찰도서실 신설 및 운영방법, 활용범위 등을 폭넓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사찰도서실을 만들고자 하는 사찰과 불자들에게 불서 구입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카운슬링도 실시한다.

또 '우리절에 불서를 보냅시다' 운동도 함께 전개해 모든 불자들이 사찰도서관 만들기를 돕고 법공양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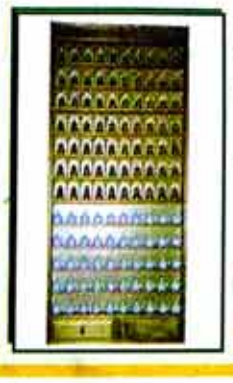
◇사찰도서관은 불자들의 깊이있는 신행생활과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21C를 준비하는 '지식도량'이다. 사진은 조계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청소년불자들의 모습.

"불서읽기는 불교미래 여는 디딤돌"
지역주민 문화공간…포교사 역할

본사, 사찰도서실 신설·운영 상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세디사인의 팔모 조립등
간편하며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조립등이 곧 출시됩니다.
· 규격 : 13cm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 주문제작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 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현증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 에서「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

여러분께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드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을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

"가는것도 정진
오는것도 정진
앉는것도 정진
누운것도 정진
서는것도 정진
일하는것도 정진
수행처 고정되게
생각마세요"

그래서 얘기인데, '돈오'라는 것은 위에서 그대로 깨우쳐서 실천을 해내려오는 과정을 말하고, '점수'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찰나에 그냥 깨치는 것은 깨치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실천을 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달아 올라가는 것은 실천을 하면서 깨달으며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든 둘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애고나 업보가 닥쳐오고 피치 못할 일들이 닥쳐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가려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고 고가 다가오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코·귀 달리고, 육근·육진·육식이 충만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식이나 남편 또는 부인이나 자식을 돌보지 않으며,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욕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야단쳐 버립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면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하며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이것뿐이지 흘려버림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철야정진하고 기도간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 하게 되니, 밥을 못 먹어서 배 고픈게 아니라 외로움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나가서 방황하다 보면 문제의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량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기에 아픔도 둘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모든게 무효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족하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도 볼일이 끝났으면 빨리 다녀가도 되는 것을 그냥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철야정진을 시키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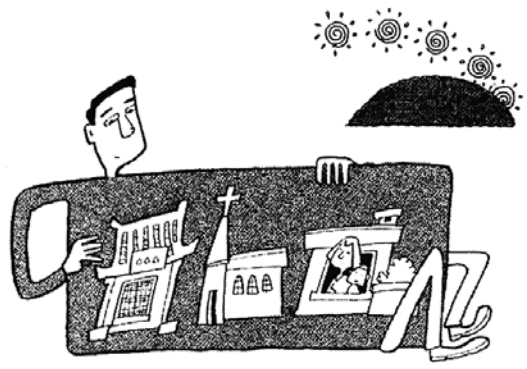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苦 없으면 集·滅·道도 붙을자리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24시간 피로 다 없어져

지금 종교로 인해서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종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절에 기도 들어간다, 기독교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도 기도 들어간다, 산기도 간다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며, 그렇게 자기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팡이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등한시해서 가정이 엉망이 되어 가족들이 집에 마음을 붙일 수 없게 된다면, 기도를 아무리 백번, 천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팎이 화목하고 즐거우며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한가정이 유지되어 나가는 그런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행동에 달려 있고 말에 달려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식탁 위에나 냉장고 문에다가 '애들아, 피치못할 일이 있어서 나가니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널 사랑해' 하고 크게 써서 붙여 놓고 나간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에너지, 즉 광력의 힘이 거기까지 미쳐서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바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게 되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모두가 말입니다.

부인네들만 그렇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듯이, 아무리 하루 24시간이 고달퍼도 따뜻한 말 한 마디를 하게 되면 24시간의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솟아 오릅니다. 애들이 이탈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나온 애들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양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되고 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끈불끈 내뱉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불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주전체에 인간들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입니다. 불교이고요.

얼마전부터 신도들이 여기서 철야정진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말려야 되겠습니다. 한 발짝 떼어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요, 오는 것도 정진이요, 앉았는 것도 정진이요, 누운 것도 정진이요,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들 고정되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행복하고 웃음넘치는 식구들의 안식처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몇 시간 동안을 여기서 정진한답시고 졸고 자고 온통 그저 말장난으로 말하는데만 전념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써 모두 하나하나, 어떠한 일에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 군데에서 나고 드니까 '나는 그런 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 하면 된다'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만물만생이 여러분의 차원대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몸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까지도 말입니다. 안그럽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냥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직이는 것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것 내 것 하면서 마음으로 붙잡고 요거를 해야 옳을까, 안 해야 옳을까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붙들고 돌아가니까,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으니, 그 윤회성을 오히려 입력시키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에너지가 허공만한 큰 것이 있다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는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지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양면으로 두 마디를 하지만,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고'가 고가 아니라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고'가 될 게 없습니다.

'고' 하나만 떨어진다면, '집착'도 떨어지고 '멸'도 떨어지고 '도'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이 사제법이 '고' 하나만 없다 한다면 나머지 셋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상이 나온다느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팥죽 솥에서 부글부글 팥죽이 끓어 팥죽 방울이 나오듯 한 몸뚱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데서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 제 자리에 다 놓으라는 데도 왜 그렇게 못 놓습니까? 그 팥죽 방울 나오는 대로 제자리에 다가 놓는다면 팥죽은 익어서 방울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 팥죽 방울이 나온다고 불을 물렸다 붙이고, 물렸다 붙여 보십시오, 팥죽이 익나? 그 자리에서 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9)

글과 백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 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을 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을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들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 법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케트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차도 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애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둘러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설이 되어야 하고 즉행이 되어야만 즉여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늉만 내는 길잡이가 될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벌레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덧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흔히들 겉핥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붙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흉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 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있는 것이다.

협찬 : 한 마 음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환란 닥치면 되돌려놔야 탈 안나

☞ 15면에서 계속

오는 거니까 팔죽 방울을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팔죽이라고 한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가서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하고 참견을 하면서 분에 넘친 행동을 한다면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머슴으로 살면 머슴의 본분만 지켜야 할텐데 웬 주인의 일에 참견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림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시자와 같습니다. 옷이 헐면 바로 옷을 다시 갈아 입듯이 몸뚱이도 해지면 갈아 입는 옷과 같습니다. 옷 입는 거는 수명이 짧고 이 몸 옷 갈아입는 거는 수명이 좀 길다 뿐이죠. 또 옷이 맞지 않으면 얼른 벗어 버리고 딴 거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 적에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느니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데서 잘못 들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인연에 따라 만나서 한 철 살다기 인연이 다하면 다시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다만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아래로는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안되겠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기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맞아 돌아가야 되겠죠.

애들을 공부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게 되니까, 그 점은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피로회복제라도 먹여서 나른하고 아프고 졸립고 그렇지 않고 정신회복이 되게끔 돌구어주어야만 모자라지가 않겠죠. 그래야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파보세요, 의욕이 생기는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점심·저녁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이는 것도 밥을 먹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약이라 이름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거나 먹여서 되는게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잘 섬기려면 반 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때 아플때는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맡길 때는 관세음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이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 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화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내 마음, 몸, 가정, 식구, 법당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와서 정진하고 정성들이고 하는데 있어서 자주 와서 마냥 살다시피 한다며는 스님네들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며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 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될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떡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하면서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사단이 많고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모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엇갈리고, 사냐 못사냐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거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지겨워' 하면서 이탈을 하게 되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터진 다음에 말로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쓴들 소용이 없게 되죠.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몸이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요,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거,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라고요. 기독교에 있습니까? 가톨릭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불'과 '교'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맨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떤 겁니까"하고 물으니, 또 어떤 선지식은 벌떡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죽겠다"고 하니 "아이구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외울만치 읽었다 하더라도,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났든 잘났든 바로 네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



그림·최주현

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회사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도 식구들 사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해나가는 일에 자나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며 다른 사람도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냄새 밥냄새도 못맡고 벌레가 돼서 산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치의 에

아니게 한다면 만번 하는 것보다 일배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을 정신적인 배를 고프게 만들어 놓고 기도 간답시고 멀치 같은 것도 안 먹이고, '기도하는 백일 동안은 육류는 먹지 맙시다' 하구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백일이 일초가 될 수 있고, 일초가 백일이고 백일이 만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 생각 잘 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며 절름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 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관세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만물 돌아가는 것을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도 나무의 목신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내있게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죠. 그 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벌벌 떨면서도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도 들어보니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고 귀신들이 들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된 게 아니다. 당신들도 불교속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어느 고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며 기복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복적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이든가 인연지었던 죽은 영혼이 다가와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

촛농 흐르지 않게 초심지 잘 다스리세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고삐 자기가 쥐어야

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든가 한다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져 초가 한쪽편으로만 타가지고 촛농이 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서 비뚤어졌다면 잘라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불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곧고 밝게 잘 켜질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초심지 다스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에서, 소가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에 막 들어가서 짓밟으면 안되니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길로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살림을 윤택하게 잘 해나가려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나라도 역시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신도 한 분이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이 됐으니까 보란 듯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단 말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나니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보니까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

누리 없이.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뭘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 앉혀서 찐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찌면 그것을 집어간 사람이 비비 틀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크게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는 고양이를 시루에 앉히고는 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손주를 봤는데, 머리는 고양이고 몸은 사람인 아이가 태어나 낳은 즉시 그냥 갖다가 묻어버린 예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어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께도 얘기했듯이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데 더욱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몰라서 모르면 안됩니다. 알고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든지 정진을 한답시고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해주시오' 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하면 절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봤자 어떤 때는 소용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소립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빛나게 살려며는 행동부터 진실하게 하면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니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식도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 놈의 새끼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 애비를 닮아서 저렇지',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싹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배움에 의해서 종교의 진의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게 빌기 위해서, 산 기도를 백일을 한다 절을 천번 한다 하는데 몸으로 천번 잘할 것을 마음으로 뭉쳐서 일정례를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돌어요.

그런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자석에 쇠종류를 갖다대면 그냥 붙어서 한덩어리가 되어버리듯 그렇게 해야만 탈이 없을텐데, 가깝게 와가지고 붙으려고 한다고 해서 자꾸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자꾸 떼어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만,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병고가 오든 애고가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그 모든걸 되돌려놔라,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용광로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듯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난다, 이사를 가고오고, 삼재가 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체를 놓아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일일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맨날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련하여 놓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놓게 되는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종교라는 이름에도 걸리지 마세요.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갸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치고 온통 소란을 부린다면 이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라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남의 마음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옴도 할지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서 내려다보고 모두 다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여래니라. 여래라 함은 국한된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한다면 중생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만 전구의 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맨날 하죠? 그러니까 들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사실이요,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나가면서 믿고, 실험해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낳아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도의로 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피우고, 촛불 하나 켜놓고, 물 한 그릇 더놓고, 찹쌀떡이라도 한 접시 차려놓고 쭉 둘러 앉아서 길러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 들 아닌 자리에 하소서"한다면 그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구들이 잘 먹는 음식을 장만해 놓고 "오늘 어르신네 기일이어서 음식을 조금 사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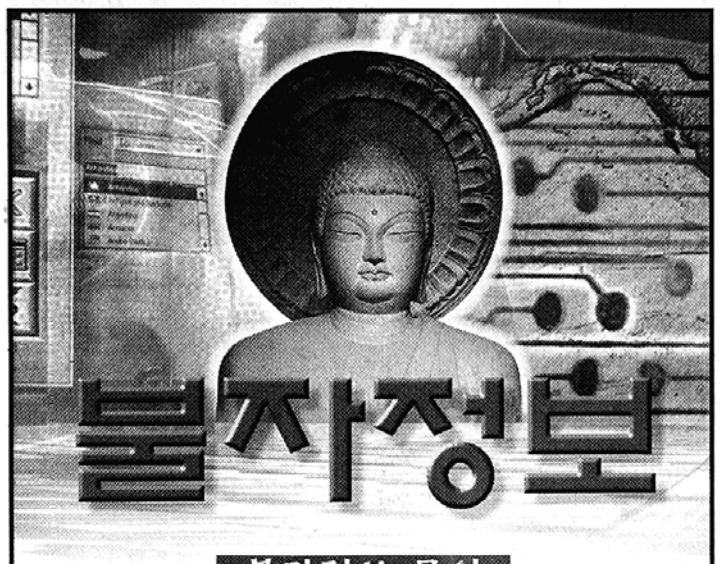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그 속에서 나온 수박씨를 올해 또 심었더니 다시 수박이 열렸다구요. 그랬는데 그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렇게 간소하게 상을 차렸다해도 마음으로 둥글린다면 그건 바로 마음의 불을 켜는 겁니다. 그 씨가 그 씨이니까요, 바꿔진 것뿐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 한자리 한다면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옛날에 고려장 지낼 시절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내다 버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자식이 지게를 도로 지고 오길래 왜 지고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소리에 그만 도로자기 어머니를 업고 가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은연적으로 자식들이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이 털구멍을 통해서 수없이 들고 납니다. 이거 아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면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에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밝게 불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며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며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모든게 내 탓이야' 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 가족들 간에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되어 있는것이 종교가 아닌 줄 안다면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며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헤 보십시오. 그럼 이만하고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혹 벌것 아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것아닌 곳 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안내
1.신비의 추·L-로드
2.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수맥차단제 판매
4.수맥관련 상담 환영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易학교육전문학원 육성교재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8주 완성
좋은 스승, 좋은 교재를 만나야
제대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역학계의 혜성 박규명
(전직교사·59)원장이 만들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것도 인연이지만….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042)525-5774

사주 명리수강생 모집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저렴한 수강료의 강의는 최고수준
⊙주2회 (1회3시간씩) 3개월 완성
⊙초급 중급 상급 각 1개월씩
⊙수시개강, 연중계속강의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술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학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의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무
※불교제반(49재, 천도재, 정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상생 봉사회원 모집 : 불교식 장의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구인

절운영 맡겨주실 분
◆모든 불치병치료 능통함.
◆기치료법 전수함.
광 명 스 님
016)385-7455

스님을 모십니다.
45세미만의 조계종 스님으로
단정·성실하신 분을 모십니다.
부전스님 0명
(053)473-5802
영남불교대학

국산 토종 목
암주 묘목
※염가분양※
02)222-6003(주간)
02)224-8895(주간)
02)234-0095(야간)

투자가 및 유통전문영업인 초빙
당사는 국내최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중인 "현상공덕함" 제조업체로서 사세확장과 영업활성을 위해 능력 있는 분을 모집중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모집부문	인 원	응 모 자 격
투 자 기	0 명	직접 경영 참여 가능한 분
유통영업	남·여 00명	심신이 돈독한 불자/유통전문영업 3년이상

2.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제출기간 : 1999년 3월 일 ~ 일까지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제 출 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동일빌딩 501호 금성통상
6. 문의전화 : (051)466-3731~2

한라산 영실
천일기도도량에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696-8500
011)639-8500

여생을 편안하게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부처님께 기도정진하며 살고싶은
두 분을 모십니다.
병환중에 계셔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미륵산 골짜기에서
비구 석 천 합장
0371)761-9410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정신병 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비밀 절대보장
1.약물 치료가 아님
1.가정에서 관리 어려운 환자
1.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1.병명없이 아픈 사람
1.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1.굿을 하고 이상이 생긴사람
1.신병 들린 사람
1.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
1.병명이 바뀌는 사람
본 스님은 27년간 수도한 분
묵계사 고칠정법 기도도량
0595)884-1789/011)883-9144

달마보급안내

죽림포교원 051)361-6662

국산 토종
목암주 묘목
※염가분양※
02)222-6003(주간)
02)224-8895(주간)
02)234-0095(야간)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0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10봉지(10만원)
■100g×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개발지(땅) 투자
국제공항, 항만, 공단
배후신도시 상업지 및
주거예정지
02)539-3232
017)310-4153
담당 : 박 수 진 (법명: 명주)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줄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부 산
◇부지 : 300평 ◇법당 : 26평
◇요사 : 38평 ◇가액 : 2억 9천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지리산 명당 소개
◆ 함양군 마천면 소재
◆ 약 2천평, 약간의 대지,
◆ 토굴(초막)
02)587-6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부항면
대야2리 787번지 정각사
◆ 법당 10평, 곡자 20평,
임법당 10평, 요사채 12평
◆ 대지 : 372평 건평 32평
◆ 가격 : 1억 3천 (가격절충)
0547) 437-1857

사찰(급) 운영하실 분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바닷가
◆부지 : 200평(대지)
◆법당 : 25평 ◆요사 : 40평(방4칸)
◆주차시설 완비, 즉시 입주가능◆
가격 : 매매·전세 가능
(담사후 절충요망- 최저가격으로 드림)
◆특징 : 감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마산 기도도량
051)291-8483
011)560-848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면에서 5분거리))
◆평수 : 대지 300평,법당 10평,
요사채 2동(삼존불, 산신각,
철성각 모셔져 있음. 용왕당)
◆사찰 경내 차량진입 가능
◆가격 : 7천 7백만원(절충가능)
0599)932-6278

토굴 안내
◇위치: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대지: 90평
◇건평: 15평
(황토흙방 3)
◇가액: 3천만원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16평 ■요사 : 20평
■부지 : 3,330평
■가액 : 1억 7천만원
●대리 및 일반인의 상담은 응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하신 스님께서 직접 상담시 성의껏 안내해 드립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수도권 및 전국 일원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양수하실 분 찾습니다.
◆ 특히 급한 사정에 의해서 사찰,암자, 불사 가능한 대지를 매매 원하시는 분
◆ 수도 정진할 수 있는 사찰, 암자를 구하시는 분
◆ 전화상담시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보안 유지합니다.
※사찰건축, 포교당 실내공사, 상담환영
좋은인연 02)561-7020
02)561-7791
한국불사연구소 018)223-731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슴.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지역내
교통중심지
◆부지 : 500평 이상(주차장 포함)
◆법당 : 31평(목조건물,단층필,3포5포)
◆요사채 : 100평, 주지실 10평,
명부전 15평(단층필)
※시설일체 무상기증, 주차무제한
※경남지역 개인사찰 또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으로 스님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해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011)885-2876/0556)672-287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10분,
삼천포 10분, 진주 30분
◆ 건물 : 40평
(요사채 3칸, 욕실완비)
◆ 사찰부지 : 400평
◆ 가격 : 매매 및 전세 상담
0344)911-1641
017)303-3114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 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11-3744

사찰터 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 20분 거리)
◆평수 : 임야 9,800평
밭 320평(준농림지)
◆용도 : 암자, 납골시설
◆가격 : 1억 2천(시세절반가)
042)525-5373
011)428-0805

사찰 안내(급)
절 양도 또는 도지 장기 임대
(실수요자 염가양도)
◆위치 : 충주댐 입구
◆대지 : 허가 700평,법당터 700평
◆요사채: 34평 (교화당, 주방,
방6개, 현대식사워장)
◆법당 : 35평 ◆밭 2,000평
◆부속물: 5층 석탑, 석가모니, 석불암,
산신각, 해수보살, 좌불상
◆임대시: 보증금3천만원, 1년 500만원
(밭경작 포함)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 (자택)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89번 버스종점옆)
◆평수 : 법당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방2,
주방, 샤워장
◆가격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
017)339-0566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5평
- 법당 약 15평(방3,선방 약27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고시원 약 30평(방 10개)
- 식당 약 8평(독채), 화장실 약 5평(독채)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고속도 신설, 서울 근린지역)
※ 직접면담(조절가) ※
0336)643-9051/012)925-6118

급, 사찰안내, 급
◆ 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부지 : 370평
◆ 법당 : 39평 ◆ 요사 : 30평
◆ 기타 : 약사여래 좌불 6자, 만경5분, 김제 10분, 익산30분, 전주 40분거리
◆ 가격 : 9천만,전세5천만,집기일체
※ 스님 장난전화 자제 합시다.
0658)542-585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만월암
밀양에서 16분 거리
◆ 대지 : 103평
◆ 건평 : 22평 신축건물
스라브 시설완비
◆ 가격 : 3천 9백 (등기필)
0542)371-1306
0542)372-5040

사찰 안내
◆경주, 울산공항 10분 거리
◆경내지 : 35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옥외석조대불 : 매가 2억3천만원
(매가 절충가능)
※ 경남 김해시 고려시대 3층석탑
(경상남도 문화재)
▶1,200평(매가 1억 8천만원)
연락처 011)9593-6670
경 주 0561)746-2162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 찰 안 내
◆위치 : 통영시
◆부지 : 1,180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 특징: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아래층 75평, 위층 25평)
◆ 가격 : 1억 9천(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교통편리함)
0458)337-6348

사찰 안내(급)
이민으로 급히, 현시세 1/3가격으로
◆ 위치 : 충주댐 입구 원효종 "불암사"
◆ 대지 : 700평(진입로 포함)
◆ 요사채 : 34평
(교화당, 주방, 방6개, 현대식 사워장)
◆ 법당, 산신각, 석굴암 합 34평
◆ 부속물 : 5층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석상
◆ 발경작 하실 분 2,000평 - 3년(300만), 5년(500만)
(귀농인 정착 희망자 우대)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자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포교원(불교교양대학) 운영하실분
◆위치 : 연화선원
(개인택시불교연꽃회 포교원)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1동
170-21
◆평수 : 5층건물 (3층) 60평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 85만원)
(시설비 면담후 결정)
◆특징 : 시설완벽
현재교양대학 운영중
053)943-4170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 법당 / 1층 -요사채
◆가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생활정보

임협중앙회 나무시장 운영

생활 임협중앙회는 나무를 심는 계절을 맞아 각종 묘목을 값싸게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4월20일까지 개장·운영한다. 나무시장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단지와 강동구 상일동 화훼단지 등 두 곳과 지방은 도청 소재지 도지회나 시·군임업협동조합 등 전국 149곳에서 운영된다.

자동차세 세율 하향조정

서울시는 시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하향 조정, 1천5백㏄급 자가용의 경우 세금부담이 연간 3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반면 주민세는 현행 4천5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올랐다.

벚꽃 관광열차 4종 운행

여행 철도청은 진해 군항제 등 각 지역의 벚꽃잔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4가지 종류의 벚꽃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진해 벚꽃관광열차는 27일부터 4월5일까지, 경주 벚꽃관광열차는 4월6일부터 11일까지 운행된다. 쌍계사 벚꽃관광열차는 4월7일부터, 전주~군산간 벚꽃관광열차는 4월10일부터 운행된다. (02)392-7788

동전없이 공중전화 걸기

통신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을 때에도 공중전화를 걸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옥의 부스의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는 '긴급버튼'→'1541' 순으로 누른 뒤 자동안내에 따르면 된다. 일반전화에서는 1541번만 누르면 된다.

강변북로 제한속도 완화

교통 서울경찰청은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70km에서 80km로 올리는 등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적용돼 온 속도제한을 완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현재 각각 시속 60km 및 70km인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과 강변북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상향 조정된다.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방송 MBC는 96년 'TV의 아카데미상'인 에미상을 수상한 수준급 해외 다큐멘터리 10부작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를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1시40분부터 1시간동안 방영한다.

△고대 이집트: 불멸에의 추구(27일) △메소포타미아: 에덴으로의 복귀(4월3일) △에게해: 아틀란티스의 유산(4월10일) △그리스: 찬란한 문명의 순간(4월17일) △마야: 왕들의 피(4월24일) △로마: 최후의 황제(5월1일) △티벳: 시간의 끝(5월8일) △아프리카: 부정된 역사(5월15일) △중국: 절대 왕권의 시대(5월22일)

물을 돈쓰듯 아껴야 할 때

나일강 주변국 20년간 물분쟁…한국도 물부족 국가

3월22일 '세계 물의 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최상이니라."〈복음경〉

불교는 예로부터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하물며 자연스레 얻어진 물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낭비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을 해치고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죄악이다. 성철스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절약의 미학'을 몸으로 실천해 보였기 때문이다.

물을 마구 쓰는 탓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이제는 "물을 돈 쓰듯 아껴써야 한다"는 말로 뒤바뀔 날도 멀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물 쓰듯 써버린 물'이 이제는 인류가 느끼는 갈증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국제연합이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의 건의를 수용해 물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달 열린 '세계 물부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WMO)는 "현재 물부족이 심각한 나라는 25개국이지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이라크, 시리아 등 나일강 주변국들은 20년간 물분쟁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수자원공사의 물절약 포스터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면서도 소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물 낭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있다. 1인당 수자원 활용 가능량은 세계 평균치의 11%에 불과하며, 부족량도 2011년이면 연간 33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5%로 나타난 매일경제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결과는 우리의 물낭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절약할 줄 모른다. 목욕탕에서는 샤워기를 마냥 틀어놓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세수한 물로 걸레를 빨아쓰는 주부는 물론 아이들에게 물을 아껴쓰라고 타이르는 부모도 찾아보기 힘들다.

사정이 이렇자 물 공급정책과 효율적 물 관리 등 수요관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 23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만으로 물 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아껴쓰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좋은 물이란 찬물에 육각수 다량함유

몸에 좋은 물은? 끓이지 않은 생수여야 한다. 끓이면 각종 미네랄이 파괴돼 생명력을 잃는다. 이상한 맛이나 냄새, 색이 없는 무색무취도 중요요건이다. 맛은 물의 온도가 섭씨 10~15도일때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으며 물을 냉각시킬수록 많이 생겨나므로 과일과 찬물을 되도록 많이 먹는 것이 육각수가 많이 든 물을 마시는 방법이다.

"동강을 살려야 한다"

시민단체·주민 잇단 집회
"개발보다 환경보전 중요"

환경보전인가 개발인가. 건교부가 추진 중이던 동강댐 건설 백지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시민단체는 반대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주민들도 댐건설논란에 빗만 늘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67%가 반대한다는 한국일보 긴급여론조사결과 등 모든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반대여론을 전하고 있다. KBS도 이를 계기로 4월 중순부터 주당 1편씩 환경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로 했다.

동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비단 댐 건설을 막는 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중함을 깨달아 생산된 물의 낭비와 누수 방지,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즐기는 관람자들의 자세변화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댐 건설반대' 시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종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는 〈법구경〉의 말씀은 이번 논란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한 경책이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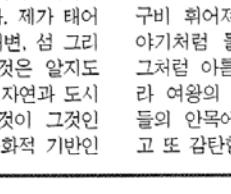
춘곤증 이기려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카페인 삼가

마냥 감기는 눈꺼풀, 아무리 눈에 힘을 주어도 역부족이다. 낮이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이상고온 현상으로 봄이 앞당겨지면서 생체리듬을 잃고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다 춘곤증에까지 도전받는 현대인. 전문의들은 봄철에 조는 이유를 겨우내 움츠리고 지내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영양섭취 부족,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대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아침을 굶고 점심때 과식하면 춘곤증을 가중시킨다. ▲가벼운 운동도 필수적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담배 등도 삼갈수록 좋다.

시론

英 여왕 안동나들이



홍기삼 〈동국대 교수·국문학부〉

"'해외로 해외로' 세계화 아니다 우리문화 알아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에 온다고 한다. 일상의 나들이가 아니라 여왕의 73회 생일잔치상을 받으러 온다는 것이다. 실로 진기한 뜻밖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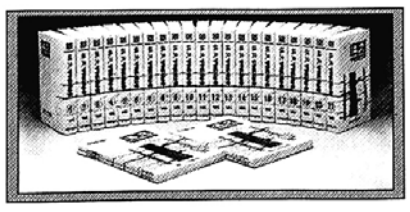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영연방 제국의 맹주였으며 거대한 식민지를 호령하던 종주국이였다. 근대사에서 이처럼 강대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인류사회에 끼친 해악도 많았고 공헌도 많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더불어 그들의 언어는 지금 세계의 공용어처럼 되었고, 세계 대학마다 영문학과라는 것을 통해 영미문학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나라의 여왕이 생일상을 받으러 우리 나라에 온다는 소식은 분명 놀랍기도 하고 진기하기도 하다. 그것도 하필이면 시설이 화려한 도시의 호텔이나 잘 개발된 관광단지의 산자수명한 명승지가 아니라 거의 오지에 가까운 안동하고도 하회마을에 온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 여왕의 생일을 축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들인가. 교통도 불편하고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도 않은 곳에 세계에서 그중 지체 높으신 여왕님이 찾아오다니 뭔가 언론의 오보같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 보도에 따르면 IMF 이전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남부여대해서 해외로 나가 돈을 뿌리며 돌아다닌다고 한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해도 기억에 평생 남기지도 못할 어린 아이들마저 부모 손에 이끌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세계를 누비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는 과연 그런 것일까. 제가 태어난 국토의 산, 강, 해변, 섬 그리고 나무와 풀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 자연과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 그것인가.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기반인 제나라 역사와 언어를 잘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의 나라 언어에 몰두하는 것이 그것인가. '민족'이 사라진 세계화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까. 세계화를 배격하자는 뜻이 아니라 세계화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영국의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고 일본의 오부치 수상이 해인사를 찾아가 팔만대장경 목판을 직접 보는 행위 속에서 우리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세계화를 도모한다는 것의 한가지 방향은 지극히 한국적인 문물을 풍부하게 갖추어 놓고 다른 나라의 그것과 교류하는 것, 달리 말하면 각 민족이 주체적 가치의 보편화라고 할만한 것들을 교환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 민족의 고유한 문화, 특색있는 예술과 전통을 스스로 무시하는 민족은 세계화를 도모할 조건을 근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민족 공동체의 와해를 우려하는 견해 등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기우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리고 세계화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는 평범한 인식과 자각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청년시절, 의조모께서 하회유씨 문중이었던 인연으로 하회마을의 옥연서당에서 자취하며 독거한 적이 있다. 마을 앞 낙동강을 건너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정자처럼 세워져 있는 집이 옥연서당이다. 그 잣방에 서애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집필하였다는 세심재(洗心齋)가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방에서 책을 읽으며 짧지 않은 기간을 머문 적이 있다. 그곳의 고요와 적막, 절벽 아래로 구비구비 휘어져 흐르는 강과 옛이야기처럼 둘러 앉은 하회마을, 그처럼 아름다운 하회마을을 골라 여왕의 행차를 마련한 사람들의 안목에 나는 그저 감탄하고 또 감탄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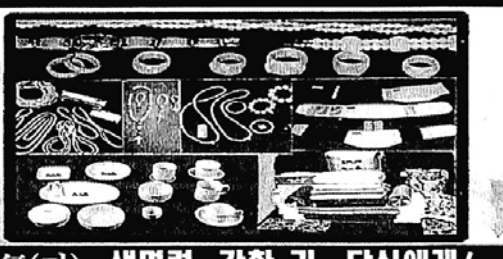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 · 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불경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 · 교재 1권)
● 비디오로 한문을 직접 배운다! ●
이래현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 한영 미디어 02)516-7500(代)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이 개발되었다.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 크기가 작아 휴대·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 사용처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이다. 사찰 판매용, 보시용, 초파일 등의 기획상품으로 다량 구입하시면 귀 단체의 이름을 제품에 새기고 도매가격으로 납품합니다.
· 색상 : 곤색, 고동, 회색 갈색, 카키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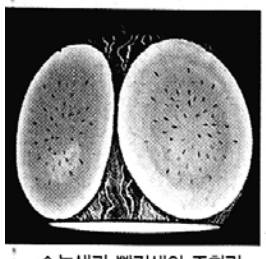
권장 소비자 가격 : 27,000원
※ 통신판매 가능. 전화 주십시오!
전국 도·단위로 총판권을 가지고 영업하실 분, 불교용품 유통업체는 연락 주십시오.
인체공학제품 개발 전문업체
"한얼휴텍(Hanol Human & Technolgy)"
TEL (02)433-7447/ FAX (02)433-7417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옥분108염주(10mm, ₩60,000)
· 목걸이 겸용 옥혼합제품
·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분에 적합
· 마음자리를 잘 볼 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소주瀉口에 전옥은 만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에서 기옥만을 직접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삐렁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02)777-0105(우리만대표)



◇녹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수박등.

수박등 만드는 법

수박등은 씨가 많아서 '다산(多産)'과 풍요를 상징하는 전통등이다.

①뼈대 만들기: 대나무를 가늘게 깎아 지름이 같은 원 6개를 만든 후, 정육면체를 만들듯이 원을 엮는다. 밑면에는 대나무를 십자 모양으로 대고 초꽂이를 만든다.

②한지 붙이기: 먼저 아래·위를 제외한 네 면의 원에 한지를 바르고 아래·위 각각 네 귀퉁부분에도 한지를 바른다.

③밑그림 그리기: 수박의 줄무늬와 씨무늬를 찍을 위치를 잡아준다.

④채색하기: 수박의 붉은 속과 껍질의 녹색을 먼저 물감으로 칠하고 먹으로 줄무늬와 씨를 그리면 된다.

부처님오신날 내가 만든 전통등 밝히자

전통등 전승공방 '우리등' 강좌

"올 부처님오신날에는 내가 만든 '전통등(傳統燈)'을 밝혀보자."

부처님오신날(5월22일)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요즘, 전통등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밝혀보려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정성들여 만든 연등보다 완제품 연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손으로 정성들여 꼼꼼히 예쁘게 만든 연등이야 말로 '등공양'의 의미를 한층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새 인사동에 위치한 '전통등 전승공방'은 전통등에 대한 문의 전화와 방문으로 눈코 뜰 새가 없다. 하루에도 수 십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올 뿐만 아니라 스님과 일반인들이 전통등을 배우겠다고 찾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다. '전통등 전승공방(02-723-0306)'은 97년 4월, 조계사에서 수박등·종(鐘)등·목어등·코끼리등 등 20여점의 전통등을 재현해 처음 선보였던 '전통등 연구모임'의 백창호씨(30)가 지난 1월 문을 연 곳. 〈동국세시기〉 〈열량세시기〉 〈경국세시기〉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노스님과 민속학자의 고증을 통해 전통등을 연구하고 있는 백씨는 "전통적인 '우리 등'을 일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공방을 열게됐다"고 밝힌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통등에 대한 관심은 98년 봉은사 전시를 거치며 부쩍 높아졌다.

"정성 담은만큼 아름다워" 외국인들도 수강 2주 정도면 '수박등' 완성

전통등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정성'의 결정체로 누구에게나 감탄을 살 정도로 아름답고 섬세하다. 그래서 지난해 제등행렬 때도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전통등'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은 15명 정도로, 이 가운데는 독일·노르웨이·일본 등 외국인 4명도 포함돼 있다. 전통등 공방에서는 대나무를 직접 깎는 것에서부터 모양을 만든 후 한지를 붙이고 채색하는 것까지 모두 손수하게 되는데, 기초과정부터 꼼꼼히 배운다면 사찰이나 가정에서도 간단한 전통등 정도는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

백씨는 "등을 제작하는 과정은 곧 신심(信心)을 표현하는 과정이자 신심을 담는 과정이므로 정확하면서도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씨는 현재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되는 월간 〈법회와 설법〉(02-720-7060)에도 전통등 만들기를 연재하고 있다.

약 2주 정도면 초보자도 쉽게 '수박등'을, 2~3개월만 배우면 '북등' '주마등' 등을 만들수 있다. 전통등 만드는 법을 배워 올 부처님오신날에는 내가 다니는 사찰과 집에 전통등으로 장엄해 보자.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인사동 '전통등 전승공방'에서 수강생들이 전통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

명사들의 건강비결 ⑨



최 동 원

〈동화사 신도회장〉

고희를 넘긴 나이에 조계종 교구신도회 중에서 홍일점으로 제9교구 동화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원 보살(76·법명 법장행). 최회장을 만나 본 사람은 누구나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얘길 자주 듣습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건강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최회장은 대구 여성계의 대모(代母)로 불릴 정도로 정당 및 사회활동 경력이 화려하다. 지금까지 대구여성경영자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20여개 단체장을 거쳤고 현재는 대구광역시 원로자문협의회원 등의 보직을 겸하고 있다. 그런 그가 마음 비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크고 넓게 보려고 하지요. 남과의 견해차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가급적 이해타산을 떠나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마음 비우고 긍정적 자세 지녀 평소 많이 걷고 전통채식 즐겨

젊었을 때 자주 다닌 등산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볼줄 아는 품새를 키웠다는 최회장은 항상 '회원들 보다 못난 사람으로서 심부름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임의 장(長)을 수행한다고 한다.

수면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 가능한 많이 걷고자 해 3~4층 정도의 계단은 가볍게 오르내린다.

"오후불식은 못해도 저녁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늦게 먹게될 경우에는 굶기도 해요."

즐겨 먹는 음식은 된장찌개와 마른 생멸치. 특히 멸치는 간식처럼 즐기며 기차여행을 떠날때는 꼭 휴대한다고. 칼슘성분이 많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은 식품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 전통음식과 채소를 가까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도 햄버거나 과자같은 서양음식은 가급적 먹이지 않는다.

최동원회장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로 조화를 이뤄가는 생활태도"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cm)

대불련 '인터넷신문' 창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가 '대불련 인터넷신문'을 창간해 4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대불련 인터넷신문'은 그동안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운영해온 '대불련 포럼'(go jgkbuf)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전국 173개 대학의 불교학생회 소식 및 교계 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사는 주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뉴스/정보 △관련 사이트 △불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독자투고 등이 서비스된다. http://www.inews.org/kbufnews



◇대불련 인터넷신문 사이트.

방송소식

btn 혜초음악회 24·31일 방영

2월27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던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기념 음악회'가 24일과 31일 오전11시30분부터 50분 동안 불교TV '32스페셜' 시간에 녹화 방영된다. 유승엽씨의 오카리나 연주와 장지현 작사, 김희경 작곡의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로 이뤄진 이번 음악회는 2일 오전9시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14일 오전1시 케이블TV 국립영상 K-TV(ch·14)에서 각각 방송되었다.

BBS 정보가이드 환경 공청회

불교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정연수의 정보 가이드'(담당PD 최윤희·매일 오후 6시15분~7시)가 24·31일 수요특집 '라디오 공청회'를 마련한다.

환경 문제를 소재로 한 이번 특집 프로는 24일 '대기오염의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점검' 31일 '영안실 비리 근절대책은 없는가' 등의 순서로 방송된다.

나무심어 맑고 푸른세상 만들기

다례원·선덕사 묘목 무료보급…삼전복지관·천중사 식목대회

부처님오신날과 식목일을 맞아 교계에 무료 묘목나눠주기와 심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다례원과 광주 선덕사가 나무묘목을 나눠주고, 삼전복지관과 천중사는 나무심기행사를 개최하며 '심청정(心淸淨) 국토청정(國土淸淨)'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례원(원장 정승연)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생명방생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4월1일부터 5일까지 갖는다. '맑고 푸르른 세상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동방원예종묘에서 묘목 3만5천그루를 협찬받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나무 살구나무 목련 무궁화 산수유등 5개수종을 한묶음으로 불자 1안당 5그루씩 무료로 나눠준다. 다례원은 나무심기로 생명방생에 나서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다. (02)428-6222~4

정승연원장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인터뷰 4면〉

승가원 삼전종합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식목일인 4월 5일 오후 1시 녹지공원과 복지관에서 '푸른 녹지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대회'를 개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현장체험과 가족단위 나무심기, 자연보호활동, 협동작품그리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02)421-6077

천중사(주지 규범)도 4월4일 오후 2시 '가족과 함께 새꽃동산 꾸미기' 행사를 갖는다. 천중사는 법회 후 가족단위로 경내에 2백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이날 심는 나무에는 심은 사람의 명패를 붙여 지속적으로 관리에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유실수 심기와 꽃밭가꾸기' 행사를 가졌던 주지 규범스님은 "자신이 심은 꽃과 나무를 마음을 가꾸듯이 할수 있는 것 같아 매우 유익하다"고 밝혔다. (02)914-3558

선덕사(주지 행법)는 '유자꽃 향기와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라는 주제로 사랑의 유자묘목 나누어주기 행사를 20일 선덕사에서 가졌다. 전남 진도산 3~5년생 분재용 유자나무를 선착순 1천명에게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062)263-4660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과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천중사 나무심기 행사.

단 신

국제워크캠프 참가 모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장 박태준) 청소년팀은 약 40여 개국이 개최하는 '99 워크캠프 참가자를 연중 모집한다.

워크캠프는 보통 2~3주 등안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고고학 조사 등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으로 개최되며, 참가자는 각 국가에서 온 18~30세 청년 10~30명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인터넷에서 국가별, 시기별, 활동별 내용을 검토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youth.unesco.or.kr/volunteer

5월2일 연꽃노래잔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서울불교청년회는 5월2일 열리는 제11회 전국 어린이찬불가 경연대회 '연꽃노래잔치'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모집부분은 독창 및 중·합창으로 유치부·저학년부·고학년부. 지정곡은 △유치부 '굴렁쇠' '누가 이쁠까' '부처님은 제일' 등 △저학년 '고요한 밤' '정다운 미소' '나의 큰 소원' 등 중·합창곡은 자유곡이다. 예선전은 4월18일 불교문화교육관 오후 2시. (02)730-9108

관음장학회 장학금 수여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회장 김정자)은 24일 제주 관음사에서 관음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남녕고와 제주공고 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씩 2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기를… 아~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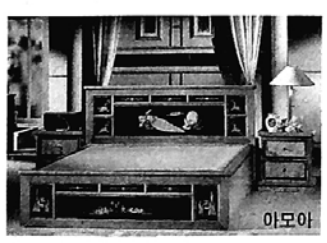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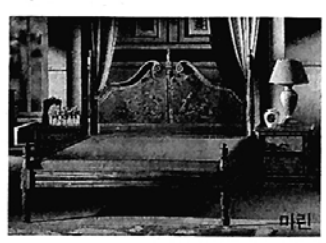


이젠 바꾸어요. 세상이 달라지게…

황토의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촉진, 피로회복, 숙면, 체온상승, 발한작용촉진, 음이온방출, 숙취해소, 과산화지질분해등의 효과가 있고, 황토의 양이 많은 침대가 원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침대입니다.

* 사찰을 통한 단체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모아


마린


체리

아~보아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써비스와 가격만족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 황토 흙침대의 명품으로 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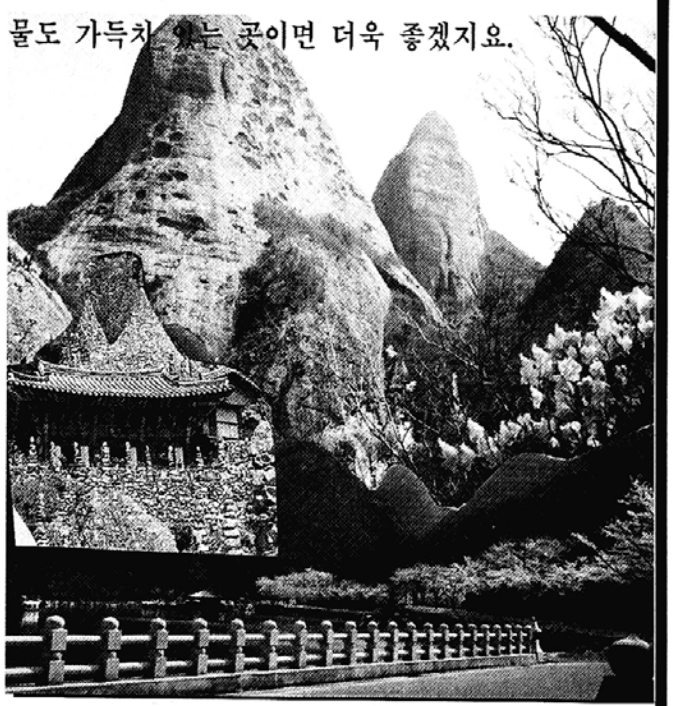
효능
하나 살아있는 황토흙을 천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황토흙의 양이 국내 최고입니다.
셋 전자파장애 Zero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넷 황토판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가되지 않습니다.
다섯 두꺼운 동판을 광폭으로 사용하며, 소비자가 직접 흙판두께 동판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침대
일곱 삼성할부금융 제휴 할부판매(최장36개월)
여덟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보아황토침대
AHBOA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희빌딩2층
고객상담실:(02)3431-0322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 0303
(0655)32-0652, 0072

■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몰·부다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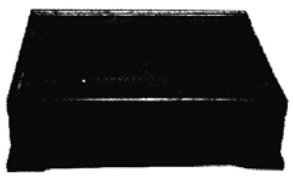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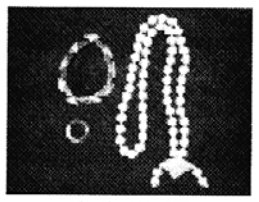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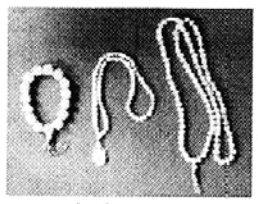
찻 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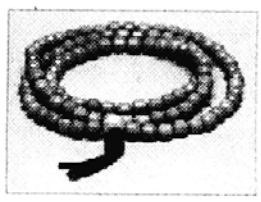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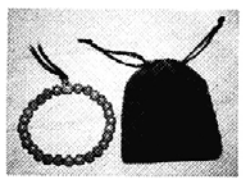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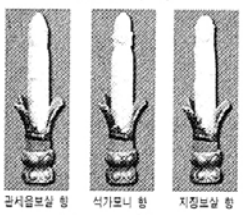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현상공덕 향

관서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촘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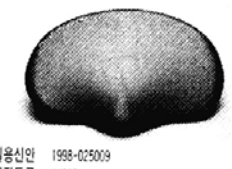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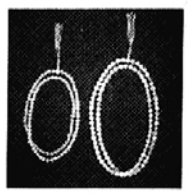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가격 ₩ 9,500 (CD)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집,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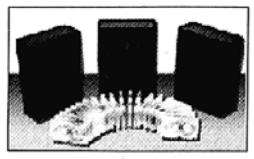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장
더블로이드 판 / 253쪽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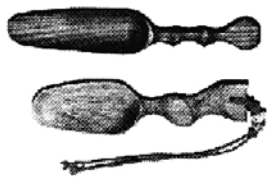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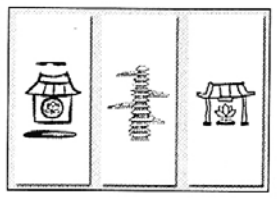
묘법연화경(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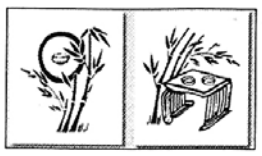
가격 : ₩ 140,000 (복장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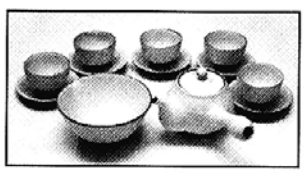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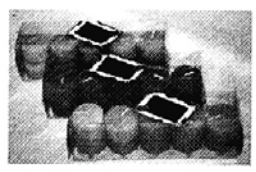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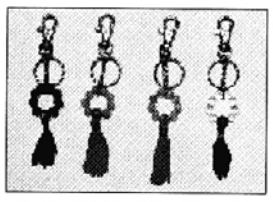
대나무 잔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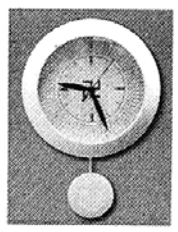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빙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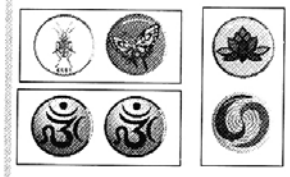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청확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珍珠佛像 및 動物像

관음상(中) : ₩ 1,146,000 /15㎝×11㎝×39㎝
관음상(小) : ₩ 836,000 /13㎝×7㎝×30㎝

소(大) ₩ 594,000 / 38㎝×12㎝×20㎝
소(中) : ₩ 458,000 / 30㎝×10㎝×15㎝

돼지 ₩ 606,000 / 35㎝×12㎝×21㎝

상품설명
1)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2)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4) 진주 채취기간 : 4~8년

호랑이(大) : ₩ 1,215,000 / 70㎝×20㎝×45㎝
호랑이(中) : ₩ 472,000 / 45㎝×23㎝×15㎝

사슴(大) : ₩ 634,000 / 50㎝×20㎝×22㎝
사슴(中) ₩ 476,000 / 31㎝×20㎝×22㎝
사슴(小) ₩ 282,000 / 18㎝×7㎝×22㎝

말(大) : ₩ 620,000 / 35㎝×11㎝×36㎝
말(中) ₩ 440,000 / 25㎝×9㎝×26㎝

토끼(大) : ₩ 486,000 / 33㎝×15㎝×16㎝
토끼(中) ₩ 418,000 / 11㎝×14㎝×25㎝

지상갤러리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롯데미술관)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녹원스님(동국대 이사장) 23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 법회. (02)2260-3016



백운스님(부산 금정사 미륵암 주지) 28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사 광덕스님 추모법회. (02)413-6060



심산(통도사부산포교원장) 25일~4월 1일 〈금강경〉 사경 및 자비도량참법기도법회. (051)807-7635



고우익 법사(대구 능인고) 27일 오후 3시 우리는 선우 법회 '포살자자와 나의 제언' (02)2278-8672



송위지 교수(외국어대) 27일 오전 10시 30분 자양 희망의집 사회재기 특강법회. (02)458-1664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3월25일 (목)

■한국전력반아회 창립9주년 기념법회=한국전력반야회는 한전본사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3456-6205 이상철

3월26일 (금)

■신영훈 인도사원 강좌=오전 10시20분 목수 신영훈씨와 함께하는 불일문화원 인도의 사원 강좌가 시작된다. (02)733-5322

3월27일 (토)

■국제포교사 연수생 선발시험=조계종포교원은 오후 3시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국제포교사 연수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02)720-7060

■포교기금마련 하루찻집=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중앙동 다전에서 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51)853-5486

■대불련 경남지부 새내기 첫걸음=대불련 경남지부는 새내기 첫걸음 대회를 28일까지 송광사에서 연다. (0591)747-0108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가 28일까지 길상사 수련원에서 열린다. (02)3672-5945

■경주 남산 불국토 순례=옛돌은 28일까지 경주 남산



◇경주 남산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불국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불국토 순례를 떠난다. 감포 바닷가와 감은사지, 경주 남산을 일주한다. (02)2266-1233

■지리산 노고단·연곡사 답사=터사랑은 28일까지 지리산 노고단과 운조루, 구례 연곡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감사원 국가정보원불자회 합동법회=감사원불자회, 국가정보원불자회, 경북도청영천시청불자회 합동법회가 28일까지 은해사에서 열린다. (0563)35-3318

■출가정신과 재가연대 심포지엄=범불교재가연대는 출가정신과 재가연대 심포지엄을 오후 6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연다. (02)725-6231

3월28일 (일)

■월정사 진부포교원 개원법회=오전 9시 월정사 진부포교원·연꽃유치원·어린이집 개원법회가 열린다. (0374)335-8853

■우리문화알리기 도자기교실=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는 통도사 서운암에서 포교와 우리문화알리기를 겸한 도자기 만들기 교실을 연다. 대상은 외국인과 관심있는 불자, 구 부산진구청 앞에서 9시에 출발한다. (051)807-7635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봉암사 순례=전국금융단 불자연합회는 문경 봉암사로 명찰 순례를 떠난다. (02)398-6464 이충훈

3월29일 (월)

■강남포교원 특별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치매증상 및 가족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실시한다. (02)539-2631

3월30일 (화)

■청화스님 초청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7시 전 태안사 조실 청화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직장법회 대표자 간담회=조계종포교원은 오후 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직장법회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한다. (02)720-7060

■청량사·희방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경북 봉화 청량산 청량사와 희방사로 참배를 떠난다. (02)2279-1191

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학생 55명에 장학금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20일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에서 문중 승가대학생, 불교대학생, 속초시내 중·고대학생 등 55명에게 총 3천3백20만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법주사 교양대학 개강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18일 제11기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했다.

50여명의 신입생을 맞은 법주사 불교대학의 강사는 문성스님(법주사 포교국장)과 강원 중강스님들이며 개설과목은 불교교리 불교문화 성지순례와 '종교와 사회' 등이다.

태고종

백련사 월해스님 진산식

서울 백련사는 제36세 최월해 주지 진산식을 4월 4일 오전 11시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봉행한다. 이날 진산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 스님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원광사 홈페이지 개설

화성 원광사(주지 화경)는 종단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태고종 원광사 홈페이지(http//user.chollian.net/~w262)'에 들어가면 △원광사 연혁 △태고총림 선암사 소개 △각종 법회자료 △태고선사와 한국불교 법통 △천수경 등 경전해설 △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등과 태고종 총무원 소식 등을 볼 수 있다.

진각종

새해 49일 불공 회향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조국통일과 종단발전을 서원하는 새해 49일 대서원불공이 7일 탑주심인당을 비롯한 전국 각 심인당에서 회향됐다.

특히 이번 49일 불공동안 진각종도들은 포교 교육 복지불사에 더욱 매진하고 1인 1제도운동 등을 통해 신교도 배가 운동에 나서기를 서원했다.

포교국장에 호당정사

성초 통리원장은 최근 문화사회부 포교국장에 호당정사(실상심인당 주교)를 임명했다. 호당정사는 진각대를 수료하고 97년 실상심인당 주교와 서울지구 공감에 위촉됐으며 지난해부터 진선여중 정교로 일해왔다.

관음종

대천대종사 열반백일재



총무원(원장 홍파)은 13일 천안 보명사에서 前 종정 대천대종사 열반 1백일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원장 혜웅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 40여명과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스님을 추모했다.

원융종

창종 18주년 기념법회

26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원융종 총무원에서 종정 일공스님등 종단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18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이날 새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륜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열린다.

총화종

부산 종무원 국난극복법회

부산 종무원(원장 김한순)은 27일 오전 10시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내 민속예술전시관에서 국난극복과 나라안정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한순스님의 총화종 부산 종무원장 취임식도 함께 열린다.

법상종

中현장법사 탄생지 답사

법륜 총무원장은 종단 스님들과 동국대 교수·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 및 법상종의 시조 현장법사 탄생지인 중국 서안 일대를 답사하기 위해 19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현장법사가 역경에 몰두했던 서안 옥화사 등과 원측법사 유적지 등을 돌아보고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무료치과진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02)852-0525

△장애인 부업제공=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재택고용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부업을 원하는 지역장애인들에게 카드제작 부업을 제공한다. (02)989-4215

△무료 이·미용서비스=신도림복지관은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631-9792

△중국차 시음회=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은 24일~25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3층 홀에서 중국 명차 시음회를 실시한다. 철관음, 오룡차, 보이차 등이 선보인다. (02)716-7790

♣ 강좌

△건강요가·서예·단소=강서 염창동 청소년 공부방에서 청소년을 위한 소금곳간 교양강좌를 마련했다. 종이접기, 한문, 영어, 건강요가, 단소, 서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3664-4453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은 7월에 있을 워드프로세서 자격2,3급 시험을 대비, 4월초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을 개강한다. (02)631-9792

△동화구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교실을 연다. 동화창작, 발표력 향상을 기하게 된다. (02)852-0525

△늘이로 배우는 영어교실=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서는 놀이로 배우는 영어교실을 연다. (051)405-5223

△꽃꽂이 자격증반=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꽃꽂이 자격증반 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월 1만5천원. (062)266-3853

△명상교실=강북장애인복지관은 4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명상교실을 연다. (02)989-4215

△선체조=법련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층 선방에서 선체조를 실시한다. (02)733-5322

♣ 모집

△소쩍새마을 후원자·자원봉사자=소쩍새마을에서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현금후원을 하거나, 물품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02)928-0750

△어린이 한문교실 자원봉사자=정혜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한문교실을 지도해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903-1918

△장애인 학습지도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교육을 지도해 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헌옷 후원자=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 후원을 기다린다. 모아진 헌옷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062)266-3853

△자광원 후원자=불우노인복지시설 자광원에서는 후원자를 모집한다. (0342)759-4209

△도시락배달 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결식노인과 아동을 위한 도시락배달 후원자를 모집한다. 현금후원 5천원 이상, 물품후원은 직접 만든 밑반찬. (02)817-8052

△가사보조원=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5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보조원을 모집한다. (042)633-1141

△보리수어린이법회·사라수중학생회 회원=진주불교회관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불교신행활동을 함께 할 보리수어린이법회와 사라수중학생회 회원을 모집한다. (0591)747-0108

△상담이용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뇌졸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이용자를 모집한다. (02)989-4215

△편집부 직원=민족사는 편집부 직원을 모집한다. 경력 2년이상자로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02)732-2403

♣ 화촉

△동국대 송석구 총장의 장녀 송문정양이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호텔엠베서더 2층 웨딩홀에서 전용우씨와 화촉을 밝힌다.

△진선여고 심학교사 최선혜씨(전 주간불교 기자)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만리장성 3층에서 최용석씨와 화촉을 밝힌다.

바로 잡습니다 213호 21면 신행캘린더의 등만들기 관련사진은 전통등연구회 작업과정 사진임을 밝힙니다.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 교재 - 사주정해 1권·2권
저자 최 학 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시간과 좌석 관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 강 일 시 ◆
1999년 3월 30일 오전 10시
◆ 기 간 ◆
주2회 매주 화, 목 오전 10시(3개월 과정)
◆ 장 소 ◆
보 현 정 사
보 현 정 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매월 2·4주에는 정기적으로 주말 수련회가 열립니다.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 (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 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 (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저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자 5치)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 협 045-01-202971
우 체 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예금주 :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실기훈련을 위주로 하는
說法 강의

성격개조·교수기법·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이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한다.
○이론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개조,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강의, 강연, 연설, 주례사,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기타 설법에 필요한 모든 것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개 강 : 1999.4.8(목) 오후 7시
▶ 모집인원 : 10평내외 (수시접수)
▶ 장 소 : 설법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 문의 및 신청 ♣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군법사 행동수칙 13 군승단보 게재 눈길

육군 76사단 김갑영 군승법사는 〈군승단보〉 최근호에 기고한 〈신자관리 소고(小考)〉라는 글을 통해 장교와 그 가족, 사병, 민간인 등 신자 관리를 위해 법사가 갖추어야 할 13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동수칙은 ①여법하게 행동하라 ②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말라(조석예불, 간경, 기도의 일상) ③예하부대 및 사무실을 순회 방문하라. ④계급에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라. ⑤하심(下心)하라 ⑥상황에 맞게 복장을 착용하라 ⑦능력 및 특기를 최대한 활용하라 ⑧재정을 투명하게 하라 ⑨타 종교와 화합하라 ⑩출장시 보고하라 ⑪군종관련 문서를 열람하라 ⑫군종병 교육을 철저히 하라 ⑬경·조사 기념일을 챙겨라 등.

군법당 건립 불사 '활기'

비승사·대성사 등 7곳서 낙성·기공
청장년 불자 '포교 전초기지' 기대 커

따사로운 봄 햇살이 군법당에도 비치고 있다. IMF관리체제와 조계종사태 등 교계 내외의 시련과 군포교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최근 군법당 낙성식과 기공식이 잇달아 열리고 있어 21세기 미래 불교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육군 황소부대 보통정사와 항공사령부 비승사가 잇달아 낙성식을 갖는 것을 비롯 27사단 호국대성사와 육군 특수전학교가 법당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7개 군부대에서 법당 건립 불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황무지나 다름없는 군포교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황소부대 보통정사(군승법사 범행)는 21일 후불탱화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1년5개월여에 걸친 법당 신축불사로 군승단 창단 이래 대대급에서는 처음으로 1백8평규모의 군법당이 선을 보인 것.

이날 법회에서는 그간 보통정사를 후원해 온 조계종춘천시승가회 정불회 녹운회 도반회 등 지역 스님·재가불자 5백여명이 동참해 기쁨을 함께 했다.

비행접시 모양의 이색 군법당으로 화제를 불러모은 항공사령부 여주 호국비승사(지도법사 차춘호)는 오는 31일 오후2시 낙성식을 개최한다. 전체 51평 규모로 1백50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이 법당은 원형의 외벽에 황토흙으로 외벽처리를 하는등 독특한 형태로 군법당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훼불사건으로 잘 알려진 육군 특수전학교 백마호국사는 21일 1백10평, 2백명 수용규모의 법당 착공식을 거행했다. 박의진·최성문 법사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마호국사는 봉은사 신도회(회장 조선환)와 거사회(회장 최호중), 불교대학동문회(회장 강동원), 구역법회(회장 불심화)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불사가 진행중인 점이 특징.

또 27사단 호국대성사 역시 지난 4일 법당 신축불사 기공식을 거행, 요사채와 2백여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설법전을 갖춘 연건평 1백20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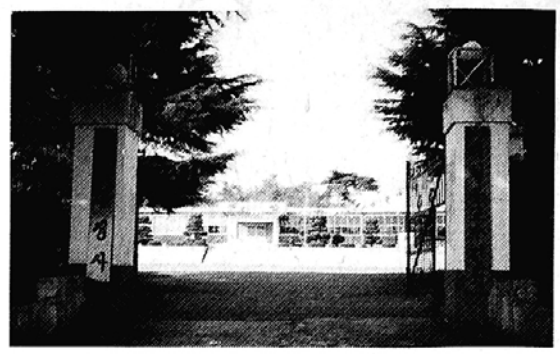
이밖에 해병사령부 쌍용사(군승법사 김광태)가 8월경 연평도에 1백여평 규모의 군법당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 군수사령부 제5탄약창 호명사가 1백평 규모의 법당을, 육군 22사단 운학사(군승법사 김정식)가 신교대법당 건립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군법당 건립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해 종단 및 불자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군법당 건립불사는 청·장년 불자들을 배출하는 전초기지 건설이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군법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더불어 불자들의 신심과 후원 역시 예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여서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 하심정사 꽃지촌



◇경남 창녕에 불국토 불지촌을 건립중인 하심정사 전경.

미혼모의 집 '불모원' 건립

경남 창녕 조계종 하심정사(주지 백록)는 前 모전초등학교를 인수하고 대단위 불지촌을 건립중이다. 하심정사는 불지촌을 부처님 나라 불국토처럼 불우이웃과 불자들을 위한 신행공간으로 쓰여지게 한다는 것.

불지촌에는 미혼모들의 집 불모원을 비롯하여 천불전 시민선방 영상자료실 불교도서관 불교조각공원 불교수련원이 마련된다.

특히 하심정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불사는 미혼모의 집 '불모원(佛母院)'이다. 이를 위해 21일 불모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겸함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천불전·시민선방도 추진
땅 1평 사기 운동 전개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1백명 수용규모의 불모원은 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수용 새생활을 찾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심정사 주지 백록스님은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나날이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를 수용하는 시설이 교계에 전무하다"며 "미혼모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불모원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재 미혼모를 수용 교육하는 미혼모의 집은 8개소이며 모두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가용인원도 3백4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모원은 불사가 준비되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한편 불지촌이 완공되면 365일 언제나 개방하는 시민선방과 영화 사진 비디오 슬라이드 물을 비치할 영상자료실, 불교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불교도서관을 갖출 계획이다.

또 토론 세미나 법문을 위한 강의실, 불교조각공원, 불교상설미술관, 장기간 재도약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공간 불교수련원도 들어선다.

이와함께 불자들의 기도처인 천불전 불사도 진행되고 있다. 천불전에는 석가모니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각 5백40불씩 1080불이 모셔진다. 천불전의 1080불은 1인1불모시기 개인원불로 조성된다.

이를위해 하심정사는 5천평 부지 마련을 위해 불지촌 땅한평(1구좌 5만원) 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땅한평 사기운동 동참자는 5천명으로 한정하며 법원의 등기부 등본에도 등재할 방침이다. (0559)532-1080

불교 생협학교 연다

교계 20개단체 도농공동체본부 설립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이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도농공공체 운동이 펼쳐진다.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상사와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화계사 석왕사 수원포교당 영화사 우리는 선우 대불련 총동문회 청정국토 만들기 운동본부 등 20여개 사찰과 단체는 17일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회의를 갖고 올 하반기 발족을 목표로 '도농공동체 추진본부'를 발족키로 하고 그 첫사업으로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자들은 30일과 4월1일, 6일, 8일 네차례에 걸쳐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키로 하고, 생협운동이 갖는 불교적 의미, 생협운동의 이념과 역사, 전망, 조직운영 등 5개 강좌를 마련해 생협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생협운동의 대중화를 우선 추진키로 하는 한편 도농공동체 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4월중에 발족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결식아동돕기 공연

화엄불교대 전주KBS 총국

전주 화엄불교대학과 KBS전주방송총국은 31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결식아동돕기 장사익소리관 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수익금은 전액 결식아동돕기에 쓰여진다.(0652)232-0325 김원우 기자



◇9일 좌탈입망한 기산스님.

기산선사 좌탈입망

호랑이 입승으로 알려진 재기당(在奇堂) 기산스님이 9일 오후 10시 25분 고창 선운사에서 좌탈입망〈사진〉했다. 세수 74세, 법납 60세.

스님은 1938년 선운사 운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46년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1년 해남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해인사 상원사 통도사 범어사등 전국의 제방선방에서 입승을 맡아 30안거를 성만했다.

다비식은 12일 선운사 다비장에서 거화됐으며, 49재는 26일 오전 10시 선운사에서 봉행된다. (0677)561-1422 김원우 기자

건봉사 복원 추진위 발족

위원장 설산스님…만해시비·사명대사비 조성키로

구한말 민족 계몽운동등을 펼쳤던 건봉사 역사를 되찾는다.

금강산 건봉사(주지 해장)는 1927년 이후 사라진 사찰역사를 복원키로 하고 3월말까지 건봉사역사 복원추진위를 결성키로 했다.

건봉사 출신인 정토사조실 설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만해스님 법손인 법천스님을 비롯하여 황종국 고성군수, 윤영락 고성군의회 의장, 이병찬 고성문화원장등 주요기관장과 조영암 김덕명 어성훈 배선희시인등이 참여한다.

추진준비위는 8일 설산스님 주재로 첫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10월경에 건봉사 출신인 만해 한용운 스님, 명암 조영출 시비와 사명대사 사적비를 세운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만해스님은 금강산 건봉사에 출가 수행하였으며 봉명학교를 세우고 민족사상 계몽교육을 실시및 건봉사지를 저술하기도 했었다.

또 명암 조영출시인(불명 重蓮)은 만해스님의 손상좌였으며 '글을 쓰되 손글으로 쓰지말고 마음으로 쓰라'는 가르침을 받고 건봉사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신라의 달밤' '낙화유수' '천리길' '서귀포칠십리' 등 487곡의 가요를 작사했다. 명암시인은 1948년 월북하여 1994년 그곳에서 사망했다.

건봉사 복원추진준비위는 잃어버린 건봉사 역사의 복원을 위해 명암선생의 시 '적멸보궁' '건봉사'를 찾고 있다.

김원우 기자

초파일 대구봉축행사 확정

5월 15일 동화사 음악회 16일 연등제

부처님 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는 17일 오전11시 동화사 동별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주요 봉축행사일정 및 예산규모를 확정했다.

5월 4일 오후7시 대구백화점앞에서 봉축연등탑이 점등되며 16일 오후2시부터 두류야구장에서는 연등축제가 열린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7시 동화사 통일대불앞에서 막을 올리는 동화음악회는 동화사와 대구MBC가 공동 주관하여 일반인에게도 열린 음악회로 개최된다.

특히 부처님의 탄생을 춤과 음악으로 형상화하는등 불교색채를 띤 프로그램을 다수 가미하여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음악회는 첼리스트 법현스님을 비롯 승려음악가와 대중가수가 대거 출연하여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은해사 금고등 3점 지방문화재 지정

경북도는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의 청동제 금고(金鼓)등 불교문화재 3점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금고(307호)는 1646년 팔공산 수도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무게 1백90근에 직경 77.2cm, 두께 12.7cm. 모양은 징과 비슷하고 두드리는 면에 당좌(撞座)가 있고 그 둘레에 연화문과 당초문 등의 돌출 문양이 장식돼 있다.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에 있는 약사여래좌상과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입상은 지방유형문화재 308호로 지정됐다. 약사여래좌상은 높이 1백53cm, 너비 1백16cm로 결가부좌를 하고 있고 각종 문양이 유려하며 관세음보살입상은 높이 1백87cm, 너비 54.5cm로 화문(花紋)과 화관(花冠)이 화려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산사 종회의원 내달 보선
선관위 간사에 도현스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사 교구 보궐선거를 4월중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정우스님의 의원직 제명에 따른 통도사 교구 보궐선거는 보류키로 했다. 율원과 행정직능 보궐선거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율원 직능대표 보궐선거는 월서스님의 호계원장 취임, 행정직능대표 보궐선거는 현근스님의 제명에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공석중인 선관위 간사에 도현 스님을 선출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9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자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비지정 성보 보존대책 시급

순천 선암사등 후불탱화 도난
남원 도로확장으로 마애불 훼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불교유산들이 잇달아 도난·훼손되고 있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양산 내원사 노전암(주지 ○인)에 7일 괴한 4명이 침입해 후불탱화를 노렸는가 하면,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에서는 16일 대웅전의 후불탱화를 도난당했다. 또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에 소재한 마애여래좌상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크게 훼손됐다.

노전암 '석가모니' 후불탱화의 경우 다행히 방탄유리에 보관해 놓았고, 능인스님등 3명의 비구니스님들이 괴한들과 대적해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가로부터 5㎞ 떨어진 외진 곳에 노전암이 위치해 있고, 양산경찰서는 여지껏 용의자 탐문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도난 위험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선암사에서 도난된 후불탱화는 1765년에 제작된 가로 5m 세로 3.7m의 '영상회상도'. 순천경찰서는 탱화의 무게와 크기로 미뤄 차량을 동원한 문화재전문 절도범의 소행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지난해 2월경 응진전과 불조전 탱화 3점을 도난당한 전례를 가지고 있고, 당시 사건 수사도 순천경찰서에서 전담했지만 절도범과 탱화를 찾지 못했다.

전북도가 삼성물산에 맡겨 남원-주천간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서 멸실 위기에 놓인 '마애여래좌상'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고려초 새겨진 높이 117㎝ 폭 94㎝의 마애불 주변은 이미 파헤쳐져 복구불능의 상태로 파괴됐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여서 공사를 진행시킨 후에야 마애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향토사학자들은 10여년전 남원문화원에서 돌표지판을 세웠고, 이 지역 지명이 '부처모퉁이'인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불교문화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지정문화재'라는 것.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법적 보호와 관리가 소홀하고, 회수율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을 검거해도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라 도난사고가 빈발한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사찰에서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해당문화재의 영상 및 문헌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정치수배 해제"
고산스님, 김대통령에 건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구정권하 정치수배자들의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고산스님은 건의서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이란 미명하에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음에도 정치수배자들의 수배생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수배조치의 해제야말로 인간존중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동서화합 운동본부 4월 창립
타종교와 연대 '지역감정 해소' 전국운동 전개

망국적이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해결을 위한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가 창립된다.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창립준비위(위원장 진관스님)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4월경 공식창립식을 갖고 동서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요사업으로 교구본사차원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동서화합위한 수행책자발간, 신행단체와 사찰간 교류확대, 세미나를 통한 동서화합의 불교이념정립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타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동서화합의 전국적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날 동서화합추진위는 '정치권에 보내는 글'을 채택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족단합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 정치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봉원사 순환도로 건설 취소

신촌 봉원사 경내를 관통하는 안산순환도로 추진 계획(본지 208호 2면 기사 참조)이 취소됐다. 봉원사(주지 인공)는 서대문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순환도로 건설이 전통사찰인 봉원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왔다.

봉원사 뿐 아니라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옥교수(철학자), 이영덕 전 국무총리,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 등 30여 사회지도층 인사들 역시 '안산순환도로 개설 저지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안산의 중허리를 뺑 돌려 도려내는 이 순환도로는 주택지역을 공해와 소음에 휩싸이게 할 뿐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산림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봉원사 등 지역 사찰과 주민, 학생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서대문구는 14일 "환경훼손의 위험이 있다면 순환도로 건설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교인권문화제 추진
실천불교승가회 6차 정총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12일 남양주 흥국사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갖고 회관건립 등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불교인권문화제 개최, 재가와 연대하는 불교공동체 발족 등 사회환경 통일 인권 운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주요 사업은 △ 4·10 5주년 기념종책토론회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개최 △한국현대불교운동사 발간 △'새로운시대를 열어가는 불교공동체(가칭)' 창립 지원 등이다. 김원우 기자

스님 7명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맨발만행



스님 8명이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통일을 기원하며 맨발로 순례하는 국토순례의 대 장정이 시작됐다.

남한국토 2천8백리를 장장 33일간에 걸쳐 순례하는 제4회 평화통일 기원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맨발국토순례 입재식이 18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순례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진성 덕암 청학 홍전 해명 송암 법인 스님 등으로 4월19일 오전 11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회향한다. 이 순례는 현대 프로덕션(실장 김인기)이 동행 영상에 담는다. 이경숙 기자

뉴스 & 뉴스

30일 신행단체장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30일 오후 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직장직능 신행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인불자회, 한국동신불자회, 지하철법우회, 방송인불자회 등 30여개 단체장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날 간담회는 각 단체 법우회 활성화 방안과 종단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도필선 기자

日 조동종 종정 24일 방한

일본 조동종 종정 이따하시 꼬우슈우 스님이 고불총림 백양사 서옹스님과의 면담을 위해 24일 방한한다. 꼬우슈우스님은 25일 백양사를 방문해 21세기를 맞는 한국과 일본의 선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옹스님과 대담을 나누고 이어 중앙승가대 불교TV, 불교복지관, 길상사 등을 방문한다. 26일 오후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도 예방한다. 이경숙 기자

'깨·사'를 '자비의 대중화'로

조계종총무원이 전개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자비의 대중화'로 명칭을 바꾸고 이미지 변신과 새로운 실천운동 모색에 나섰다.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등 3원장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등은 16일 총무원 청사 정문에서 '자비의 대중화' 현판식을 가졌다.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 총무원 출범에 따른 이미지 변신과 함께 불교정신을 국민대중에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금산사서 영호남 교류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주지역회(회장 최병익)는 25일 오후1시 김제 금산사에서 영·호남 운전기사 등 불자 5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전국 21개 운전기사 불자연 지역회와 23개 신행단체 회원과 지도법사, 지역유력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 하는 이날 법회는 단체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한민족 공동체로서 서로 화합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찬21세기 새 천년을 이룩하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btn 1천원 모금운동

불교TV(대표이사 신허스님)는 17일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제5기 불교TV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1천원 모금 및 주주 1인당 10명 후원인 모집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3명의 이사와 2백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신임 이사로 청안스님(예천 용문사주지)과 정휴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선출하고 임기가 만료된 다섯 명의 이사를 재선임했다. 또 98년 손실금인 36억여원에 대해서도 항목별 보고를 거쳐 승인했다. 김주일 기자

봄기지개 펴는 신행단체들

우리는선우 - 시민선우회 활동
불교신행硏 - 티벳스님 지원
염불만일회 - 대발심 성지대회
맑고향기롭게 - 결식아동 후원

겨울동안 움츠렸던 신행단체들이 새 봄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신행혁신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선우회 활동을 시작한다. 종교편향대책·인권·통일·생명·환경운동 등에 관심을 갖고, 불교신행활동을 사회적으로 회향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와 불교귀농학교 등 교계단체 지원연대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행하는 티벳 스님들의 교육지원과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 등 새 사업을 전개한다. 또 군불교 진흥을 위해 〈법공양〉에 군법사들의 글을 매월 한 편식 실어 군불교의 현황을 알리고, 염주 보내기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불교용품과 기념품 개발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결식아동 후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 54명의 결식아동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해온 생태기행과 실직자무료급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국 지회에서도 생태기행과 환경지킴이활동, 장애인후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맑고향기로운 세상 만들기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해장스님·보광스님·김재일)는 상반기중 산스크리트어 〈아미타경〉을 번역발간하고, 8월 초 건봉사에서 대발심 성지대회를 연다. 또 9월에는 정토학회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지난해에 이어 염불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목탁소리

대불청의 내우외환

김 정 은 〈취재 1부 기자〉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회장 불신임' '회장 1인 집권체제(?)' 등 지난해부터 불거져나온 내부적 갈등과 최근 조계사 '중앙사무국 봉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은 25만명의 회원을 갖춘 '한국불교 최대의 청년조직'이라는 대불청의 자존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월 선출된 이상대 회장은 '독단적 운영'을 이유로 대의원들로부터 탄핵 압력을 받고 있다. 정관개정과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청년회원들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 사태와 관련, 현 총무원의 심기를 건드려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중앙사무국 봉쇄' 조치는 조계사에서 내세운 '사찰내 승풍 진작'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스스로 길들여져 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억울해할 일만도 아니다.

대불청은 '70년의 역사' '25만 전국회원'을 자랑하지만 회원들의 회비조차 제대로 걷히지 않아 매년 조계종 지원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재가단체의 위상정립에서 '재정적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 이해관계에 얽혀 대립하고 있는 고질적인 '알력다툼'도 대불청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다. 화합하지 못하는 집단은 스스로 좌초된다. 지금의 '내우외환'을 습기롭게 이겨내고 한국 최대의 청년조직으로의 다시 자리매김하는 대불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jekim@buddhapia.com)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괴돈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 달 의 책

회쟁론(廻諍論)



용수 지음/ 김성철 역주
A5신 하드커버 402쪽
값 16,000원
경서원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인 『중론』의 법공(法空)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술된 회쟁론(廻諍論)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범어·티베트어·한문 대역이므로 이 역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알 수 있다. 공(空)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공(空) 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닌가" 하는 따위의 비판에 대해 치밀하게 해명하고 있는 회쟁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하겠다.

한국 건축 미술사 초고



고유섭 지음
A5신 하드커버 320쪽
값 12,000원
대원사

일제 강점기에, 우리 나라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우현(又玄) 고유섭이 20대에 쓴 원고를 후학들이 정리하여 묶은 것인데, 우리 건축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연구서이다.
상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건축학도나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수미산



고은 지음
A5신 1·2 각 336, 404쪽
값 각권 6000원
대원정사

현대불교신문에 4년 가량 연재한 것을 묶은 장편소설. 이 소설이 말하는 수미산이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산은 무시공간적(無時空間的)으로 실재하는 산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사바 또한 수미산의 한 귀퉁이일 수밖에 없고 보면, 따라서 이 소설은 수미산을 배경으로 해서 중중무진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인간의 얘기인 셈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곧 수미산이다.

티베트의 지혜



소갈 린포체 지음
오진탁 옮김
A5신 하드커버 634쪽
값 20000원
민음사

티베트에서 태어난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 가운데 하나인 소갈 린포체의 삶과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으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멸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런 성취의 순간임을 일깨워 준다.

원효



남동신 지음
A5신 348쪽
값 10000원
새누리

원효라는 산의 높이와 넓이는 과연 얼마일까? 수많은 사람이 오르고 또 올랐지만 여전히 미답의 공간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사료의 절대 부족과 신비화된 대중적 이미지 때문은 아닐까?
이에 역사학자인 지은이는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보편적 사유 체계로서의 원효 사상을 밝히고, 거사의 모습에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형을 찾아나간다.

우리 시대 건축 이야기



김원 지음
A5신 하드커버 382쪽
값 18000원
열화당

"건축가 김원의 개발시대 현장 읽기"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한국 현대 건축의 현장에서 몸으로 쓴 책이다. 그런 만큼 땀 냄새가 흠뻑 배어 있다. 그렇다고 공사판의 분위기를 옮겨 놓은 책은 아니다. 오히려 '풍수지리'나 '종교'를 건축과 연결시켜 언급할 만큼 인문학적 천착이 깊다. 우리의 건축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새로운 '눈뜸'을 가능하게 한다.

위빠싸나 33일



법산 엮음
A5 반양 296쪽
값 7500원
우리출판사

제목 그대로 33일에 걸쳐 위빠싸나의 세계로 인도하는 수행 지침서이다. 마치 엄굴을 마주하고 가르침을 주고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자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끝에, 수행 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질문 응답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어, 선지식을 가까이할 수 없는 형편의 불자들에겐 아주 반가운 책일 것 같다.

경허



김종광 지음
A5신 360쪽
값 10000원
민족사

근세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 스님의 걸림 없는 삶과 위대한 깨침의 세계를 평전 형식으로 담은 책이다.
지은이는 경허 스님의 삶을 통해 두 개의 화두를 타파하려고 하는데, 존재의 본질과 그 실상을 깨닫는 것이 제1의 화두이고, 새 천년의 패러다임 제시가 제2의 화두이다. 새 천년의 패러다임을 선(禪) 사상에서 찾고 있다.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존 카터 코벨 지음
김유경 역어 옮김
A5신 414쪽
값 17000원
학고재

미국 출신의 동양미술 사학자가, 타자기를 삼과 곡령이로 삼아 캐낸 한국 문화 발굴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자로서의 엄정한 사실 추구 정신이 어우러져 있어 재미와 품격을 함께 느끼게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열린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를 알려 주는 값진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세간의 도리로 심지(心地)를 밝힌다

죽창수필(竹窓隨筆)



운서 주굉 지음, 연관 옮김
A5신 264쪽/ 불광출판부

책탐(冊貪)이 깊다 보면 가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사할 때의 곤욕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참으로 좋은 책을 만나고는 혼자만 봤으면 좋겠다는 식의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여간 씁쓸하지 않다. (어디 그럴 수 있는 책이 있기나 할까만.) 그러나 이 책 『죽창수필』에서는 책 읽는 기쁨에 더하여 책 권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는, '불교 책들은 너무 어렵고 고루해' 하는 따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책을 앞세워, '정말 당신은 불교 책을 몇 권이나 읽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책 고르는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며 공박까지 해댔으니 자랑치고는 좀 넘쳤다 싶다.
『선관책진』으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된 운서 주굉(1535~1615) 스님이지만 이 책 『죽창수필』에서는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붓 가는 대로 쓴 듯한 400편이 넘는 이야기가 주는 형식적 친근함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뜻의 웅혼함은 배어난 문장가라도 감히 다가서기 힘든 경지를 보여 준다. 간절한 참구를 당부하는 한 구절을 보자.

무심히 던진 듯한 말 속에 담긴 골계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능히 뛰어 넘는다.

"지금은 우선 입을 다물고 다만 본참화두(本參話頭)를 향하여 온 힘을 기울일 일이다. /다만 깨닫지 못한 것을 근심할 뿐, 깨달은 후에 말할 줄 모를까는 염려할 일이 아니다."
'지극한 말은 꾸밈이 없다'고 했다. 스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 그러나 그 격은 마치 해산과 같아서 요란스런 몸짓 없이도 붓산을 조복받는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죽창(竹窓) 아래서 글을 써 내려 가는 스님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본다.
"사바로 열린 적멸의 공간."
분명 스님의 죽창은 사바로 열려 있다. 책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간의 도리에 대한 스님의 견해가 그것을 증명한다. 세속의 애증에 대해서도 스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뻐할 일이 아니요, 미워한다고 해서 꼭 상심할 일도 아니다. 꿈 속의 일이나 허공 속에 핀 꽃과 같이, 본래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만날 때는 현대인을 위한 잠언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무심히 던진 듯한 말 속에 담긴 골계미는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능히 뛰어넘는다.
본명 이 책의 요점은 심지(心地)를 밝히는 데 있다. 하지만 세간의 도리를 통해서도 불법의 정수로 들게 하는 독특한 매력이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틈 나는 대로 보고 또 볼 생각이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출판 예고

유식의 개요와 형성 배경 등 '유식'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

『유식학개론』

(이만 교수/ 민족사)

"그대 앞에 놓인 사물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없다고 하자니 있고, 있다고 하자니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언어가 진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유식(唯識)에 이르면 언어표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식학은 쉽게 말하자면 불교의 논리학이요 심리학이자 인식학이다. 유식학이 난해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달 하순경 나올 『유식학개론』은 유식의 개요와 형성 배경, 학문으로서의 위치, 유위·무위법, 수행론 등 유식 전반을 다룬 학술서다. 일반적으로 유식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교에 원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강단에서 '유식학'만 가르쳐 온 저자가 경험과 깊이를 토대로 체계적 설명을 통해 '유식'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어 '유식' 입문자에게는 안내서로도 제격이다.
저자 이만 교수는 "유식사상의 체계적인 논리와 심도있는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다"며 "꾸준히 탐구하다 보면 유식이 일상의 삶 자체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실학철학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잡만 독서



마음 닦기

목산대불 지음
A5신 하드커버 286쪽
정신세계사 값 12,000원
CD 부록 포함

'8만 사천 법문'이나 '1700공안'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많다. 이는 '근기'라고 하는 중생 저마다의 눈높이를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어려움을 반증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갖가지 수행법이 나름대로 최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심지어는 조계사 주위의 길가에 "10일만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어떤 수행법 공개 강좌의 선전 문구가 버젓이 나붙는 걸 보면,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만병통치약 같은 수행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붓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시공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상과 발전의 성과들을 수렴, 하나의 수행 시스템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주장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방법적 새로움을 제시한다. 붓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시공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상과 발전의 성과들을 수렴하여 하나의 수행 시스템으로 재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를 〈수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samatha), 관(觀, vipassana), 환(還), 정(淨)〉의 여섯 단계로 나누어, 수행의 완성에 이르는 방법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다만, 불교라는 신앙 행위와 별개로 방법적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은이의 수행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장호승 지음/ A5신 반양/ 144쪽
실림원 마냥/ 값7000원

이 책을 말한다

어른이 읽는 동화 『연 인』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 주는 사랑의 노래

내 삶은 외롭고 지루해.
그건 고통이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푸른북눈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주는
검은북눈의 사랑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
참된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한영우 기자

봄으로 가는 하늘은 때로는 시리도록 파랗다. 그 하늘로 우리들의 슬픔과 외로움은 정처없이 떠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그때 어디에선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운주사 대웅전 서쪽 처마끝에 달려 있는 풍경이야. '푸른북눈'이라는 예쁜 이름도 있어. 내 소리는 대웅전 뒷산 바위 틈에 자란 풀잎 위에도 앉고, 부처님께 올리는 밥그릇에도 가 닿는단다. 봄날에는 대밭에 죽순 올라오는 소리를 내고, 가을에는 낙엽에 서리 앉는 소리를 내고, 겨울에는 눈 내린 오솔길을 걸어가는 쓸쓸한 인간의 발자국 소리를 내기도 하지. 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스님들도 한두 분이 아니야.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한단다."
'그런 푸른북눈에게는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을까?' 생각을 채 마치기도 전에 푸른북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삶은 외롭고 지루해. 그건 고통이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푸른북눈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 주는 검은북눈의 사랑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 참된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북눈은 마침내 비어(飛魚)가 되어 자유를 얻었다.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또 날았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흰물새떼 생각으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친구를 잃은 시인을 만나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 시청 옥상에서 비둘기와 함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가 된 유치원에 다니는 다솜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기까지 했다. '봉어찜' 집과 낚시꾼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온갖 고생으로 상처난 몸을 아끼고 검은북눈에게로 날아간 것은 조계사에서 만난 화가가 보여준 검은북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운주사 그림을 보고 나서였다. "난 여길 떠나기만 하면 더 나은 삶이 주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답습된 형식의 삶이라 하더라도 진실된 사랑만 있다면 그것이 곧 창조적인 삶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
운주사 풍경으로 매달려 사는 삶과 현재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푸른북눈이 비어(飛魚)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니다 갖은 시련 끝에 다시 풍경으로서의 삶과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인』(열림원 펴냄). 여기에서 우리는 푸른북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 가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사랑의 풍경소리를 찾아가게 된다.
저자 정호승 시인이 끄집어 낸 풍경소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각의 울림으로 와 닿는다. 모자람 없는 것 같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울려퍼지는 사랑의 노래로 들린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연인』은 겨울 끝에 걸린 풍경소리에 시린 걸음을 멈추게 한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 부처님 오기일을 맞으며

❶ 붓다 그 생애와 가르침 — 마스다니 후미오 지음, 반영규 옮김/ A5신 272쪽/ 대원정사/ 값 6,000원
❷ 시작하는 마음 — 일타 스님 지음/ A5신 340쪽/ 효림/ 값 5,000원
❸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 강의, 박수일 엮음/ A5신 464쪽/ 정토/ 값 8,200원
❹ 부처님 말씀 — 성열 옮김/ A5신 596쪽/ 현암사/ 값 15,000원
❺ 효봉 — 김용덕 지음/ A5신 244쪽/ 불일/ 값 6,000원
❻ 두번째 출가 — 현진 지음/ A5신 272쪽/ 새날/ 값 6,500원
❼ 불교를 찾아서 — 석지현 지음/ A5신 398쪽/ 일지사/ 값 10,000원
❽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나라다 마하테라 지음, 정동하·석길암 옮김/ A5신 542쪽/ 경서원/ 값 12,000원
❾ 고요한 숲속의 연못 — 잭 콘필드, 폴 브라이터 엮음, 김열권 옮김/ A5신 238쪽 고요한 소리/ 값 5,000원
❿ 소설 석가모니 — 이형기 지음/ A5신 304쪽/ 한국문연/ 값 5,000원

여시아문 통신

여시아문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던 소식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이달(99년 3월)부터 매월 1회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회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